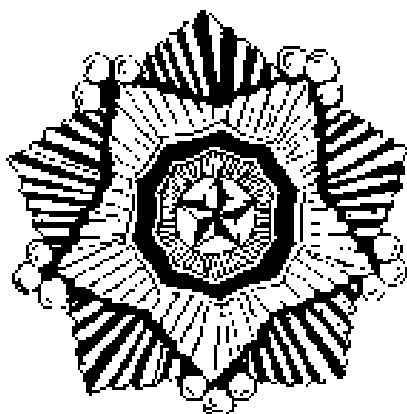




5

주제 95(2006)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 95 (2006)년 제5호

(루계 제 703 호)

◇◇◇◇◇◇◇◇◇◇

차 례

◇◇◇◇◇◇◇◇◇◇

| | |
|------------------------------|----|
| 선군시대 문학예술발전의 강령적지침..... | 3 |
| 21 세기의 태양 그이께 | 5 |
| 영광드리네 | 5 |
| 태양의 축복 | 6 |
| 우리 수령님 보시는 쇠물은... .. | 7 |
| 이 땅우에 새날이 밝을 때 | 7 |
| 얼어죽은 《진드기》 | 8 |
| 동강의 봄우뢰소리 | 9 |
| 짧은 한생을 불꽃처럼 산 혁명시인 (2) | 10 |
| 사소한 빈틈도 있을세라 | 12 |
| 조국이여 강성대국 앞으로 | 12 |
| 우리 선동원 | 13 |
| 주체문학의 대강 | 27 |
| 5 월의 보통강 | 27 |
| 백두산녀장군형상의 참신성과 소설의 구성미 | 28 |
| 영원한 자욱 | 30 |
| 기쁨의 무게 | 31 |

| | |
|----------------------------|----|
| 자강땅의 흰눈송이 | 32 |
| 영원한 포옹 | 33 |
| 《싱거운 말을 쓰지 말게》 | 44 |
| 성구, 속담 (로동)..... | 44 |
| 잊지 못할 그날에 | 45 |
| 경구, 격언 | 45 |
| 《당신은 누구의 단속을 받소?》 | 45 |
| 별이 끓는다 (외 1 편) | 46 |
| 청년분조원의 일기 | 46 |
| 소 나 기 | 47 |
| 즐거운 작별 | 47 |
| 소 원..... | 48 |
| 선군과 녀인 | 49 |
| 풍력발전소 | 51 |
| 욕망, 고민, 교훈… (2) | 52 |
| 막장시간 | 58 |
| 초소의 새벽까치 | 58 |
| 그대의 심장 | 59 |
| 나의 저주 나의 분노..... | 69 |
| 작품이 밝혀낸 생활철학과 작가의 지성 | 70 |
| 세월이 흐른뒤 | 73 |
| 유채 | 80 |

선군시대 문학예술발전의 강령적지침

—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적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 발표 20돐을 맞으며 —

전당, 전군, 전민이 원대한 포부와 신심에 넘쳐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선군혁명총진군을 세차게 벌리고있는 격동적인 환경속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적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를 발표하신 20돐을 맞이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고전적로작에서 지난시기 문학예술부문에서 이룩한 성과를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새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게 주체적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사상미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로작은 거기에 담겨져있는 내용의 심오성과 풍부성, 진리성과 독창성으로 하여 주체적문학예술의 창조와 건설을 힘있게 추동하였으며 선군시대 문학예술발전의 앞길을 밝혀주는 휘황한 등대로, 강령적지침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고전적로작이 선군시대 문학예술발전의 앞길을 밝혀주는 강령적지침으로 되는것은 선군시대 문학예술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주제를 명확히 제시하고 다양한 주제의 작품을 창작하는데서 제기되는 원칙적문제들을 과학적으로 밝혀주고있기때문이다.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와의 대결전이 첨예하게 벌어지고있으며 선군혁명위업이 전면적으로 실현되고있는 선군시대의 혁명적현실은 다양한 주제의 문학예술작품을 훌륭히 창작해낼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다양한 주제의 작품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해내야 선군시대의 혁명적현실을 여러모로 진실하게 반영할수 있으며 선군시대 군대와 인민들의 날로 높아가는 미학적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고전적로작에서 다양한 주제의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다양한 주제의 작품창작에서 제기되는 미학실천적문제들에 심오한 과학적해명을 주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당사상사업의 요구에 맞게 다양한 주제의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여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며 그들이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작에는 다양한 주제의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할데 대한 과업과 그 실현에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있다.

여기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을 형상한 혁명적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창작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한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지난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거둔 성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창작가, 예술인들이 문학예술작품에 위대한 사상가, 정치가 전략가로서의 수령님의 숭고한 품모를 감명깊게 형상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이 수령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에는 다음으로 당의 위대성을 형상한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할데 대한 과업이 제시되어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의 은덕과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성심만을 노래하여서는 당의 위대성을 폭넓게 형상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깊이있게 형상한 우수한 작품을 많이 창작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이 당의 위대성을 잘 알고 당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싸우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밝혀주시었다.

아버이수령님의 위대성을 형상한 문학예술작품들과 당의 위대성을 형상한 작품을 많이 창작할데 대한 과업이 제시됨으로써 창작가, 예술인들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작에는 이밖에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할데 대한 문제, 조국을 주제로 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는데 큰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 민족적자존심을 주제로 한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할데 대한 문제, 군민관계를 주제로한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할데 대한 문제, 인민군군인들의 다양한 생활을 보여주는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할데 대한 문제,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속에서 새것을 지향하도록 교양하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할데 대한 문제 등 우리 문학예술이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주제분야들이 명확히 밝혀져있다.

로작에는 또한 이 때 주제의 작품창작에서 제기되는 원칙적문제들이 전면적으로 새롭게 해명되어있다. 로작에 밝혀져있는 다양한 주제의 작품을 창작할데 대한 리론은 선군시대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고전적로작이 선군시대 문학예술발전의 앞길을 밝혀주는 강령적지침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여러가지 형태의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는데서 제기되는 원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명확히 해명해 주고있기때문이다.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을 전면적으로 찬란히 개화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여러가지 형태의 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해내야 한다. 사람들의 자주의식과 창조적지향, 미학적요구가 전례없이 높아지고 과학과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있는 현실은 여러가지 형태의 문학예술을 창조발전시켜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여러가지 형태의 문학예술을 창조발전시켜야 선군시대의 요구와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문학예술을 전면적으로 찬란히 개화발전시킬수 있으며 근로자들이 보다 문명하고 흥겨운 생활을 누릴수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고전적로작에서 여러가지 형태의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실현하는데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작에는 문학작품을 많이 창작할데 대한 과업이 제시되어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문학은 예술의 사상예술적기초이며 문학의 발전은 예술발전의 선결조건이라고 하시면서 문학을 확고히 앞세워야 예술부문에 풍년이고 우리 문학예술의 전반적수준을 한계단 더 높이 끌어올릴수 있다고 밝혀주시였다. 로작에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소설을 많이 창작할데 대한 문제, 혁명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는 훌륭한 영화문학을 많이 창작할데 대한 문제, 사상예술성이 높은 시작품들을 많이 창작할데 대한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있다.

로작에는 다음으로 사상예술성이 높은 영화를 많이 창작할데 대한 과업이 제시되어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영화를 많이 창작하여야 대중속에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제때에 깊이 침투시킬수 있으며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려일으킬수 있다고 하시면서 혁명발전의 매시기, 매단계마다 당이 제시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대중을 힘있게 불려일으키는 좋은 영화를 많이 창작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고전적로작에는 이밖에 가극, 음악무용, 미술, 연극, 교예 등 예술부문에서 새로운 혁신과 창작적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과업들과 그 실현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밝혀져있다. 문학예술의 모든 형태들을 주체의 요구대로 새롭게 창조발전시키며 여러가지 형태의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는데서 제기되는 원칙적문제들이 과학적으로 새롭게 해명됨으로써 사회주의 문학예술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찬란히 개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한 휘황한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고전적로작이 선군시대 문학예술의 앞길을 밝혀주는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중요한 근거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고전적로작이 선군시대

문학예술발전의 앞길을 밝혀주는 강령적지침으로 되는것은 또한 주체적문예사상을 창작실천에 철저히 구현하는데서 제기되는 원칙적문제들을 뚜렷이 밝혀주고있기때문이다.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을 창조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서는 주체적문예사상을 철저히 구현하고 고수해나가야 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가 우심하게 감행되고있는 복잡다단한 환경속에서 사회주의문학예술을 성과적으로 창조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서는 주체적문예사상을 지침으로 삼아야 하며 거기에 튼튼히 의거하여 창작활동을 벌려야 한다. 주체적문예사상은 우리 시대의 문학예술, 사회주의문학예술의 가장 올바른 지도적지침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로작에서 주체적문예사상에는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의 총적방향과 문학예술작품창작의 근본원칙과 구체적인 방도가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고 하시면서 주체적문예사상을 창작실천에 구현하는데서 제기되는 원칙적문제들을 명확히 해명하시였다.

로작에는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울데 대한 문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데 대한 문제,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도식주의적경향과 류사성을 없앨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주체적문예사상을 창작실천에 구현하는데서 제기되는 구체적인 문제들이 깊이있게 해명되어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작에는 이밖에도 평론활동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창작가, 예술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일데 대한 문제 등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며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문학예술을 더욱 찬란히 개화발전시키는데서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문제들이 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져있다.

위대한 사상리론은 위대한 실천을 낳는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고전적로작은 그 내용의 풍부성과 심오성으로 하여, 거기에 담겨져있는 사상리론의 정당성과 진리성, 독창성으로 하여 창작가, 예술인들의 심장을 틀어잡았으며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 혁명적작품창작으로 그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고전적로작에 제시된 사상리론을 창작실천 활동에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린 결과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창작적양양이 일어나고 주체적문학예술이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로작에서 제시된 과업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 결과 문학부문에서 거대한 성과와 빛나는 결실이 이룩되였다.

소설문학부문에서 수령형상을 창조하는것을 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고 창작활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전례없는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총서 《불멸의 력사》의 항일혁명투쟁시기편 장편소설창작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해방후편 장편소

설창작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서게 된것은 수령형상창조에서 이룩된 가장 빛나는 성과이며 주체사실주의소설문학의 위력을 과시하는 위대한 사변이다. 이와 함께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품모와 빛나는 혁명활동, 불멸의 혁명업적을 폭넓은 서사시적화폭으로 재현한 총서 《불멸의 향도》의 창작사업이 활발히 벌어졌으며 그 과정에 높은 창작적성고가 이룩되었다. 또한 현실을 여러모로 특색있게 그려낸 다양한 주제의 소설작품들이 훌륭히 창작되어 대중교양의 훌륭한 수단으로 리용되고있다.

시문학부문에서도 거대한 성과가 이룩되었다.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를 비롯한 새로운 양상의 서사시들이 왕성하게 창작되고 장시, 서정시, 가사 등 다양한 형태의 시작품들이 훌륭히 창작되어 인민군군인들과 근로자들의 생활과 투쟁의 무기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작에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 영화예술분야에서도 빛나는 성과가 이룩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폭넓게 형상한 혁명영화 《민족의 태양》을 비롯한 영화들이 훌륭히 창조되고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이 창작되어 주체적영화예술의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치고있다.

고전적로작에서 밝혀진 사상리론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이룩된 가장 특출한 성과는 무대예술분야에서 《김일성상》제관작품인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훌륭히 창조된것이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사상적내용의 풍부성과 심오성으로 하여, 예술적형식의 우수성과 독특성으로 하여 21세기를 대표하는 기념비적작품으로서 온세상 사람들의 열렬한 사랑

과 경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작에 제시된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음악, 무용, 미술, 연극, 교예 등 모든 예술 부문에서 새로운 창작적양양이 일어났으며 선군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게 찬란히 개화발전하였다.

뿐만아니라 문학예술의 모든 형태들이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서고 수령형상작품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의 문학예술작품들이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히 창작되고있는 자랑스런 현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제시하신 사상리론의 정당성과 독창성,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뚜렷이 과시해주고 있다.

혁명적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킬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리론을 실천활동에 구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우리의 문학예술은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자기의 면모를 일신하게 되었다. 선군시대의 문학예술, 선군문학예술의 강령적지침으로, 휘황한 등대로 되는 고전적로작을 받아안은것은 우리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있어서 더 없이 크나큰 행운으로, 영광으로 된다.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은 선군시대 문학예술발전의 강령적지침으로, 불멸의 기치로 되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 고전적로작을 더욱 깊이 연구하고 거기에 담겨져있는 위대한 사상과 리론을 창작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선군혁명총진군을 다그치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해내야 할것이다.

김정웅

가사

21 세기의 태양 그이께 영광드리네

알렉산드르 콘스탄티노비치 랍쾨브

1. 사나운 폭풍을 헤쳐온 사회주의붉은기
조선의 푸른 하늘에 세차게 펄럭인다
무적의 총대로 사회주의 굳건히 지키시는
김정일 그이는 사회주의 영원한 수호자
만세 만세 사회주의조선의 **김정일**
21세기의 태양 그이께 영광드리네
- 2.누리에 빛나는 불패의 사회주의붉은기
행성우에 찬란한 노을을 펼쳐간다
무적의 총대로 사회주의 앞길을 밝히시는
김정일 그이는 사회주의 열렬한 신봉자

만세 만세 사회주의조선의 **김정일**
21세기의 태양 그이께 영광드리네

3. 새로운 세계로 부르는 사회주의붉은기
조선의 기상 인류의 미래를 안아온다
무적의 총대로 사회주의 승리의 길 여시는
김정일 그이는 사회주의 백승의 향도자
만세 만세 사회주의조선의 **김정일**
21세기의 태양 그이께 영광드리네

(펼차는 로씨야시인임)

태양의 축복

김재원

비 댘은 뒤
파아란 봄들판에
대지의 입김인양 아지랑이 감실거리고
청신한 나무가지 사이사이로
청고운 봄새들 들락날락 지저귀는
상쾌한 봄날 아침

온 마을의 축복안고
꽃테두른 결혼식차 신나게 달려가네
신부를 태우고
신랑을 태우고

어이하리
령님어 마주 달려오던
어버이수령님 타신 승용차
아 다리목에서 다리목에서
문득 길가 옆으로 비스듬히 비켜서네

한껏 사랑에 무르익어
행복의 무아경에 빠진 신랑신부
그제서야 알아보았네
어버이수령님 타신 그 승용차를

너무도 당황하여
서둘러 황황히 차문 열고
신랑신부 나서려는데
그 심중 벌써 헤아리신듯
다리우로 험험히 걸어오시는
아 꿈결에도 그리웁던 어버이수령님

봄날의 태양
땅우에 내려온듯
밝고 밝은 미소지으며
기쁘시여... 기쁘시여
두손 가벼이 허리에 얹으시고
따뜻이 보내시는 축복의 인사여
—결혼식을 축하합니다
신랑신부 행복하랴구

너무도 분에 넘쳐

꿈속인들 신랑신부 어쩔줄 모르고 섰는데
아 태양의 축복이런가
하늘가엔 칠색무지개 고옹게 아롱지고
대지우엔 갖가지 꽃들 활짝 웃어라

—자, 신랑신부
어서 먼저
행복의 다리를 통과하랴구
—어버이수령님
그처럼 귀중한 시간을 ...
이러시면 저희들이 ...

인사의 말쑥조차
변변히 못올린 신랑신부
그만에야 머리숙여
삼가 축원의 절을 드리여라

신랑신부의 어깨를
가벼이 두드려주시며
오늘은 신랑신부가 주인공들인데
어서 먼저 건드라고
잔치야말로 인생에 흥할
대사중에 대사라고
수령님은 결혼식 차를
먼저 떠밀어주시네

오 만백성의 어버이
우리 수령님 아니시고야
어찌 감히 생각인들 할수 있으랴
마치도 오늘의 현지도일정에
신랑신부 축복도 미리 예견되어있는듯
그리도 소중히 새 가정의 탄생 축복해주시나니

찬란한 봄무지개속으로
사랑의 꽃수레는 행복속에 구울러가고
어버이수령님은 봄바람 부는 다리목에서
웃자락 날리며 손들어 축복해주시네
창창한 우리 조국의 밝은 래일을 내다보시며
오래오래 ... 오래오래 ...

우리 수령님 보시는 쇠물은...

장인철

북변의 제철소
정문앞에
오늘도 허리를 가버이 굽히시고
보안경으로 쇠물을 보시는 우리 수령님

어찌 잊으랴 내 어린 날
나의 아버지
기쁨에 흠뻑 취해
용해공모자를 꼭 씌워주며
우리 수령님께 쇠물을 보여드렸다고
자기의 보안경으로 보셨다고
나를 버쩍 안아들며 빙그르 돌던 그날을...

명절처럼 흥성인 그날의 감격
우리 집에 모여앉은
용해공 안해들의 떠들썩한 목소리
이제는 세월의 저 먼곳에 머물러있건만

어느때나
그 어느때나
이 화폭 우러르면
우리 수령님 방금 용해장을 찾으시여
내 뿔인 오늘의 쇠물을 보시는것만 같아

가슴 후련히 쇠물꼭포를 쏟아내고
사람들의 어깨우에 등실 실려
환영곡, 꽃보라속을 헤쳐나올 땐

보안경이 아니라
사진기로 나를 찍어주신것만 같아

오 진정
아침이면 출근길에
저녁이면 퇴근길에
기다려 맞아주시는 불멸의 그 모습
신군조국의 강철대들보를 억세게 세워가는
우리 세대 용해공들의 심장을 보시는것 아니던가

그때문에 진정 그때문에
눈부신 불물의 황홀경이 펼쳐지면
그 영상 확 안겨와
눈시울 뜨거이 젖어드는것은

정녕
수령님 보시는 쇠물은
추억을 새겨주는 쇠물만이 아니거니
나는 언제나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그리움의 불노을을 뜨겁게 펼치나니

아 오늘도 펄펄 쇠물은 끓는다
강성대국의 불의 흐름을 안고
용해공들의 심장은
수령님앞에서 충성의 고동을 높인다
오늘도 나는 수령님앞에서 쇠물을 끓인다!

가사

이 땅우에 새날이 밝을 때

류동호

밤하늘에 동이 트고 새날이 밝을 때
전선천리 저 멀리로 이 마을 달리네
굽이굽이 령을 넘어 전선에 계시는
장군님 안녕바라며 아침인사 드리네

우리 집의 창문가에 새날이 밝을 때
그 영상을 우러르는 이 가슴 뜨겁네
해빛밝은 요람지켜 눈비를 헤치시는
장군님 어버이모습 사무치게 그림네

우리 사는 이 땅우에 새날이 밝을 때
신군자욱 따라서는 신념은 불타네
전선에서 강성대국 지름길 여시는
장군님 높이신 뜻을 심장으로 받들리

아 이 땅우에 새날이 밝을 때
장군님의 그 품을 찾아 그리움은 달리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한생이 어려있는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추켜들고 백두에서
개척된 우리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공동구호에서

백두산전설

얼어죽은 《진드기》

일제관동군사령부산하에 《진드기부대》라는 별명을 가진 《특설부대》가 있었다.

무사로서는 나무랄데 없다고 하는 놈들로 부대를 못게 된 의도는 조선혁명의 사령부를 찾아내려는데 있었다.

《진드기부대》 대장인 야마다는 이미 어느 한 전투에서 유격대와 맞다들어본적이 있다는 《경험자》였건만 조선인민혁명군사령부의 신출귀몰에 실패만을 거듭하였다.

겨우내, 봄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좌왕우왕하며 헛물만 켜 야마다는 오랜 고심끝에 어느날 묘한 수를 생각해냈다.

(백두산을 조선인민혁명군의 집이라고 했겠다. 그러니 아예 거기에 가서 지키고있자 언제건 조선인민혁명군사령부가 그곳에 들릴 때가 있을게 아닌가.)

그리하여 《진드기부대》는 백두산으로 갔다.

때는 7월이라 복지경에 접어들었지만 백두산의 날씨는 아직도 선선하였다.

놈들은 해빛이 잘 들면서도 숨어있기에도 유리한 백두산 서남쪽의 어느한 골짜기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오목진 곳에 쭈그리고 모여앉아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원래부터도 그랬지만 이해따라 백두산의 기온은 낮과 밤의 차이가 매우 심했다. 해가 비칠 때에는 땀이 철철 흐르다가도 그날만 지면 된겨울 추위때처럼 얼어들었다. 그레 놈들은 밤에는 몇 십리밖의 마을에 내려가 자고 새벽이면 다시 올라와 지켜있곤 하였다.

그러기를 몇번, 기다리기에 지쳐서 놈들의 눈이 방아확처럼 들어간 어느날이었다.

이날 원정의 길에서 돌아오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몇몇 대원들과 함께 백두산의 장군봉에 오르시었다.

《진드기부대》놈들은 곧 이것을 알아차렸다.

야마다는 이미 봉변을 당한적도 있고 김일성장군님께서 족지법을 비롯한 여러가지 술법을 쓰신다

는 소문을 들어왔던터라 서둘러 접어들었다간 순간에 목없는 귀신이 되고말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레 가까운 부대를 찾아가 증원병을 요청해오도록 부하 한놈에게 증명서를 쥐여보냈다.

백두산의 날씨도 주인이 왔다는걸 아는지 바람한점 불지 않았고 하늘엔 구름 한조각 뜨지 않았다.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바위우에 걸터앉으시여 아름다운 조국산천을 바라보시었다.

이때 뒤에 있는 한 골짜기에 왜놈들이 숨어있다는걸 눈치챈 대원들이 어떻게 하면 사령관동지의 휴식에 방해가 되지 않게 감쪽같이 슬쩍 놈들을 죽쳐버릴것인가를 귀속말로 의논하고있었다.

그런데 어느새 아시였는지 사령관동지께서는 걱정할것 없소, 날 찾아다니다 못해 감히 백두산에까지 기여들었구만, 앉을자리, 설자리도 가릴 줄 모르는 놈들이니 내가 버릇을 떼주어야지 하시더니 한손을 높이 쳐드시여 그 골짜기에 그들이 지도록 해빛을 가리우시었다.

골짜기에 숨어서 비지땀을 흘리며 움짱달짝 못하고 증원부대가 오기만을 기다리고있던 《진드기부대》놈들은 갑자기 골짜기안이 그들이 지고 추워나자 의아해서 하늘을 쳐다보았다. 순간 모두 눈들이 뒤집혔다. 엄청나게 큰 손이 우에서 해빛을 가리우고있었기때문이었다

골짜기는 삼시에 얼어들었다.

거기서 뛰쳐나갔다가 총에 맞겠지, 그냥 앉아있자니 사시가 얼어들지 놈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꼬부린채 공공 신음소리만 냈다.

증원병을 데리러갔던 놈이 수천명의 《토벌대》놈들을 끌고왔을 때엔 해가 지기 전이였는데 혁명군사령부는 이미 간곳이 없고 그늘진 골짜기안에 꼬부리고 얼어죽은 《진드기부대》놈들의 시체만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바로 이런 일이 있는 후부터 《진드기부대》놈들이 숨어있던 골짜기에는 그들이 진짜 오늘까지도 별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

동강의 봄우리소리

김승남

봄빛이 무르녹은
동강의 하늘가에
봄우리마냥 올려갔다
2천만이 한데 뭉쳐
조국광복 이룩하자고
뜨겁게 선언하시는
김일성 장군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식민지땅에에 놀리워
갓은 멀리와 천대속에 신음하던
로동자도 농민도 지식인도 종교인도
심장의 걱정으로 터친
우렁찬 박수갈채가
동강의 밀림을 흔들어놓았다

수난많은 민족사가
그리도 갈망해온 민족대단결의 통일전선이
그 모진 간고한 시련속에서
마침내 《조국광복회 10대강령》으로
해살마냥 삼천리에 퍼져갔다

총대가 약했던탓에 단결의 중심이 없었던탓에
가랑잎처럼 흩어지고 쫓겨가던 민족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조선에

백두의 총대를 억세게 버려
믿고 의지할 삶의 기둥을 세워주신
조국광복의 위대한 태양 **김일성**동지 !

아아 장장 곡절많은 민족사에
빛나는 갈피로 아로새겨진
잊지 못할 1936년 5월 5일이여 !
너는 그날에
우리 민족에겐 희망의 등대로 솟아올랐고
원췌에겐 징벌의 불이 되어 타올랐거니

총대를 틀어잡으면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주인이 되고
하나로 굳게 뭉치면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다는 위대한 진리를
봄우리마냥 터친
조국광복회창립대회

수령님 그날에 올려간
민족대단합의 봄우리를
오늘은 장군님께서 온 누리에 터쳐가신다
7천만 온 겨레를 하나로 묶어세워
분렬의 얼음장을 녹이며
통일의 한길로 이끄신다

짧은 한생을 불꽃처럼 산 혁명시인 (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력사는 수많은 이름있는 령도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 수령님과 같은 위대한 령도자는 알지 못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을 때마다 혁명시인 조기천은 수령님께서 지니신 높은 인품과 함께 문학예술에 대한 심오한 리론과 해박한 식견에 깊은 감동을 받곤 하였다.

언젠가 시인은 위대한 수령님께 항일무장투쟁을 주제로 하는 작품창작에서 허구와 과장이 허용될수 있겠는가에 대하여 문의의 말씀을 올린적이 있었다.

당시 적지 않은 작가들이 항일혁명투쟁과 같은 엄연한 력사적사실을 취급하는 경우 예술적허구와 과장이 허용될수 있겠는가에 대하여 툭툭한 견해를 세우지 못하고있었다.

시인의 이야기를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문학작품에서는 전기와 실화와는 달리 작가의 허구와 과장이 필수적인것이라고 하면서 문학적허구가 없이 소설이나 연극같은 작품을 어떻게 구성하겠는가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작가들이 창작적환상을 대담하게 펼치고 글을 써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되 문학적허구나 과장 역시 생활에 기초한것이여야지 전혀 허황한것으로 되어서는안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리론상으로나 창작실천상 시급히 해명되지 않으면 안될 력사물창작에서의 예술적전형화에 관한 심오한 문제를 그렇듯 알기 쉬운 말씀으로 명철하게 밝혀주시는데 시인은 커다란 충격을 받지 않을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은 군사에서도 강철의 령장이실 뿐아니라 문학예술에도 역시 누구도 따를수 없는 조예를 겸비하신 걸출한 영재이시라는 생각이 시인의 가슴을 메웠다. 그러한분을 령도자로, 스승으로 모시고 글을 쓰는 조선의 작가된 공지와 행복감으로 하여 시인은 무한히 자랑스러웠고 바로 그것으로 하여 그는 언제나 활기로왔고 끝없는 남북 삼천리에 재더미만 남았다

창작적열정에 넘쳐있었다.

시대와 혁명에 대한 높은 자각을 지닌 조기천의 창작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시는 사랑에 대한 시인의 보답이였고 수령님께서 열어주신 지혜와 정열의 생의 용솟음이었다. 그러한 시인이였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가 더욱 미덥고 자랑스러우시였으며 영예도 기쁨도 남먼저 안겨주시고 어려운 과업도, 무거운 직책도 서슴없이 맡겨주시였다.

주체40(1951)년 3월 위대한 수령님의 발기에 따라 문학예술의 각 부문 예술단체들을 종합적으로 지도할수 있는 중앙기관으로서의 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를 결성하였는데 조기천은 그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다.

주체40(1951)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작가, 예술인들과 함께 시인 조기천을 다시 부르시였다.

이날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작가들의 창작활동이 급속히 전진하는 현실에서 뒤떨어지고있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의 영웅적투쟁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있는 부족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시고 전쟁현실을 반영하는데서 나서는 과업에 대하여 제시하시였다.

사랑과 믿음은 다만 따뜻한 포옹과 값높은 표창으로만 표현되는것이 아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비판과 일깨움은 시인 조기천의 창작과 영예를 위하여 그 이상의것이 없는 뜨거운 사랑이었던것이다.

시인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쟁쟁한 목청과 재능을 가다듬어 화약내 풍기는 고지에서 불을 뿜는 중기를 노래했고 불타는 거리에서 원쑤들에게 저주의 주먹 높이 들고 멸적의 시구들을 총탄처럼 재워 날려보냈다.

세계의 정직한 사람들이여!

지도를 펼치라

싸우는 조선을 찾으라

그대들의 뜨거운 마음이 달려오는 이 땅에서

도시와 마을은 찾지 말라

태양도 검은 연기속에서

피같이 타고있는 조선!
폭격에 참새들마저 없어진 조선!

...

하지만 사람들은 살아있다
불속에서도 연기속에서도
인민은 살며 싸운다
조선은 싸운다

모든것을
생명도 사랑도 청춘도
조국에 바치여
인민은 싸운다!

이것은 시 《조선은 싸운다》의 한구절이다.

시에서는 싸우는 조선인민의 전투적기개와 정신적위용.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투지가 격조높이 울리고있다.

시인은 시 《불타는 거리에서》, 《죽음을 원쑤에게》, 《문경고개》에서도 전쟁의 승리를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인 투쟁모습과 전쟁의 시련을 용감하게 이겨나가는 완강한 의지를 감동깊게 노래하였다.

그는 그밖의 수많은 명작창작으로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을 영웅적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조기천은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과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새로운 현실과 그 변화에 가장 민감하고 적극적이며, 시대정신의 첨단에 선 열정적인 시인으로 자기의 시세계를 새롭게 개척한 시인이었다.

주체40(1951)년 조기천은 시의 전투장이기도 했던 자기의 창작실에서 원쑤의 흉탄에 희생되었다.

그의 희생을 몹시 슬퍼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친히 자신의 명의로 그의 희생을 군대와 인민들에게 알리는 부고도 신문에 내며 국가장의위원회회를 조직하도록 해주시고 그가 끝내지 못한 유품과 그의 선집을 출판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서사시 《백두산》은 해방직후에 쓴 시로서 당의 유일사상이 제일 철저히 구현된 시이며 아주 잘 씌여진 시라는 높은 평가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몸소 키워주신 수많은 작가

들중의 한사람이었던 시인 조기천,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에 와서도 그를 아끼고 그의 작품을 빛내여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속에는 참으로 숭고한 뜻과 대를 이어 흐르는 깊은 의리가 어려있다.

조기천의 문학은 우리 혁명의 거세차고 용용한 흐름을 정면으로 노래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때 벌써 한 시인의 문학이 포괄하고있는 범위의 방대성과 깊이를 헤아리시였으며 거기서 혁명과 새 조국 건설의 승리를 위해 열정을 다하는 시인의 자세와 뜨거운 충성의 마음을 보시였었다. 그리고 시인을 그토록 아끼고 사랑해주시였다.

조기천을 가리켜 해방후 우리 문학을 건설한 로장들중의 한사람이라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높은 평가는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이런 뜻에 기초하고있는것이였으며 거기에는 그처럼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당을 받들고 혁명전통을 옹호하며 혁명의 길에 순정을 다 바친 열혈의 시인, 혁명전사에 대한 다함없는 사랑이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서사시 《백두산》을 영화로 각색할데 대한 은정을 베푸시였으며 조기천의 서사시 《백두산》을 재판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애국렬사릉에 안치된 조기천의 묘비에 《혁명시인》이라고 밝힐데 대한 은정깊은 사랑을 돌려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계심으로 하여 시인은 어린 시절에 눈물로 떠났던 이 땅, 삶과 시가의 요람인 조국을 찾았고 거기에 시문학을 혁명과 튼튼히 결부시킬수 있었다,

당과 조국을 위해 노래를 바치며 짧은 한생을 불꽃처럼 살다가 간 한 시인과 그의 시가문학에 베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혜로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혁명에서 차지하는 문학예술의 지위를 밝히고 그의 발전을 위해 모든것을 다 베풀어주는 로동계급의 수령과 당의 높은 뜻과 령도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로서 전성기를 자랑하는 우리의 주체의 선군문학에 아로새겨진 수령과 작가의 혈연적관계의 숭고성을 보여준다.

박춘택

사소한 빈틈도 있을세라

항일전의 그날에나 새 조국 건설의 나날에나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모습은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새 조국 건설이 한창이던 어느날이었다. 이날 경위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길떠날 준비를 서두르고있었다. 운전사도 차정비를 끝내고 필요한 물품들을 갖추어놓느라 분주히 오갔다. 드디어 떠날 시간이 가까와오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현지지도의 길을 떠나실 때면 언제나 그이의 신변안전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돌리시는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날도 몸소 나오시여 같이 동행하는 경위대원들과 일군들을 만나주시었다. 경위대원들의 출발준비상태를 하나하나 알아보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운전사에게 삭주로 가는 길이 요즘 어떠한지 알아보았는가도 물으시었다. 삭주로 가는 길을 지도상으로만 료해하고있었을 뿐 구체적으로 알고있지 못한 운전사는 뜻밖의 물으심에 변변한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그러자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다니는 운전사는 수령님의 현지지도로정의 지형지물과 길상태를 구체적으로 알고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말씀해주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삭주까지 가는 길은 산골길이여서 매우 험하기때문에 차를 조심히 몰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어디쯤 가면 길이 몹시 좁고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경사가 급하며 굽인돌이가 많기때문에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었다. 경위대원들은 삭주로 가는 로정을 것처럼 손금보듯 환히 알고계시는 김정숙동지의 모습에서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그리고는 깊이 머리를 숙이었다. 정겨운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경위대원들에게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시더니 저택으로 들어가시여 삽과 곡괭이를 들고나오시었다. 경위대원들은 더욱 놀랐다. 의아한 눈길로 그이를 우러르는 경위대원들에게 김정숙동지께서는 어제 저녁 기상관측소에 알아보니 평안북도의 산간지방에서는 오후에 소나기 내릴것이 예견된다고 하였다고, 산골물에 혹시 길이 꽤일수도 있으니 사전에 이런 준비를 해가지고 떠나는것이 더 안전할것이라고 다정히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안전을 위해서는 그토록 사소한 빈틈이 있을세라 하나하나 보살펴주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그제서야 김정숙동지께서 사전에 삭주까지 가는 로정과 기상조건까지 일일이 알아보셨다는것을 알게 된 경위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안전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그이의 끝없는 충실성에 눈굽을 적시었다. 이렇듯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안전을 위해서는 사소한 일도 소홀히 대하지 않으시었다.

가사

조국이며 강성대국 앞으로

김용희

전선길 천만리에 야전복을 날리시며
백두령장 우리 장군 공격전에 서계시네
나가자 조국이며 강성대국 앞으로
새 세기의 준마 몰아 내 조국을 떨치자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천하지락 펼치시며
백두령장 우리 장군 신심높이 이끄시네

나가자 조국이며 강성대국 앞으로
불바람을 일으키며 내 조국을 빛내자

정일봉의 기상안고 새 세기를 향도하는
백두령장 우리 장군 최후승리 부르시네
나가자 조국이며 강성대국 앞으로
붉은기를 휘날리며 령마루로 내닫자



우리 선동원

황청일

1

리근삼은 벌써 반시간째 난감한 표정을 짓고 사과나무 주위를 맴돌고있었다. 복잡하게 뒤엉킨 나무가지들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지 섣뜻 결심이 서지 않았다.

분조장 김일학과 강득준은 그를 까마득히 떨귀 놓고 발머리 저쪽에서 가위질을 하고있다.

가위질소리가 강바람을 타고 귀맛 좋게 들려온다. 강득준은 제노라 할만큼 기능이 높은 전정사이다.

(눈에 익구 손에 설다더니...)

근삼은 자신에 대한 불만을 느끼며 한숨을 쉬었다. 한달전 근삼이가 가지자르기를 배우고싶어 하자 일학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아니, 사과나무품종도 잘 모르는 아바이가?!》

《허허, 다 배워서 하는 일이겠지...》

《어쨌든 거 열성이 좋군요. 그럼 오늘부터 강동무 한테서 견습을 받으시오. ...》

근삼은 강득준의 뒤를 부지런히 따라다녔다. 강득준은 한동안 성수가 나서 전정기술을 배워주었다. 현대 이마적부터 그 열성이 퍼그나 시들해지고 지어 귀찮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제서야 리근삼은 득준이가 자기때문에 일학이보다 작업실적이 떨어져서 조급해한다는것을 깨달았다.

원래 강득준은 우월감이 많고 일도 특수한 일만 한다고 하여 사람들은 이름대신 강특수라고 부르길 즐겨했다. 특수한 일이란 우선 가지자르기이다. 기능이 높은 그는 겨울 몇달동안에 남들의 굶이 되게 로력실적을 올리곤 했다.

약뿌리기철이면 또 한바탕 본때를 보인다. 복

숭아 속벌레가 제아무리 교묘하게 알을 쓸어놓아도 강득준의 약대앞에선 살아남지 못한다.

지난해 봄, 관리위원회에서는 결원중에 있는 자재 인수원대신 안면이 넓고 활동성이 있는 그를 소환해 가려다 일학의 반대에 부딪혔다.

결국 관리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자재인수원을 임명할 때까지 영농자재사업이 바쁜 한철만 강득준을 임시 동원시키기로 략착을 지었다. 그렇게 되어 강득준은 지난해부터 가지자르기와 약뿌리기철에는 과수분조에서 일하고 좀 한가한 때는 농장자재보장을 하는 그야말로 《특수한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

리근삼은 지난해에 이곳 과수분조에 선동원으로 배치되어왔다. 나이에 비해 그는 몹시 걸늬어 보였다. 젊은 시절 전연초소에서 입은 부상자리가 드문히 띠끔거리고 이미 있던 속탈까지 겹쳐 그를 퍼그나 걸늬어 보이게 하였다.

《고난의 행군》 시기 거듭되는 자연재해로 농사가 잘안되고 인민생활과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수 없어 농촌으로 자원진출해온 그였지만 몸이 건강치 않아 선동원일이 사실 힘에 부쳤다.

그가 농장에 처음 진출해왔을 때 풋낫이나 있는 리당비서는 과수분조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아직 과수분조에 선동원을 임명 못했습니다. 지난해 가을 선동원을 하던 동무가 출가했는데 그후 로는 아직 책임자를 고르지 못했습니다. 동무는 군사복무를 할 때도 정치사업을 많이 해왔고 공장에 있을 때 근로단체사업도 해본 경험이 있으니 뭐 별로 힘들게 없을겁니다. 선군시대의 농촌선동원답게 한번 잘 해보십시오. 믿겠습니다. ...》

리당비서의 말은 근삼을 온밤 잠들수 없게 만들었다. 아들 진수가 군대에 나가고 딸 진옥이가 대학에간 뒤로 저녁이면 별스레 더 호젓해지곤 하는 방안구들에 누워 잠못들고 궁성거리기만 하는 남편을 보고

안해 정임이가 걱정스레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될거예요. 집안밖의 일은 내가 다 할테니 당신은 분조일에만 전심하세요...》

《고맙소.》

근삼은 고개를 끄덕였다. ...

리근삼은 인차 농사일을 배웠고 사람들과도 친숙해졌다. 그러나 여러문명밖에 안되는 분조원들을 한가정처럼 화목하게 만들기는 말처럼 쉽지 않았다.

규률과 질서를 중시하는 젊은 분조장 김일학... 사람들은 그를 융통성이 전혀 없는 막대기처럼 꺾끗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의 두눈은 마치도 촘촘히 엮은 새우그물처럼 분조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사소한 일도 놓치는 법이 없다 근삼이도 그의 예리한 눈초리에 걸려 진땀을 뻘적이 있었다. 어느날 아침 근삼은 리당에 들러 선동자료를 가지고오느라 좀 늦었었다. 근삼은 짐승피해를 막느라 촘촘히 조성해놓은 아카시아나무 울타리를 따라오다가 좀 설된 곳을 겨우 비집고 파수 발으로 들어갔다. 벌써 작업을 시작해서 입구로 예돌아갈 시간이 없었다. 그런데 어데선가 불쑥 일확이가 나타나 대뜸 노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바이, 그렇게 울타리에 구멍을 내면 어떻게 합니까?》

《리당에 들러오다보니 늦어서 그만...》

《헛참, 리당이 아니라 군당에 갔됐어도 질서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바쁘다구 공장 울타리를 뛰어 넘는 노동자를 봤습니까?》

근삼은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다. 분조장의 말이 백번 정당했던것이다,

《새우그물》 같은 그의 눈초리에 제일 많이 걸려드는 사람은 한순택이다. 오늘도 해가 뉘엿뉘엿 사수산너머로 내려갔는데 여적 순택은 돌아오지 않는다. 아침 일찌기 금진강건너 파수농장의 나무모밭에 사과나무 모를 심으러 갔는데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었다. 근삼은 좀 쉬려고 가지가 복잡한 사과나무앞에서 물러났다. 머리가 막 어질어질했다. 저쪽 강변쪽의 사과밭에서 녀인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벌써 일을 끝낸 모양이다. 그속에서도 강득준의 안해 조금의 목소리가 류다르게 높았다. 분조는 물론 리내의 모든 신변잡사가 그 녀자의 입에 오르내리며 제나름대로 채색된다. 그 녀자는 마치 잠시도 쉬지 않고 물가를 오르내리는 물촉새와도 같았다. 얼굴에 늘 수심이 어려있는듯한 순택의 안해 복실이며 처녀때 《남자번지기》로 소문났던 키가 후리후리한 일확

의 안해, 분조의 외동딸로 불리우는 스무살난 귀염둥이 춘애 ...

리근삼은 저녁안개속에 포근히 잠겨들고있는 강기슭의 일곱채의 기와집을 정겨운 눈길로 바라보며 입가에 느슨한 웃음을 그리었다.

《일곱집마을》! 부를수록 정다운 마을이름이다. 이 《일곱집마을》을 위해 연대봉절벽우에 텔레비존중계소가 있으며 금진강청년발전소의 전기가 단독선을 타고 흘러온다. ...

리근삼은 달구지소리에 정신이 들었다. 기다리던 순택이가 나타났던것이다. 순택은 발머리에 소를 멈춰 세우더니 곧바로 근삼이한테로 걸어왔다. 성큼하게 솟은 코마루며 부리부리한 두눈은 늘 그 무엇을 찾는듯 열기로 번뜩인다. 성격이 쾌활하고 사대답게 씨원씨원해서 근삼의 마음에 든다.

《왜 이렇게 늦었나?》

《말도 마시우. 질러오느라 금진강에 들어섰다가 달구지가 빠져 몇시간 실히 고생을 했수다.》

《그런데 사과나무모는?...》

근삼은 빈 달구지를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한달구지 꺾 박아 실었다가 도루 부리웠지요. 모두들 새 품종 사과나무모를 찾는데 유독 우리만 종전의 낡은 사과나무모를 가져오는게 어쩐지 마음 내키지 않습니다. 지금 온 나라의 파수밭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심어서 한두해면 사과가 열리는 새 품종 사과나무를 심느라구 법석 끓고 있는데 우리만 추세에 뒤떨어지는것 같아서 ...》

《그래도 일단 과업을 받았으면 수행해야지.》

근삼은 벌써부터 순택의 일이 걱정스러웠다.

또 무슨 말썽이 일어날것만 같았던것이다.

《이 사과나무를 좀 보게 내 재간엔 도무지, 허허 참 ...》

《복잡하게 생겼군요. 거 가위를 좀 주시오.》

순택은 잠간새에 사과나무를 리밭이나 한듯 멀쑥하게 만들어놓았다. 그도 득준이 못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일확은 해마다 전정기일을 보장 못해 찢절매면서도 순택이를 이일, 저일에 따돌리곤 했다.

《차라리 순택인 가지자르기를 안시키는데 낫습시다. 무슨 리론이 그렇게 많은지 말씨름으로 사과나무 한그루를 놓고 해를 넘길 때가 많습시다.》

일손이 바쁜데 순택이도 가지자르기를 시키자고 제기하니 일확이가 손을 내저으며 한 말이다. 순택은 지금 농장대학 파수학부에 다닌다.

그의 남다른 열성과 탐구심에 대해 일확은 별로 흥미가 없어 하며 지어 우환거리로 생각할 때도 있다. 지난해 봄, 복숭아속벌레 생활습성을 관찰한다며 사과나무 한그루를 비닐집으로 둘러막고 어데선가 겨울난 속벌레 유충을 가져다넣은 후 밤낮 확대경을 쥐고 비닐집에서 나오지 않았

다. 쌍둥이 딸들이 밥을 날라왔다. 그런데 일이 안될 때라 숙벌레 큰 나비가 까나올 무렵에 강한 남서풍이 불어왔다. 비닐집은 고무풍선처럼 하늘로 날아가버리고 숙벌레나비들은 사과밭 여기 저기 다 흩어져버리고말았다.

《그바람에 또 사과밭에 없던 숙벌레가 퍼졌지요. 순택의 <연구사업>이란 늘 이 모양입니다. …》

그 일이 있는 후에 일학이 투덜거리며 한 말이였다.

근삼의 위구심은 공연한것이 아니였다. 저녁에 분조총화가 있었는데 순택이때문에 회의가 퍼그나 길어졌다. 일학은 성이 나서 말했다.

《동문 찍하면 추세요 뭐요 하면서 복잡하게 하는데 그래 지금 사과나무밭에 새 품종 사과나무를 보식한다는거요? 그 새 품종이라는게 아직 충분한 파악도 없는데다가 우리 농장의 기후풍토에 맞겠는지도 잘 모르지 않소. 그저 뭐니뭐니해도 그런 모험이 아니라 안전하게 국가계획부터 수행하고 봐야 된단 말이요. … 동무는 언제 가면 그 개인리기주의를 부리던 때의 자유주의, 무규률을 없애겠소?…》

순택의 얼굴이 대뜸 붉어졌다.

《고난의 행군》 시기 순택은 집수리를 하느라 모자라는 재목감을 보충한다면서 강웃쪽 산기슭의 나무를 몰래 몇대 찍어냈었다. 그때문에 농장관리위원회는 물론 산림경영소에게까지 문제가 상정되어 톡톡히 진땀을 뻗었다. 그후부터 분조녀인들은 그를 《벌목부아저씨》로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헛참, 그제 언제때 일인데 아직도 들쭉시지 못해 안달이요?》

순택은 저오기 얼굴을 붉혔으나 웃어버렸다.

《도대체 난 분조장동무의 그 사과나무 <원상복구> 가 어쩐지 목은 된장단지처럼 곰팡이냄새가 나는게… 눈만 뜨면 다리접이니 부란병수술이니 빈그루보식이니 하는데 왜 대담하게 다 뒤집어엮구 새 품종 사과나무를 심지 못하오?우리 군만농교봐도…》

《그만 두오! 파악도 없는걸 심었다가 계획을 미달하면 동무가 책임지겠소?》일학의 성난 목소리가 순택의 말을 중동무이시켰다.

《중소, 내가 하는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데 가도 중소.》

일학은 위낙 최수확기를 넘긴 나이의 사과나무들인 데다 《고난의 행군》시기에 입은 피해를 복구하느라 그런 일들을 벌려놓고있었다.

《헛 썩대바자도 찬바람 막는다구, 그래도 이 순택이가 필요할 때도 있을거요…》

《두고봐야지. …》 모든것에 무관심한듯 한켠 구석에 점잖게 앉아 새로 나온 기술잡지를 뒤적이던 강득준이 빈정거리듯 입을 열었다.

《헛 썩대바자에 걸린 강통도 사과를 쪼아먹으려 날아오는 까마귀 한두놈은 쫓아버릴수 있으니까…》

《어찌 까마귀뿐이겠나. 사과를 훔쳐내는 큰 소리개도 이젠 꼼짝 못하게 할거요.》

《그건 누굴 녀두에 둔 말이요?》

강득준은 얼굴을 붉히며 걸고들듯 순택에게 물었다. 근삼은 순택의 안해 복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것을 보았다. 마음 어진 그 녀자는 무슨일이 터질가봐 바늘방석에 앉은듯 안절부절 못했다. 근삼은 순택이가 지난해 가을 자재사업에 필요하다며 작업반에 요구하여 수십키로의 사과를 내간 강득준을 두고 그런말을 했다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근삼은 언젠가 순택이가 득준을 좋지 않게 보길래 근거없이 사람을 의심해선 안된다고 좋게 타이론적도 있었다.

일학은 서둘러 회의를 마치면서 빈손으로 돌아온 순택의 로력일을 무효로 한다고 선포하였다.

2

오늘은 농장휴식일이다. 근삼은 오전에 개인퇴적장을 파놓고 오래뜰에 살구나무들을 심은 다음 일학이와 함께 마을을 돌아보았다. 오늘 매 가정들에서는 관리위원회가 규정한 크기의 퇴적장을 파고 과일나무를 다섯그루씩 심어야 한다. 검열은 점심참에 일학이와 근삼이가 하기로 했다. 모두들 규정대로 퇴적장을 파고 과일나무들을 심었으나 강득준이네는 시작도 안했다.

강득준은 아침 일찌기 불일이 있다며 흥덕으로 떠나가고 초금인 시장에 계사나말들을 가지고 나갔다고 한다. 점심때가 되니 강가에 나갔던 계사나들이 줄지어 집으로 돌아오고있었다. 어린 수련이가 회초리를 들고 뒤에 따라왔다. 계사나들이 대문안에 들어서자 마당에서 모이를 쫓고있던 닭들이 그 위엄에 기가 눌린듯 사방으로 흩어져버린다. 돼지우리엔 송아지만 한 암돼지가 커다란 배를 드러내놓고 늘어지게 햇빛쪼이기를 하고 있다.

《아바이, 치마를 맞대고 살고있는 저 앞집 순택이네 텅빈 마당을 보시오. 닭이나 몇마리 보이지 어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래서야 어떻게 잘살겠습니까.…》

근삼은 그의 말을 못들은척 샅을 찾아들었다. 득준이네 퇴적장을 파려는것이다. 지난해처럼 또 퇴적장을 걸쳐 파놓고 지낼 잡도리가 분명했다면 땅에 덩실하게 가둬나무 몇단을 마지못해 쌓아놓고 풀베기관정을 할 때면 강득준은 시내에서 진거름따위를 몇차 부랴 부랴 실어내울것이다.

《아바이, 그렇게 버릇을 굳혀선 안됩니다. 내 오늘 밤에 머리가 열쪼각이 나더라도 기어이 초금이 제손으로 퇴적장을 파놓게 할테니 안심하십시오.》

그러나 근삼은 머리를 저었다. 마지못해 한 일이 잘 되면 얼마나 잘되랴싶었다. 리근삼이 부득 부득 퇴직장을 파기 시작하자 일확이도 할수 없는 듯 허를 차며 삼을 들었다. 한시간나마 땀을 흘리고나니 둘은 기진맥진하였다.

집에 돌아온 근삼은 혼자서 점심밥을 먹고 누워버렸다. 닷새전 강원도로 떠나간 안해생각이며 오늘 아침 읍으로 나간 성춘의 생각이 마음을 번거롭게 만들었다. 근삼은 읍에 있는 철제품공장에 다닐 때 이래 여름 공장돌격대를 책임지고 금강언제건설에 동원되었었다. 지금 그가 동거생활을 하고있는 성춘이네 집은 근삼이네가 숙식을 하던 집이었다. 그때는 성춘이가 군사복무를 하고있었고 늙은 그의 어머니가 분조일도 돕고 원군사업도 하면서 홀로 살고있어 너렁청한 집을 근삼이네가 제집처럼 리용하였다. 근삼이가 파수분조에 배치되어오자 성춘의 어머니는 기꺼이 자기 집 옷방을 내주었다. 사람이 퍼그나 그리운데도 있었지만 근삼의 사람됨을 잘 알고있었던것이다. 홀로 아들을 기다리던 어머니는 지난해 봄에 세상을 떠났다. 근삼은 어머니의 림종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우리 성춘이를 부탁하네. …》 하고 어머니는 눈을 감기 전에 근삼에게 말했다. 근삼의 내외는 성춘어머니가 살던 아래방을 비워두었다. 모두들 그들내외의 가목한 마음에 허를 찔다. 한것은 판리위원회에서도 여러번 근삼이네가 그 집을 쓰고 살라고 했으나 그들은 한사코 옷방살이를 그만두려고 하지 않았던것이다. 물론 초금이같은 녀자는 그들이 앞으로 읍에 되돌아가려고 그런다는 짐작소리를 내돌렸지만…

오히려 근삼은 안해를 시켜 부엌세간도 자주 씻고 먼지가 앉을세라 닦게 했으며 어머니가 기르던 집짐승들도 다 말아 키웠다. 제대되어올 성춘을 생각해서였다. 지난해 가을, 성춘이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오래뜰에 집짐승들이 육실거리고 집안팎이 어찌나 온기가 풍기는지 마치 어머니가 잠시 어데 사과밭에라도 나간듯싶어 눈물이 글썽해지곤 했다.

근삼의 내외는 성춘이 어느 정도 마음이 안착되자 그를 장가보내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성춘은 모든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아예 처녀들을 거들떠보려고도 안했다. 성춘은 점점 말수가 적어지고 우울해졌다. 무슨 고민이 있는게 분명하였다. 그러던 올해 정초, 성춘의 작업복을 빨던 정임이가 한장의 사진을 들고 근삼을 찾았다. 동그스름한 얼굴에 목이 상큼하고 약간 오목할사한 까만 눈의 처녀사진이었다. 그날 저녁 근삼은 기계화반에서 퇴근해온 성춘을 불러앉혔다.

《이 처녀가 누군가?》

성춘은 나직이 한숨을 쉬더니 할수 없는듯 가슴속 비밀을 터놓기 시작하였다.

《그 처녀의 이름은 영금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프락토르운전수였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 어느날 밤 모내기선행작업으로 논써레를 치던 그의 아버지는 뜻하지 않은 사고로 잘못되었습니다. 앓는 몸에 닷새째 한 한번 불이지 않고 일하다가 그만… 영금이 아버지의 최후는 그때 농사일을 도우러 그 농장에 나와있던 우리 병사들의 가슴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때 모내기는 단순한 영농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지키기 위한 결사의 전투였습니다.》

…그날 밤 뜻밖에 논란가운데 숨죽이고 서있던 프락토르가 요란스럽게 발동을 울렸다. 근삼에 들었던 사람들이 영문을 몰라하며 논머리로 달려나왔다. 운전대를 역세게 틀어쥐고 물써레를 놓고있는 애젊은 병사-그는 바로 성춘이었다. 중학시절, 미래의 농촌기계화초병을 꿈꾸며 자동차 프락토르소조에서 열심히 운전법을 익혔던 성춘의 진지한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성춘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몇해후 어느날 영금이한테 뜻밖에도 불상사가 생겼다. 건군절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영금은 마을처녀들과 함께 일을 끝내고 송아봉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다. 맛좋은 여러가지 산나물들을 뜯어 중대군인들에게 보내주려는것이였다. 고비, 참나무, 더덕... 영금은 바구니가 차는 재미에 어두워지는줄 모르고 자꾸만 골안으로 깊이 들어갔다. 어데선가 저녁어스름속에서 자기를 찾는 동무들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그는 어두워진것을 깨달았다, 그는 황황히 산비탈을 내리다 그만 벼랑에서 굴러떨어졌다. 그리 높은 벼랑은 아니였으나 섬약한 처녀의 몸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엔 충분한 높이였다. 영금은 일년 가까이 병석에 누워있었다. 온 중대가 원군의 아름다운 마음을 안고 늘 애써오던 영금을 위하여 원심을 썼다. 정성이면 돌우에도 꽃을 피운다고 드디어 영금은 기적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그에게 사회보장 수속을 권고했다. 앞날에 대한 남모르는 고민... 영금에게는 어두운 나날이 시작되였다. 그무렵에 성춘이가 제대명령을 받았다.

성춘의 고민도 영금이 못지 않게 컸다. 그는 차마 영금을 두고 고향으로 떠나갈수 없었다. 성춘의 불같은 사랑의 고백은 팽담하게 거절당했다. 성춘은 제대된 다른 동무들이 떠나간 다음에도 보름 가까이 머물면서 억지로라도 영금을 데리고 가려고 애를 태웠다. 그러나 이미 모진 마음을 먹은 영금을 어쩔수 없었다....

그날 밤, 근삼의 내외는 영금을 데려오기 위한 토론으로 밤을 새웠다. 근삼은 다음날 즉시 장문의 편지를 썼다. 회답이 없었다. 두번, 세번...그래도 회답이 없었다. 다섯번째 편지를 날린지 열흘만에 짙막한 전보가 날아왔다.

《영금이 없음. 자강도로 이사감...》

근삼은 물론 그 전보내용이 가짜라는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근삼은 영금이한테 갔다오기로 결심하였다 리당에서도 적극 지지해주었다.

근삼은 먼길을 달려 강원땅에 들어섰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의 발자취가 여러
있는 철령의 굽이굽이를 근삼은 숨연한 감정에
휩싸여 걸어넘었다. 철령!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으로 높이 솟아 빛나는 령마루여!

가슴저미는 눈물 없이 너를 넘을수 없구나. ...
...리당에 들러 영금의 일을 대충 료해한 근삼
은 영금이네 집을 찾았다. 영금은 농장의 부대로
력으로 마당에서 뜰나래를 엮고있었다. 근삼을
만나자 그는 죄를 지은 사람처럼 몸들바를 몰라
했다.

《에그 어찌겠수. 옛날부터 자식은 길을 낳지
마음은 못낳는 법이라고 했수다. 나도 이젠 속이
타서 가슴에 채터만 수복이 앉았다오...》

영금의 어머니는 옷고름으로 눈굽을 찍으며 하
소연을 했다. 그도 처음에는 성춘의 앞날을 생각
하여 딸의 립장을 지지하다 근삼이네가 하도 적
극적으로 나오니 감동이 되었던것이다. 게다가
영금이 집에 가버온 일들을 하게 되자 성춘
이한테 보낼수 있다는 자신도 들었다. 근삼은 이
틀밤을 영금이네 집에서 보내면서 처녀의 마음을
둘러세우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인차 퇴거수속
까지 해가지고 오겠다던 영금이는 한달이 지나도
종무소식이였다. 처녀의 생각이 또 달라졌다고
생각한 근삼은 잠못이루며 병어리 뺑가슴 앓듯
했다.

당황해난것은 정임이였다.
성춘보다 오히려 남편이 심화병에 걸릴것 같
아 더럭 겁이 났다. 닻새전, 이번에는 정임이가
영금이한 테로 떠나갔다. 그런데 뜻밖에도 어제
정임이에게서 전보가 왔다. 오늘 영금리와 함께
역에 도착하니 마중 나오길 바란다는 내용이였다.
그리하여 새벽에 성춘이가 읍으로 나갔던것이다.
...

피곤에 몰려 깜빡 잠들었던 근삼은 밖에서 나
는 아이들의 말소리에 눈을 떴다. 문을 여니 마
울의 조무래기들이 토방아래에 울망줄망 모여서
있었다. 유치원생인 일학의 아들 역철이가 비위
중계 토방우에 기어오르며 《텔레비 좀 보자요.》
하고 소리친다. 순택이네 쌍둥이 금주와 진주는
서로 손목을 잡은채 두눈이 울롱해서 근삼의 눈
치를 본다. 그밖에 강득준의 외동딸 수련이, 산
림감독원 창식아바이의 외손자며 몇몇 어린이들
이 근삼을 기대어린 눈길로 바라보았다. 집집에
텔레비존은 다 있으나 휴식일때면 아이들은 근삼
이네 집에 모여 텔레비존을 보는 재미를 더 즐기
였다. 아무 장난이나 마음대로 할수 있고 또 화
면에 나오는 모든것에 대한 근삼의 구수한 설명
을 더 좋아했던것이다. 아이들을 보자 근삼은 피
곤이 봄눈처럼 사라지는것을 느꼈다.

《어서들 들어오너라...》 하며 근삼은 방문을 활
짝 열어제끼고 빙그레 웃었다. 아이들이 들어와
지리들을 잡자 근삼은 순서를 적어둔 목록을 찾
아들었다. 이런 날이면 방영순서를 적어두는 습
관이 이젠 몸에 밴것이였다.

《음 그렇지 아동방송시간이 멀지 않았구나.》
순서엔 아이들이 더 민감하였다. 역철이가 《아

저씨, 다람이와 고슴도치 20부!》 하고 신이 나
서 웨쳤다. 그런데 스위치를 넣었으나 화면이 전
개되지 않는다. 아이들은 초조한 눈길로 근삼을
바라본다.

《허참, 이거 중계를 안하는구나... 어쩐다?》
근삼이도 자못 초조해졌다. 그때 불쑥 수련이
가 입술을 삐죽거리며 산림감독원의 외손자에게
말했다.

《다 너의 외삼촌탓이야...》
외삼촌이란 중계소에서 일하는 산림감독원의
막내 아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애들아 다투지 말고 잠깐 기다려라.》 근삼은
이러며 밖으로 나갔다. 마침 앞집 창식아바이가
뒤울안에서 울바자를 손질하고있었다.

《아버님, 철진이가 오늘 중계소에 나갔겠지
요?》

《무슨 일이 있는지 어제 밤에도 안들어왔네.》
근삼은 중계소가 있는 연대봉을 바라보았다.
중간지대에선 그만하면 대단히 높은 산봉우리
이다. 백운산줄기의 마지막주봉인 호암산이 텔레
비존전과통로를 차단해서 그보다 높은 연대봉우
에 중계탑을 세웠던것이다.

근삼은 한동안 중계탑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중계소에 무슨 일이 생긴게 분명하였다. 방안에
다시 들어가자니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동자들
을 보기가 민망하였다.

시간을 타산해보니 아동영화 시작전까지는 연
대봉에 오를것 같았다. 그는 원래 소년시절부터
등산을 좋아하였다. 그 시절 그는 탐험기들과 등
산기들을 읽으며 얼마나 흥분했던지 모른다. 이
름난 등산가가 되어 우리 나라의 크고 작은 명산
들을 다 정복하고싶던 소년시절의 꿈!

지금도 높은 산만 보면 가슴이 울렁거리는 그
다.

근삼은 이윽고 연대봉벼랑길을 뚫아오르기 시
작했다. 한절반 오르니 숨이 차고 땀이 비오듯
했다. 발밑에선 자주 돌맹이들이 와르르 굴러내
리며 가슴을 섬찍하게 만든다. 단숨에 정점까지
치달아오르려던 근삼은 얼마후 참나무가지들 휘
여잡으며 잠시 숨을 돌리려고 멈춰섰다. 이전에
올라본 험준산악들이 눈앞에 떠오른다. 그 고지
들에 비하면 한낱 자그마한 봉우리에 불과한 연
대봉이였다. 그는 자신이 늙었다는것을 도저히
인정할수 없다는듯 다시 입술을 깨물며 벼랑길을
뚫아올랐다.

드디어 연대봉 정점에 근삼은 올라섰다. 아담
하게 울바자를 둘러친 자그마한 빨간 기와집과
하늘높이 솟은 중계탑을 보았을 때 그는 현훈증
으로 비칠거렸다. 여직껏 뚫아오른 수백길 벼랑
아래로 다시 굴러떨어질듯 하늘땅이 한바퀴 빙그
르 돌았다.

이윽고 정신을 가다듬은 근삼은 대문을 열어젖
히며 성급히 마당에 들어섰다, 아동영화가 방영
될 시간이 다 되었던것이다. 나들문 손잡이를 휘
려던 근삼은 《성원의 들어오지 말것!》 이라는
패쪽을 보고 주춤 뒤로 물러섰다. 엄격한 규정의
목소리다. 방안에서 밖의 인기척을 느꼈는지 문

이 열렸다. 초단과중계기주위에 부속품들이 널려 있는것이 보였다. 땀에 화락하니 젖은 근삼을 보자 젊은이는 눈이 휘둥그레서 물었다.

《아니, 웬일입니까?...》

《왜 중계를 안하오? 고장이 났소?...》

《정비를 좀 하느라고 ... 이제 곧 전원스위치를 넣겠습니다.》

청년은 병긋 웃어보이더니 다시 방안으로 들어갔다. 얼마후 우—웅 하는 기계소리가 나더니 방안의 텔레비전에서 콩북듯 하는 총성이 터져나왔다. 벌써 《다람이와 고슴도치》가 시작된 모양이다. 근삼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대문밖으로 걸어 나왔다. 춘분을 가까이한 3월의 태양이 어느덧 서편 하늘에 기울어진다. 훈훈한 봄바람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스쳐간다. 금진강은 한오리 푸른 덩이를 풀어놓은것 같고 기슭에 자리잡은 일곱채의 기와집들은 장난감처럼 내려다보인다.

《일곱집마을!》하고 리근삼은 조용히 정다운 마을이름을 불러보았다.

이윽도록 정겨운 마음으로 마을을 내려다보던 근삼의 머리속에는 영금의 생각이 편뜻 떠올랐다.

(영금아, 빨리 오너라. 너 역시 우리 일곱집마을이 마음에 들게다.)

그날 밤 근삼은 꿈속에서 손풍금을 메고 금진강 여울목을 건너오는 영금이를 보았다. 아닌게 아니라 새벽녘에 그의 집 대문가에 화물자동차 한대가 경적을 울리며 멈춰섰다. 온 마을이 새벽잠에서 깨어났다. 정임의 일행이 도착한것이다. 운전칸에서 영금을 부축해내리는 정임의 얼굴은 기쁨과 희열에 넘쳐있었다. 기차로 온다는것이 마침 함흥쪽에 발전소설비들을 실으러 오는 자동차가 있어 차편으로 왔던것이다. 적재함우에는 이불장, 식장을 비롯한 세간등속이 한가득 실려있었다. 짐을 다 부리운 후에도 성춘은 적재함에서 내려오지 못했다. 누구도 새벽어스름속에서 그가 울고있다는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며칠후 마을사람들의 축복속에 성춘이와 영금의 소박한 결혼식이 있었다.

3

군당선전부에서 조직한 선동원강습에 참가했던 리근삼은 땅거미가 깃드는 저녁무렵에야 마을에도착하였다. 남편의 집을 받아주던 정임이가 《아유, 무슨 집이 이렇게 무거워요?》 하며 혀를 찼다. 근삼은 땅에 푹 젖어있었다.

《다른 작업반 선동원들은 다 어제 돌아왔는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낫가락들을 좀 버려오느라 내 있던 공장에 들렸댔소, 인차 풀베기를 해야 할게 아니요.》

근삼은 꾸레미에서 아직도 단내가 풍기고있는듯 한 낫들을 꺼내놓았다. 분조원들에게 한개씩 나눠주자는것이였다.

《에그, 고생을 사서 한다더니. 낫이야 여기 수

리분조에서도 버리는건데, 그 먼 길에 ...》

근삼은 마당에 나가 찬물을 끼얹고 들어오더니 입을 열었다.

《풀을 많이 베자면 낫이 좋아야 하오. 여기서 낫을 잘하지 못해 쇠가 무르거든. 올여름에 세대당 풀을 한 백톤쯤 베야했는데 당신도 단단히 잡도리를 해야겠소...》

《아이구머니나, 세대당 스무톤도 베기 힘들어 하는데 백톤이 뭐 아이들 장난인줄 아세요?》

밥상을 챙기던 정임은 두눈을 크게 뜨며 남편을 쳐다본다. 근삼은 오이랭국부터 한사발 쪽 들이키고나서 빙그레 웃음을 짓는다.

《신성리 녀성농촌선동원은 해마다 수백여톤의 풀을 베군 했대던데 거기 대면 백톤이야 아이들이 장난이지 뭐요. 그러잖아도 우리 한번 신성리에 갔다옵시다. 저기 흑돌령만 넘으면 금야땅이요. 풀베기경험도 배우고 산천구경도 하구, 어떻소?》

《당신두 참, 그 농촌선동원이 풀을 많이 베여 이름을 내던 때가 언제적 일인가요. 이젠 10년도 지났는데... 그도 이젠 어머니가 됐겠지요.》

정임은 남편의 순진한 마음이 늘 우습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다.

《하긴 그는 90년대 농촌선동원이였지. 정말 땅을 갈구기 위해 일을 많이 한 선동원이였소.》

농촌선동원이란 곧 앞장서 일하는 사람이요. 그것도 남보다 더 많이... 현대 난 멀었소.》

밥상을 물리고나서 근삼은 가방을 열었다.

새로 나온 도서 《백두산의 아들》이며 《새 품종사과나무》, 장편소설이며 노래책들이 나왔다. 기술도서는 순택에게, 노래책은 영금에게 주르고 책방에서 샀던것이다.

《현대 저 아래집이 왜 이렇게 조용하오?》

《성춘인 어제 밤부터 밤작업을 한대요. 그리고 영금인 오늘 김매기를 하더니 몹시 지쳤나봐요.》

《너무 무리하지 말아야겠는데 ... 참 그새 마을에 앓는 사람은 없었소?》

《아유. 당신은 정말 몇달 집을 떠났던 사람같은요. 사흘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겠대구...》

《허허. 일이야 한순간에 생기는 법이지.》

정임은 남편의 성미를 잘 안다. 분조원들은 물론 아이들이 앓아도 마음을 진정 못하는 그였다. 공장에 있을 때도 그랬는데 농촌에 오니 그 성미는 더 했다.

《하긴 낮에 수련이가 풋사과를 먹고 배를 안고 돌아갔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신문을 펴들던 근삼의 두눈이 휘둥그레진다.

《저런, 체기를 받았구만...》

근삼은 신문을 내려놓더니 움쭉 몸을 일으켰다.

《내 잠깐 나갔다고겠소...》

시원한 강바람이 불어오는 여름밤이였다. 강기슭엔 점점이 불빛이 널렸는데 아마 밤낚시꾼들이

나와 앉은 모양이다. 조금은 딸애의 머리맡에 앉아 끄덕끄덕 졸다가 근삼의 기침소리에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다기가 많은 조금은 근삼이가 한마디 위로의 말을 하자 벌써부터 눈물을 찔끔거린다. 수련의 이마를 짚어 보니 열은 얼마 없다. 우선 마음이 놓인다.

《그런데 주인은 어데 갔습니까?》

《어제 아침 또 홍덕에 갔어요. 이번엔 관리위원회에서 비료때문에 출장을 보냈나봐요.》

조금은 나직이 한숨을 쉰다. 아이걱정, 외지에 나간 남편걱정이 해말썽한 그 녀자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진다. 조금은 옷방에 올라가더니 당과류를 담아두는 그릇을 들고 내려왔다.

《먼 길을 오셨겠는데 …》

(말이 험하게 결합이지 녀성다운데는 있거든) …

얼마후 근삼은 분조장을 만나려고 자리를 떴다. 일학은 마침 마당에 나와 밤바람을 쏘이고있었다.

《언제 돌아왔습니까?》

《저녁무렵에…그새 약뿌리기를 하느라 수고 많았겠소. 내 자꾸 분조를 떠나서 미안하오.》

《아바이야 어디 개인 일로 다니는가요. 중요한 정치사업을 하는데. 하하…》

두사람은 널마루에 걸터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근삼은 파수시험장의 선동원 장동무를 만났던 이야기를 끄집어냈다.

《내 이번에 장동무라는 어릴적 친구를 만났었는데 귀가 번쩍 트이는 말을 들었소.》

우리 농업과학자들이 새 품종 사과나무를 육종해냈는데 심지어 1~2년이면 사과를 팔수 있단누만. 우리 분조에서도 심어보지 않겠소?》

그 사과나무야말로 근삼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적인것이였다. 근삼은 몹시 흥분했으나 뜻밖에 일학은 별로 흥미가 없어하는 태도를 취했다.

《아직 구체적인 파악도 없는데다가 우리 농장기후풍토에 맞겠는지도 잘 모르는데 … 좀 더 두고봅시다.》

근삼은 깜짝 놀라 한동안 얼없이 그를 지켜보았다. 아니 이럴수가 있는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반응이였다. 자기는 그래도 일학이가 자기처럼 흥분하리라 생각하며 50리길을 단숨에 달려오지 않았는가.

《분조장동무, 당에선 지금 새세기의 요구에 맞게 모든 문제를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높이에서 풀어나갈것을 요구하고있소. 사과밭의 원상복구가 아니라 대담하게 늙고 병든 나무들을 들어내고 새 품종의 사과나무들을 심읍시다.…》

《선동원아바이—》

일학은 놀란듯 엉겨주춤 일어서며 목청을 높였다. 그의 숨소리는 퍼그나 거칠어졌다.

《그건 안됩니다. 아바이가 도대체 우리 사과밭

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기나 하구 그럼니까?》

울분의 감정이 일학의 목소리에서 울렸다. 근삼은 일순 입을 다물어버렸다.

일학은 근삼이 말이 없자 퍼그나 누그러진 어조로 다시 말을 이었다.

《내가 어렸을 때의 일이였지요. 나는 장난이 켜 세췄는데 하루는 울사파가 먹고싶어 유치원을 뜰까먹구 강건너 외가집에 찾아갔습니다. 외삼촌이 일하는 과수밭에서 사과를 따먹으며 놀던 나는 어두워서야 집생각이 났지요.》

그런데 강가에 오니 여울목을 건널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만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나의 등뒤에서 발자국소리가 울렸지요.》

강가의 자갈을 밟는 소리가 가까와오더니 키가 큰 사람이 그의 손목을 잡으며 물었다.

《야야, 넌 어데로 가는데 여기서 울고있니?》

사연을 듣고난 그 사람은 《음, 사과가 먹고싶어 그랬단 말이지. … 자 나와 함께 가자. 어서 내 잔등에 업혀라.…》하고 말했다. 일학은 그 사람의 잔등에 업혀 강을 건느며 물었다.

《아저씨 누구나요?》

《나 말이나? 허허, 뭐라고 할가 … 당분간 여기 농장에 일하러 온 사람이다.》

마을어구에서 일학이와 헤어지면서 그는 다정하게 말했다.

《좀 기다려라. 이제 너의 마을에도 사과나무들을 심자. 사과를 실컷 먹게 말이다.》

한달후 그밤의 고마운 아저씨가 대학생들을 데리고 일학이네 마을에 나타났다. 그는 일학을 알아보고 《오 꼬마친구! 잘있었냐? 자 약속대로 사과밭을 만들려고 왔다.》 하고 말했다.

대학생들은 측량기와 표척대를 메고있었다.

그 아저씨가 대학생들에게 유쾌한 어조로 말했다.

《동무들, 이 <꼬마친구> 도 데리고 다닙시다. 앞날의 과수밭 주인을 말이요.》

그날 일학은 오전내껏 아저씨들을 따라 강기슭의 하천부지를 오르내리며 측량사업에 참가했고 점심시간에는 그들이 조직한 천렵놀이에도 참가하였다. 금진강의 버들치며 모래무치를 잡는데는 일학이가 오히려 그들보다 솜씨가 있었다.

《그들은 우리 농장에 온 첫 3대혁명소조원들이였고 나를 업어 강을 건네준 아저씨는 군인민위원회에서 일하다 소조책임자로 파견되여온 리수봉동지였지요! 그후 어느해인가 금진강이 범람하여 큰물이 들이닥쳤을 때 과수원을 구원하기 위한 전투에서 그만 희생 되었지요. 그 소탈하고 인정미가 넘치던 그의 모습은 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나의 가슴속에 생생히 간직되어있습니다.》

일학의 추억담을 감동속에 듣고있던 근삼은 힘껏 놀라며 그의 말허리를 꺾었다.

《가만, 방금 거 누구라고 말했소?》

《리수봉동지지요. 근데 왜 그렇게 놀랍니까?》
《아니 그저 줌, 나도 어데선가 듣던 이름같아서...》

《그럼요. 우리 군사사람들치구 누가 그의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그가 강연을 할 때면 아무리 낮에 힘든일을 했어도 햇눈을 파는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생활에 발을 푹 잠근 그의 구수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순간에 울리기도 하구 웃기기도 했다고 우리 어머니 자주 말씀합니다. 살았으면 지금쯤 70 나이가 되었겠는데...》

근삼은 고개를 숙이며 입술을 깨물었다. 불시에 두 눈썹이 뜨거운것에 젖어들었다. 리수봉은 그의 아버지였던것이다. 근삼은 아버지가 군인민위원회 농업부서에서 일하다가 자기가 군대에 입대한 후 어느 농장 3대혁명소조책임자로 파견되어 일하다가 잘못되었다는것은 알고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여기 농장일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그해 늦가을 온 농장이 떨쳐나 여기 하천부지를 개간하고 파수밭을 만들었습니다. 리수봉동지는 사과나무를 심으면서 나에게 말했지요.

《일확아, 사과나무를 잘 가꾸어 당에 기쁨을 드리며 과원에서 오래 살거라!...》 그런데 난 이 사과밭을 그의 뜻대로 잘 가꾸지 못했습니다. 리수봉동지를 생각하면 얼굴이 붉어집니다.》

두사람은 한동안 자기 나름의 추억에 잠겨 말이 없었다.

《이 사과밭에 그런 사연이 있는줄은 내 미처 몰랐구만...》

근삼은 불쑥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앉아있다면 그에게 《리수봉은 나의 아버지요.》 하고 말할것만 같았다. 그는 달아오른 머리를 식히려고 집이 아니라 강가로 걸어들었다.

(선대가 해놓은 사업을 지켜주려는 일확의 의리심은 좋은것이다. 그러나 그는 왜 후대의 의리심이란 선대의 사업을 반복하는데 있는게 아니라 더 훌륭하게 창조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데 있다는걸 모르고있는가?...)

뜻밖의 충격으로 그는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일확이가 상기시킨 아버지의 모습이 자꾸 눈앞에 일른거린다.

어느해인가 군복을 입고 휴가차로 집에 왔을 때 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모습이었다.

그날 아침도 아버지는 출근을 서두르면서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군사복무란 인생의 돌도 없는 <혁명대학> 과정 이란걸 명심해라. 참된 인간이 되는가, 버력이 되는 가는 군사복무를 성실하게 하는가, 못하는가 하는데서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난 네가 어떤 난관도 다 이겨내며 전우들의 사랑을 받는 훌륭한 군인이 되리라 믿는다. 의지박약한 사람만이 난관앞에서 우는거다. 우리 생활은 언제나 끝

은길만 있는것이 아니다.

난 난관앞에서 용감성의 원천을 찾아내는 그런 의지 강한 인간이 되기 위해 자기 단련을 한시도 게을리해선 안된다...》

아버지와 아들은 역전공원앞에서 마지막으로 서로 마주 보았다.

《넌 어른이 다 됐구나! 잘 가거라.》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그의 어깨를 힘껏 그리안았다. 그후 근삼이가 중대정치지도원으로 성장했을 때 아버지는 짙막한 축하전보를 보내왔다.

《인민군대의 훌륭한 정치일군이 되기를 바란다!》

(아버지! 생활은 나를 아버지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이 금진강기슭에 세워놓았습니다...)

근삼은 심장이 빠근해지는것을 느끼며 오래도록 강기슭에 앉아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맞은켄 기슭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사람이 초롱불을 앞세우고 강을 건너왔다. 순택이었다.

그는 곧바로 근삼이가 앉아있는 곳으로 걸어들었다. 달빛에 비낀 근삼의 모습을 띄여보았던것이다.

《아바이가 맞았군요. 밤공기가 찬데 왜 여기 나왔습니까?》

《그저 잠이 오지 않아 소풍을 나왔네. 그래 많이 잤나?》

근삼은 고기다래끼를 들여다보며 물었다.

《래일 애들이 유치원에서 들놀이를 간다기에 반찬 감이나 해주려구...》

팔레들을 끔찍이도 사랑하는 순택이다. 그는 물비린내를 풍기며 근삼의 곁에 쭈그리고 앉았다.

《무슨 걱정거리가 생긴게 아니우?》

눈치빠른 순택이다. 그러자 불시에 근삼은 이대바른 젊은 친구와 시원히 속을 터놓고싶었다,

근삼의 말을 다 듣고난 순택은 흥분하여 근삼의 손을 덥석 잡았다.

《나도 힘껏 돕겠으니 한번 잘 해봅시다. 좀 품을 들이면 파수밭을 만들 땅은 아직 많수다. 저 파수밭 북쪽 머리의 자갈밭을 봤지요? 그게 한 10년전만 해도 축산반의 사료밭이었는데 어느해 여름 큰물에 그만 자갈밭이 됐지요. 나는 언젠가 거기를 일구어 <시험포전>을 만들 생각도 했습니다.우리 두집. 아니 성촌이 네까지 동원되면 벌써 분조의 절반력량인데 무서울게 없수다. 거기에 우리 군대식으로 새 작전구역을 전개해 봅시다.》

《순택이! 고맙네. ...》

근삼은 감동하여 엉겨주춤 일어서며 순택의 손목을 틀어잡았다. 얼마나 좋은 친구인가!

근삼의 마음은 훨훨 날아갈듯싶었다.

(그래, 시작이 절반이라구 더 미룰것없이 래일 리당과 관리위원회와 토의를 하고 당장 돌추기를

시작해야지. 아침과 점심시간...달밤이면 더 좋구...)

4

근삼은 지금 일확이가 《1호초소》라고 이름 지은 온돌막에 누워있다. 온돌막에 달빛이 홍수처럼 흘러든다. 달빛은 근삼이가 한달전에 만들어 걸어놓은 풀거름성분을 분석한 걸그림이며 풀베기경쟁도표, 《모두다 풀 베기전투에로!》라는 구호판을 대낮처럼 밝히고있다.

본격적인 과일수확에 들어가자 이젠 풀베기열기도 한풀 식었다. 이때쯤이면 일확은 과일익는 향기에 못이겨 이따금 산을 내리곤 하는 산짐승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과수밭에 여러개의 초소막을 세워놓곤 한다. 제대군인출신인 그는 경비막들에 《1호초소》, 《2호초소》등의 이름을 붙이고 분조원들도 그렇게 부르길 요구하여 녀인들을 웃기기도 했다.

이해도 벌써 9월에 접어들어 밤이면 찬이슬이 내리고 벌레들의 울음소리도 퍼그나 여물었다. 근삼은 일에 파묻혀 살다보니 잡병도 다 털어버린듯싶었다. 풀베기, 새땅개간, 선동원회의와 해설담화... 온돌막앞에서 새길질하는 얼룩소의 숨소리와 사과가 떨어지는 가벼운 소리, 저 산아래 여울물소리가 고요히 깊어가는 밤대기를 흔들고 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간 근삼은 길옆에서 만문한 바랭이를 한단 베어 얼룩소에게 주었다. 풀을 넘적 받아무는 소의 뜨거운 입김이 얼굴에 화끈 안겨온다. 후더운 입김이다. 근삼은 호주머니를 뒤져 낮에 길가에서 주었던 강냉이알들을 손바닥에 놓아주었다. 말큰말큰한 허바닥이 따뜻한 감촉을 주며 그의 장알진 손바닥을 핏는다. 그 감촉이 주는 신비로운 느낌이 그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하며 로동과 삶의 의욕을 불려일으킨다. 근삼이와 함께 꼬박 두달동안 돌밭, 가시 밭길을 무른 메주 밟듯 쪼다닌 얼룩소다. 근삼은 정임이와 함께 수십톤의 풀을 베었다. 그 많은 풀을 운반 하느라 소도 실짊이 없었다. ...

어데선가 두런두런 사람들의 말소리가 울려온다. 순택이가 있는 《2호초소》 쪽이다. 근삼은 천천히 사과밭을 께질러 그쪽으로 걸어갔다. 초소막앞의 돌담우에 두사람이 앉아있다. 순택이와 강득준이다. 득준은 강 웃쪽 기슭 《3호초소》에 있다가 아마 순택이한테 《마실》을 온 모양이다.

《강동무, 이젠 장마도 지나갔겠지?》

그러자 강득준이 길게 하품을 하며 《<공개날>은 아직 앞에 있네.》 하고 말했다.

《그까짓 무슨 말라빠진 놈의 <공개날> 인가?다 옛날 소리지 ...》

<공개날>이란 어느 옛날 금진강 하류지방에서 살던 공씨마을이 몽땅 홍수에 바다로 떠내려간 참사가 있었는데 항간에서 그날을 그렇게 불러온

것이다.

《큰물이 지나갔다고 누구도 장담 못하네. 동무처럼 아무데서나 나무를 베여내면 산이 번대수리가 되어 큰비에 못견디네. 그래서 옛날부터 <수재>는 <인재>라고 일러왔네.》

《허허, 그러니 나때문에 <큰물>이 난다는 말이구만...》

《말하자면 그렇다는 소릴세. ...》

《헛참 이거 떡갈나무 두어대때문에 이젠<큰물>까지 책임져야겠군. ... 그건 그렇다치구, 듣자니 강동문 자재사업에 필요하다면서 작업반에 사과를 요구했는데 그게 정말 자재때문이지?자재야 국가계획분을 받아오면 되는데 아닌가...》

강득준은 정통을 찢어왔는지 몸을 흠뻑하더니 중얼거렸다.

《계획분이라도 누가 먼저 받아오는가 하는게 중요하지. 그리고 사과말이 나왔으니 말 좀 하세. 작업반 생산물을 현금처리를 하구 조금 소비하기로 했는데 무슨 시비질들인지. 글썄 공짜로 가지는것이라면 몰라도...》

《흥, 다 동무처럼 생각하면 작업반이 뭐가 되겠소?농민이 수확물을 놓고 판 공냥을 하면 그건 벌써 농민의 본분을 잊었다는 증거일세. 그래서 누구도 사과더미를 넘보지 않는걸세. 량심때문이지 ...》

강득준은 무릎을 몇번 두드리더니 말머리들 돌린다.

《내 욕감은 어쩔수 없네. 큰비가 몰려오고있네.》

강득준은 흐려오는 하늘을 쳐다보며 돌담우에서 일어섰다.

《왜, 벌써 가려나?》

《어디 동무하구야 말할 재미가 있어야지. 그저 사나운 수탉처럼 접어만 드니 ...》

《하하 ...》

순택이가 웃는다.

《잠간 눈을 좀 붙여야겠어. 래일 새벽 일찌기 관리위원회로 올라오라는 지시가 왔네.》

근삼이도 발길을 돌렸다. 아무리 생각해도 강득준을 편제없이 자재사업에 동원하는 관리부위원장의 처사가 옳은것 같지 않았다. 근삼은 이 문제를 리당에 반영하여 해결할 생각을 했다.

행길로 트랙포르가 달려오고있었다. 트랙포르는 속도를 늦추더니 근삼이네 개간지로 들어선다. 발갈이를 하려는것이다. 그새 세집식구의 피타는 노력으로 돌추기는 끝났다. 이제 사과수확만 끝나면 본격적으로 새 품종 사과나무를 심을작정이다. 근삼은 다급히 개간지로 걸어갔다.

그는 달빛에 번쩍이는 보습날이며 그밑에서 검은스레한 흙이 물결치듯 뒤번쳐지는것을 기쁨속에 바라보았다. 저쪽 말머리까지 나갔던 트랙포르가 다시 돌아서더니 근삼이쪽으로 굴러온다. 문득

프락포르가 멈춰서더니 영금이가 보자기를 들고 온전칸에서 사뿐히 뛰어내린다.

(원, 저런 밤샘을 하려구 함께 나왔구나!)

감동으로 근삼의 두눈에 웃음이 실린다. 나날이 건강해지며 생활에 몸을 잠그는 영금을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다.

(허, 이제 떡돌같은 아들이나 하나 낳았으면...》 근삼은 이렇게 뇌이며 저도 모르게 병긋 웃어버렸다. 사람의 소원이란 끝이 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를 데려오지 못해 속을 태우던 때가 언제인데 이젠 건강을 회복하니 이 번엔 아들을 바라게 된것이다. 소원은 번마다 다 이룩되는것은 아니나 어쨌든 사람을 인생의 마지막까지 동무해 주는게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한가지, 한가지 소원을 이룩해가는 재미에 인생길은 즐거운것이 아닌가...

《아저씨, 밤참을 하세요.》

영금은 근삼이한테로 다가오더니 꽃보자기로 싸 꾸레미를 내민다.

《이따 성춘이와 함께 하오. ... 나야 뭘...》

《달빛이 좋아 따라 나왔어요. 전 어렸을 때 아버지의 프락포르를 따라다니길 무척 즐겼했어요. 밤작업을 할 때면 밤잠도 내가고 달리는 프락포르에서 노래도 불러드리구...》

(그야말로 성춘이와 천상배필이다. 그래, 다시 그 생활을 찾아라. 마음껏 노래를 불러라. 너희들의 희망과 너희들의 사랑을!...)

영금이네와 헤어져 초소막으로 돌아오며 근삼은 일확을 생각했다. 새 품종 사과나무 재배지 개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자 갑자기 말이 없어진 일확이다. 어느 날인가 휴식시간에 외파로 떨어져 새 품종 사과나무에 대한 기술도서를 읽는 그를 보았었다. 그도 어지간히 관심을 가지는 모양이다.그러나 선뜻 자기의 생각을 내비치진 않는다. 대신 하루작업조직을 할 때 개간작업에 여념이 없는 근삼이나 순택에게 쉬운 일감을 맡기려고 원심을 쓴다는것이 알려졌다. 《1호초소》로 돌아온 근삼은 깜박잠에 들었다가 자동차발동소리에 벌떡 일어났다. 벌써 날이 밝았다. 마을쪽에서 개들이 짖어대고 사람들의 말소리들이 울려온다. 근삼은 큰 길로 걸어나갔다. 시내에 들어가는 강득준이한테 직관사업에 필요한 색깔들을 부탁하려는것이였다. 자동차는 벌써 행길로 달려오고있었다. 자동차엔 일여덟명의 사람들이 타고있었다. 근삼이가 길가로 채 나가기 전에 자동차는 속도를 높이며 그의 앞을 지나쳤다. 문득 근삼은 자동차 뒤꽂무니에 산뜻한 옷차림을 하고 웅송그리고 앉아있는 초금을 보았다. 그 녀자는 웬일인지 근삼을 보자 고개를 돌려버린다. 늘 해사하던 초금이가 아니다. 그제야 어제 일확이한테 도인민 병원이요, 입원치료요 하며 휴가신청을 하던 일이 떠올랐다. 환절기에 들어서면서 심장병이 도

저 도병원에 가서 며칠 치료를 받아야겠다는것이 다....

강득준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큰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그날은 휴식일이어서 본조원들은 다 쉬고 근삼이와 순택이가 파수발경비를 서고있었다. 근삼은 온돌막에서 《집집승을 많이 길러 질 좋은 거름을 생산하자》라는 제목의 해설담화자료를 만들다가 우뢰소리에 정신이 들었다. 그제사 전날 밤부터 조용히 내리던비가 폭풍우의 전주곡이였음을 깨달았다. 과일나무들은 피로운 예감속에 술렁거리고 번개의 섬광과 천둥소리에 놀란 새들이 휘뿌려진듯 어데론가 날아가버렸다. 산중턱에서는 염소들이 불안스럽게 울었다. 강기슭은 물보라의 희뿌연 장막에 묻히고 강물소리가 드세차게 울려왔다.

근삼은 비옷을 펼치며 황급히 밖으로 나갔다, 금진강은 벌써 시누런 흙탕물에 뒤덮여 거품을 일구며 흘러내리고있었다. 그 순간 근삼은 강기슭에 베여 놓은 풀더미들이 생각났다.

자칫하면 온 여름내 힘들게 베놓은 풀들이 바다로 다 떠내려갈수 있었다. 근삼은 부랴부랴 강기슭으로 달려갔다. 누군가 벌써 풀단들을 높은 둔덕으로 옮기고있었다. 순택이였다.

《순택이, 고맙네!》

강물에 벌써 풀더미들이 떠내려가기 시작했다. 두사람은 연방 풀단을 날라다 쌓고는 다시 강기슭으로 달려가곤 했다. 어떻게 짬짬이 뎌 풀인가. 프락포르나 소로 미쳐 운반 못해 때묵처럼 강물에 띄워 여기까지 날라온 풀단들이다.

근삼은 이따금 강물에 떠내려가는 풀단을 건지느라 사품치는 물속에 뛰어들기도 했다.

그때마다 순택은 《아바이, 정신있어요? 풀 한단이 뭐라구...》 하고 다급하게 소리쳤다. 근삼은 온몸을 덜덜 떨며 속으로 웨쳤다.

(그렇다. 필요하다면 풀 한단과 이 생명을 바꿀수도 있다. 한그루, 한그루 새 품종의 사과나무들을 키워낼 귀중한 거름덩이들이 아닌가!)

그것은 단순한 풀단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농촌선동원의 충성의 땀방울이며 량심이였다. 그때로부터 두시간가까이 근삼이와 순택은 결사의 전투를 벌려 풀단들을 전부 개간지의 발머리로 옮기였다.비는 한대중으로 계속 퍼붓고있었다.

두사람은 비칠거리며 온돌막에 와 쓰러졌다.

《아바이. 이거 정말 큰물이 나지 않을까요?》

《걱정 말게. 금진강언제는 끄떡 없네...》

순택은 찬 온돌바닥에 번듯이 누웠다가 근삼이 쪽으로 돌아누웠다.

《아바이, 전번날 밤 강득준이 큰물이 마치 나 때문에 생기는것처럼 말해서 좀 다투었는데 지금 곰곰히 생각해보니 그의 말이 백번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런 큰물은 자기밖에 모르는 나같은 인간들때문에 생기는겁니다. 저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산의 나무들을 망탕 찍었으니...》

순택의 목소리는 후회와 자책에 젖어있었다.

자신의 자그마한 실수도 뻥뻥하게 들이켜보는

순택을 보며 근삼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것은 곧 한 인간의 정신적성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님을 뜨겁게 깨우쳐주는 말이었다.

《순택이, 우리 이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저 산들에 너도밤나무도 심고 이깎나무도 조성하지요. 그리고 여기 금진강기슭에는 새로운 사과밭이 설레이게 하구...그때면 우리의 금진강은 또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소.》

《웁수다!》하며 순택은 벌떡 몸을 일으켰다.

《내 아직 세상을 다는 모르지만 우리 금진강처럼 아름다운 강은 못봤수다. 난 그래서 딸애들의 이름도 금주, 진주라고 지었습니다.》

(그래, 금진강은 아름다운 강이다. 사랑과 투쟁으로 아름다운 강!...)

근삼의 가슴도 달아올랐다. 금진강기슭에 새삼의 뿌리를 내린 것이 백년 잘한 일이라고 긍지있게 생각했다. 며칠전 선동원강습때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잘 받들어나가자면 분조원들을 선군혁명동지로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던 리당비서의 말이 떠올랐다. 그렇다. 순택이야말로 우리모두의 선군동지가 아닌가!

이때 초소막문이 슬며시 열리더니 뜻밖에도 일학이 나타났다. 그는 문고리를 잡은채 들어올 념을 앓고 근삼이와 순택을 이윽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틀었다.

《작업반에 올라갔다 오느라구 내 좀 늦었습니다.》 하더니 일학은 옆에 끼고 온 비옷을 슬며시 바닥에 놓아주고는 돌아섰다.

《아니. 분조장 이 비에 어디를 가려고 그러나 어서 돌아와 비를 좀 꺾게...》

또한 비발속에 나섰던 일학은 말없이 근삼의 아래우를 살펴보더니 머리를 저었다.

《감기 걸리겠습니다 ... 그저 이 못난 분조장 탓이니 욕이나 많이 해주시오. 오늘 작업반에 제기해서 래일부터 개간지를 더 넓히기로 했으니 그리 아십시오. 그리고...》

일학은 비발속에 우중충해보이는 과원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아무말없이 개간지쪽으로 멀어져갔다. 근삼의 마음은 순간 후터워올랐다.

마냥 즐거워지는 마음으로 일학의 뒤모습을 바라왔다.

《아니. 그럼 분조장도 우리 일을 정식으로 찬성한 다는 말이 아닙니까?》

순택이가 등뒤에서 덩달이 소리친다. 근삼은 순택에게로 돌아서며 눈이 휘둥그레진 그의 머리를 꼭 눌러주었다. 참으로 기쁜 날이었다.

그날 밤 근삼은 고열에 들떠 헛소리까지 치며 꿈꾸 앓았다. 옆친데 덮친다는 격으로 속타이 도쳐서 배를 끌어안고 돌아갔다. 신음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그는 무진 애를 썼다. 아래집에서 깨여날가봐 두려웠다. 그는 혼자였다. 엿그제 정임이는 대학에 다니는 딸애에게 갔다. 진옥이가 가을

철이 다가오기에 갈아 입을 옷가지들을 요구하여 가지고 갔던 것이다.

이튿날 아침에야 근삼은 영금이한테 발견되어 한바탕 소동을 일으켰다. 영금은 해종일 근삼의 결을 뜨지 앓고 그를 간호했다. 정임은 다음날 오후에 함흥에서 돌아왔다. 그때는 이미 열도 내리고 진통도 멎은 때여서 근삼은 자리에서 일어나 앓았다.

《그래 진옥의 일은 어떻게 됐소?》

《가지고 간 옷가지들을 다 전했어요.》

《참, 그리고 도병원엔 갔었소?》

정임이가 떠날 때 근삼은 조금의 일이 걱정되어 병원에도 들러보라고 당부했던 것이다. 정임은 대답을 피하며 나직이 한숨을 쉰다.

《왜 그러오?혹시 병이 더 심한게 아니요?》

정임은 고개를 외로 틀며 분기어린 목소리로 나직이 뇌이었다.

《여보. 당신은 사람을 믿어도 너무 믿어요.》

《아니 그건 또 무슨 말이요?》

《조금인 병원이 아니라 시장에 있더군요.》

《뭘요?—》 근삼은 아연실색하여 뒤말을 잇지 못한다.

《글쎄 낸들 알겠어요.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 조금인 병원에 오지도 앓았더군요...》

근삼은 머리를 싸쥐며 신음소리를 냈다. 그러니 치료를 받으러 도병원에 간다면 말이 거짓이었던 말인가? 아니, 그럴수 없다. ...

《진옥이한테 뭘 좀 사주라고 시장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조금이를 보았어요. 어찌나 당황해하던지 내가 더 바쁘더군요.》

근삼의 귀에는 안해의 말이 더는 돌리지 앓았다. 그러니 강득준이 안해를 데리고나가 장사질을 했던 말인가? 배신에 대한 기막힌 생각이 칼끝처럼 사정없이 가슴을 찌른다. 그 어떤 실수도 모른다는 일학의 《새우그물》에서 새어나가다니 ... 근삼은 가슴이 답답해오는것을 느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분조장동무를 좀 만나야겠소.》

《여보. 조금의 얼굴을 봐서도 좀 참아요.》

《농민의 량심을 파는것을 보고도 참으란 말이요?》

근삼은 저도 모르게 버럭 큰소리를 쳤다. 남편의 성미를 잘 아는 정임은 입을 다물었다.

《아니, 아니요. ... 아니란 말이요.》

뭇이 아닌지 자신도 똑똑히 깨닫지 못하는 말을 곱씹으며 근삼은 방문을 열었다. 그는 밖으로 나가다 말고 털썩 토방우에 주저앉고말았다. 정임이 황황히 달려나와 그를 잡아 일으키었다. 근삼은 머리가 아파서 이튿날에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는 아침에 일하러나가는 정임에게 선동자료를 주면서 오늘계획에 든것이니 설참에 대신 독보하라고 말했다. 정임은 깜짝 놀라 《아

이참, 내가요?》 하고 반문했다.

《당신이 아니면 누구겠소. 남편이 쓰러지면 안해가 또 기발을 추켜들고 나가야지. 당에선 지금 모든 당원들이 선전원, 선동원으로 살며 일할것을 요구하고있소.》

정임은 할수 없는듯 소책자를 품에 넣으며 《알겠어요.》하고 생긱 웃었다. 그 역시 당원이요, 처녀시절에는 선동원이었던것이다.

점심때엔 문돌쩌귀에 불이 나도록 사람들이 문병을 왔다.지어 애들까지 부모들의 뒤에 묻어 그렇게 다정한 우리 선동원아저씨가 어떻게 되였는가 보러 왔다. 강득준이도 뜻밖에 문병을 왔다. 흥덕에서 나오는 길에 들렀다며 고급당과류통을 술그머니 담요안에 밀어넣어주었다.

그러면서 어느때없이 살뜰하게 너스레를 떨었다. 근삼은 속이 부글부글 피어오르는것을 느끼며 (으음, 그러니 입을 다물란 말이군...) 하고 이마살을 찌프렸다.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개울물을 흐려놓는다고 한줄도 못되는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농민들의 깨끗한 량심에 먹칠을 하고 집단의 공기를 오염시키고있다.

강득준은 근삼이 보던 소설책을 뒤적거리며 그의 눈치를 본다. 그 역시 지금 근삼의 생각을 알아맞혀보려고 애를 쓰고있었다. 그는 근삼이가 오래동안 말이 없자 보던 책을 놓으며 던지시 묻는다.

《아바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 하긴 이 강득준의 생각이겠지요. ...》

《맞았네.》

근삼은 눈을 반쯤 뜨며 조용히 뇌이었다.

《그래. 그새 얼마나 별었나?》

근삼은 득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들어냈다. 예뻐졌지 않았다. 그의 눈길이 예리하게 강득준의 가슴을 꿰고 지나갔다. 강득준은 알릴듯말듯 어깨를 떨었다.

《거, 뭐 두루 쓰고 몇키로 안남은 사과인데 생활용품 몇가지가 눈에 띄이길래 사자고보니 ...》

드디어 근삼의 입에서 노성이 터져나왔다.

《아직도 변명인가 동무는 량심을 팔았소. 우리 농민들의 량심을 말이요. 그래 그 량심과 물건 몇가지를 바꾸자고 할 때 심장이 떨리지 않던가 말이요.》

갑자기 강득준의 눈이 쪼프러졌다. 그는 레의 버릇대로 귀구멍을 우비며 (상대방의 말이 마음에 안들 때 하는 버릇이었다.) 입을 열었다.

《거, 뭐 그렇게까지 요란하게 말할거야 있습니까? 생활을 좀 윤곽하게 해보자는건데. 또 그걸 지금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삼은 두눈을 꼭 감았다. 속에서는 날카로우면서도 뜨거운것이 끓고있었다.

《집단을 속이고 장사질을 한것이 잘못된것이 아니란 말이지. 그리고 생활때문이고... 물론 우리는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 하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것이 중요한 문제요. 정직하고 근면한 자기 노력의 대가로 사는가 아니면 사회와 집단의 창조물을 사취하며 사는가 하는데 따라 성격이 달라지오. 그 사과는 단순한 수확물이 아니라 우리 농민들의 땀과 량심이 비낀 결정체란 말이요.》

강득준의 눈시울이 또 쪼프러졌다.

《정말 어마어마한 말은 좀 삼가해주시오. ... 농촌 선동원이 뭐 큰 간부인줄 알지 않아요?》

근삼은 눈을 감으며 주먹을 돌덩이처럼 그러쥐었다.

《뭐, 농촌선동원이 어쨌다구? 난 지금 한명의 농민의 자격으로 말하는거다. 지금은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이 미제와의 대결전에서 사회주의를 지키자고 필사의 각오를 안고 떨쳐나선 때구. 그래서 생활의 일시적인 애로를 뒤로 미루고 나라를 위해 자기를 깡그리 바쳐나가는 때이지. 오직 깨끗한 량심으로 말이야. 그런데 동무는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도 모르고있어.》

《난 그렇게까지 너절해 지진 않았습시다. 두고 보십시오. 나한테도 량심은 있단 말이요...》 강득준은 얼굴빛이 새하얗게 질려 무슨 말인가 더하려다가 문지방을 넘어 밖으로 나갔다.

근삼은 그의 뒤모습을 바라보다가 가슴을 움켜쥐며 신음소리를 내었다.

5

그때로부터 한달후, 그날은 분조가 총동원하여 개간지에 새 품종 사과나무를 심고있었다.

거름을 실어나르는 성춘의 프락프르가 별판을 들썩하게 했다. 일확은 성수가 나서 나무심기를 지휘하였다. 오후에도 나무심기는 계속되었다. 그런데 근삼이와 한조가 되어 사과나무를 심던 조금이가 해가 저무는데도 일하러 나오지 않았다. 일확은 조금에게 눈넌욕을 퍼부었다.

일확은 조금의 장사건을 알게 되자 어찌나 경악실색했던지 며칠 밥맛까지 잃어버렸었다.

조금이 역시 함흥에서 돌아온 뒤로 내내 머리를 쳐들지 못하고 다녔다.

얼마전 딸애의 생일날에 마을사람들 몰래 집으로 왔던 조금은 뜻밖의 광경에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글세 수련이의 생일날을 어떻게 알았는지 찰떡이며 갖 가지 당과류들까지 꾸러가지고 온 근삼이가 그 애와 함께 손뼉을 치며 노래를 부르고있었던것이었다. 남편은 또 어디로 나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제 생일인줄도 모르고 텅빈 집안에 홀로 있을 딸애를 생각하며 왔던 조금은 집안으로 들어도 못하고 한동안 마당가에 서있었다...

그날 밤 조금은 근삼의 진정어린 충고를 듣고 지난날 자기의 생활을 심각히 돌이켜보았다.

그다음날 그는 자기를 구슬려 데려내다 장사를 시킨 남편 강득준과 한바탕 말다툼까지 하였고

다시는 그런 량심에 먹칠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던것 이다. ...

해가 거의 질무렵에 수련이가 울면서 근삼을 찾아왔다.

《아저씨, 우리 어머니가...》

《아니 어머니가 어쨌다는거냐?》

근삼은 눈물범벅이 된 수련의 얼굴을 닦아주며 물었다. 벌써부터 불안한 생각으로 가슴이 두근거린다.

《아버지와 또 싸웠어요.그래서 지금...》

근삼은 삼을 내던졌다. 일학을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한달음에 강득준네 마당에 들어서니 집안은 어수선했었다. 조금은 아래목에 맥없이 누워있었다.

《아주머니, 어떻게 된 일이요?》

조금은 부시시 일어나 앉더니 눈물을 찔끔거리다.

《낮에 애아버지가 들어왔길래 작업반에서 내가서 판 사과값을 분조에 바치자고 말을 했더니 자기는 현금을 내고 사과를 좀 사서 소비했을뿐인데 밖에 나가도 집에 들어와도 큰일난것처럼 떠든다고 성을 내겠지요 그래서 제가 그제 어디 량심적인 일인가, 당신때문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했는줄 아는가고 들이댔더니 아예 분조를 떠나고 말했으면서 문을 차고 집을 나갔어요.》

《그래 강동무가 어디로 갔소?》

근삼의 노기어린 물음에 조금이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다.

《아마 흥덕으로 가는가봐요.》

근삼은 조금의 집을 나서 마을길을 걸어갔다. 진작부터 강득준에게 관심을 못돌린것이 저으기 후회되었다.

그들을 내버려두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근삼은 서둘렀다. 강득준을 붙잡아야 했다. 쏘고개의 지름길을 탄다면 강득준을 앞질러갈수도 있다. 마침 퇴비를 실으러 마을로 들어오는 프락포르를 만났다. 런걸차우엔 일학과이 순택이가 타고있었다. 근삼은 앞을 막아서며 손을 쳐들었다. 프락포르의 급제동을 하며 멈춰섰다.

《형님, 무슨 일이요?》

성춘이가 시창밖으로 머리를 내밀며 물었다.

《이사람, 차를 좀 빨리 돌려주세요.》

성춘이 무슨 영문인지 몰라 두눈을 슴뻑거리는 데 어느새 일학이가 옆에 와섰다. 그는 근삼의 말을 채 듣지도 않고 손을 뻗 내저었다.

《그까짓 내버려두시오...》

《아니, 한 분조원의 일인데 내버려두다니?》

《글쎄 제발로 분조를 나가겠다는 사람을 붙들어서 뭘합니까. 갈테면 가라지요. 관리위원회든 또 다른 분조이든... 성춘동무, 빨리 갑시다.》

《동문 어쩌면 그럴수 있는가? 한 분조원의 정신에 나쁜 물이 들어가는데도 그냥 내버려둘셈이요? 아니 그렇게는 못하고, 강동무는 이러나저러나 우리의 동지요.》

후들거리는 근삼의 주먹을 보며 일학은 놀란듯 주춤 물러섰다.

《선동원아바이의 말이 옳소. 우린 장동무들 그

냥 들수 없소. 이진 우리 《일곱집마을》 사람들의 혁명적의리심에 관한 문제요.》

순택이도 흥분하여 주먹을 내두르며 소리쳤다.

그때 성춘이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아무리 지름길로 간다고 해도 이젠 늦었습니다. 강동무는 벌써 쏘고개를 넘어 흥덕으로 가는 빠스에 올랐을겁니다.》

그러자 근삼은 우울한 낯빛을 지으며 말없이 돌아서더니 고개를 푹 떨군채 어디론가 걸어가기 시작하였다. 그는 등뒤에서 울리는 일학의 목소리를 들었다.

《순택이, 동문 어느때 봐야 붙는 불에 키질하기를 좋아하거든...》

《헛참, 사실 분조원을 위한 일에 먼저 뛰어들어야 할 사람은 누구요?》

《나예젠 강득준이 같은 분조원은 없소. 아예 관리위원회에 넘겨버릴테요.》

《옆에 끼고 돌 땀 언젠데 그런 소리요?》

《듣기 싫소. 어루만질 때는 이미 지나갔소. 내 할일은 내가 아니 간참하지 마시오.》

발동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렸다. 그들의 말은 더 들려오지 않았다. ...

한밤중에 근삼은 대문두드리는 소리에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문가에 순택이가 초조하게 서있었다.

《아바이, 이거 야단났습다. 수련의 어머니가 벌써 세번씩이나 까무라쳤습다. 아마 심장발작같습다. 원래 심장병이 있는 여자인데 낮에 있는 일때문에...》

《가시오.》

근삼은 앞장서 강득준네 집으로 걸어갔다. 순택의 처 복실이가 하얗게 피기없는 조금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열심히 손발을 주무르고있고 수련이는 울고있었다. 조금은 숨소리조차 없다.

《순택이, 빨리 분조장에게 알리고 프락포르를 준비하게. 시간이 급하요.》

순택은 군말없이 다시 밖으로 달려나갔다. 강건너 리인민병원에 가는 길이 제일 빠른 길이다.

《수련이 엄마, 정신차려요—》 하는 복실의 애타는 부름에 조금은 반쯤 눈을 뜨다가 다시 힘없이 눈을 감아버린다. 급해난 근삼이도 밖으로 뛰쳐나갔다. 일학이네 집쪽에서 청높은 목소리들이 들려온다.

《프락포르가 기계화반에 넘어갔다면 그건 이젠 그른거구...그럼 소달구지를 씹시다.》

《헛참, 해종일 거름을 운반한 그 소를 가지고 또 어디로 간다는거요? 조금의 병은 내가 잘 아오. 그러다 일없을거요, 원래 변덕이 많은 녀자니까...》

《아아, 어쩌면—》 순택은 기가 막혀 부르짖는다.

《사람이 생사기로에서 헤매고있는데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요?그런 랭담한 심장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오. 마을사람들이 왜 근삼아바이를 우리 선동원리라 부르며 따르고 존경하는지 아직도 그걸 모르겠소?그리고 분조장동무가 늘 입버릇처럼 외우는 리수봉이 도대체 누군

지 알기나 하오? 그는 근삼아바이의 아버지란 말이요, 아버지!—》

《?!...》

《분조장동무야말로 사람복이 있는줄 아오.》

근삼은 더 다가못가고 길가에 멈춰섰다. 두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세차게 흉벽을 두드렸다. 순택이가 자기 근삼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사람에 대하여 말하고있는것만 같았다.

순택이 다시 뛰어오다가 근삼을 발견하고 안타까운 목소리로 웨쳤다.

《아바이,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순택이, 차라리 담가로 저 강을 건느시오. 달구지로 다리를 에드느라면 시간이 배로 걸리오.》

근삼의 결괏있는 말에 순택은 《웁수다!》하고 대답했다. ...

립동을 눈앞에 둔 강물은 뼈를 에이는듯 싶었다. 두사람은 조금을 담가에 눕히고 강에 들어섰다. 차갑고 날카로운 별들이 밤하늘에서 오돌오돌 떨고있었다. 앞채를 맨 근삼은 미끌거리는 조약돌때문에 자주 비칠거렸다. 칠혹같은 밤의 어둠속에서 강물은 그들을 위협하듯 성급하게 소용돌이치며 흘러가고있었다. 강복판에 이르자 뼈속까지 얼어드는듯 점점 감각이 마비되는듯 싶었다. 근삼은 피나게 입술을 깨물었다. ...

드디어 그들은 강 저쪽기슭에 이르렀다. 근삼의 발밑에서 갓 얼어붙기 시작한 살얼음이 버석버석 유리조각처럼 깨어져나갔다.

그때로부터 한시간후, 조금은 구급과 소생실에서 의식을 회복하였다. 조금만 더 늦어도 쇼크상태에 들어간 심장이 영영 멎을번 했다는 담당의사의 말을 들으며 근삼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그 어떤 대가도 보상도 모르는 인간사랑의 참된 미소였다.

이밤, 후회와 고민속에 자기를 끝없이 타매하며 밤을 새우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분조장 김일학이었다. 분조원들은 아침에 출근한 일학의 우묵한 두눈이며 꺼질해진 볼과 초체해진 모습을 보자 깜짝 놀라 수군거렸다. 사람이 하루밤새 그렇게 축갈수 있다는게 믿어지지 않았던것이다. 리병원에서 곧바로 분조휴게실에 나타난 근삼을 보자 일학은 죄지는 사람처럼 눈길을 허둥거리며 몸들바를 몰라했다. 그는 마치 근삼을 피하려고 서두르는 사람처럼 빨리 집에 들어가 쉬라며 등을 떠밀었다. 근삼이가 집에 들어간 다음 그는 자기비판을 하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 선동원아바이야말로 자신보다 남을 위해 살고있는 사람이요. 무엇때문이겠소. 우리 (일곱집마을)의 화목과 분조의 단합을 위해서요. 우린 단합하고 합심해야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더잘 받들수 있소!》

그것은 일학의 가슴속에서 우리나라의 진심의 말이었다. 그는 자기의 어린시절의 추억속에 깊이 간직된 리수봉을 다시 만난것 같았다.

근삼은 40도를 오르내리는 고열속에서 이틀밤을 보냈다. 왕진나온 리병원의사는 급성폐염으로 선포하고 빨리 군병원에 후송할것을 지시하였다. 생명이 위급 했던것이다. 원래 건강치 못했는데다 육체적과로가 겹쌓이고 차거운 강물속에서 감기를 만나 그것이 인차 급성폐염으로 넘어갔던것이다. 근삼이가 회복기에 들어서던 어느날, 군병원의 3층 입원실로 강득준이 찾아 왔다. 강득준의 변민에 휩싸인 얼굴을 보자 근삼은 그가 얼마나 심각한 고민을 겪었으며 또 자기를 찾아오느라 얼마나 힘든 걸음을 했는가를 깨달았다. 근삼은 제때에 그를 도와주지 못한 자책으로 가슴이 찢어졌었다. 그역시 《일곱집마을》의 세대주요, 분조원이 아닌가...

《아바이, 내 죽을 죄를 졌수다. 농사군의 본분을 잊고 돈에 뒹을 팔았던 이 못난 놈을 용서해 주시오. 내 비록 아바이에게 버릇없이 굴었어도 아바이의 진심을 알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인간의 참된 가치와 인격은 돈도 직위도 명예도 아니였지요. 조국과 혁명을 알고 동지에 대한 참된 사랑을 지닌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근삼은 뜨거운것에 목이 꼭 메는것을 느끼며 그의 손을 끄당겨 가슴우에 얹었다.

《동무가 나보다 더 잘 알테지만 사과나무도 그냥 내버려두면 해거리를 면치 못하네. 사람도 마찬가지네 우리야 어릴 때부터 조직과 집단속에서. 동지들의 방조와 사랑속에서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은 사람들이 아닌가. 다른 삶의 길은 없네...》

근삼은 잠시 말을 끊었다가 머리말에 있는 록음기를 틀었다. 그 록음기를 읍중학교에서 교원을 하는 막내 녀동생이 오빠가 적적해한다며 가져다놓은것이였다. 록음기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였다.

《요즘 어느 텔레비전극에서 나오는 주제가인데 가사도 곡도 다 마음에 들거든...》

모진 풍파헤치며 서로 맺은 사랑은

인생의 먼길에 추억할 노래가 되리

...

창밖에서는 이해의 첫눈이 푸실푸실 내리고있었다. 강득준은 조용히 울고있었다. 봄비와도 같은 따뜻한 눈물이 근삼의 손등우에 떨어진다. 그것은 다시 근삼의 가슴속에 흘러들어 온몸에 서서히 퍼져가며 삶의 환희로운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러자 근삼은 불시에 금진강기슭의 아담한 《일곱집마을》로 가고싶어졌다. 또 다시 자기를 강그리 바치며 새로 태어난 사과밭을 위해. 소박하고 근면한 마을사람들을 위해 힘껏 일하고싶었다.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에 대한 참다운 충실성을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는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폭넓고 깊이있게 그리는 여기에 우리 문학을 참말로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으로 되게 하는 길이 있다.》

《우리 시대의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창조하는데서도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수령, 당, 대중의 3위일체의 원칙에서 감명깊게 그려내야 한다.》

《작가는 우리의 보통인간이 어떤 소박하고 평범한 인간적바탕에서 영웅으로 자라는가 하는것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밝혀내야 한다. 영웅의 소박한 성품을 그리면서도 그의 남다른 정신적높이와 특출한 위훈이 뚜렷이 드러나도록 형상하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시대 인간의 새로운 정신도덕적품도의 중요한 특징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강그리 바쳐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것을 혁명적 의리와 본분으로 여기는데 있다.》

《사회정치적생명체앞에서 지닌 자기의 숭고한 의무를 깊이 자각하고있는 우리 시대 인간의 아름답고 숭고한 정신세계는 오늘날뿐 아니라 앞으로도 더 높은 수준에서 끊임없이 발전될것이다.》

《우리 문학에서는 원형과 사실자료에 기초하여 전형화하는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작가는 긍정에 대한 열렬한 옹호정신과 함께 부정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정신을 지녀야 한다.》

5 월의 보통강

신춘실

때는 5월이라
버들은 실실이 늘어져 설레이고
물결은 봄바람에 흐느적이며 춤추는데
아름다운 보통강 바라보느라니
어인일인가 가슴뜨거워짐이어

유유히 흘러가는 보통강물결은
해방조국의 그 첫봄에
새 조선의 주인된 이 나라 녀인들을 불러
건국의 첫걸음 떼여주시던
김정숙어머님의 그 음성 신고서 흐르는듯

딘고선 제방 한줄 흙에도
억눌려 천대받던 이 나라 녀인들의 피눈물을
흐름을 바꾼 보통강물에 영영 씻어주시며
조선녀성의 뭉친 힘 펼치자고
앞장서 달리시던 어머님의 땀방울이 어린듯...

가슴뜨거워라 해방은 되었어도 아직은 제집
안방에서 나오지 못하던
녀인들을 이끌어 건국의 마당에 땀땀이
세워주신

어머님의 그 업적이어

수령님 손수 착공의 첫삽 뜨신
보통강개수공사장에
어머님 세워주신 우리 녀성들
오늘은 장군님 구상 받드는
강성대국건설장마다에 그날처럼 그날처럼
굳건히 서있고

수령님 뜻 받드는
대자연개조의 첫 기슭에서
어머님따라 첫걸음 옮긴 우리 녀성들
장군님 펼치신 새 시대
선군의 힘찬 걸음에 발맞추며
오늘도 그날처럼 달리고있나니

정녕 5월의 보통강은
세세년년 전해가리라
어머님따라 남자들과 어깨나란히 우리 녀성들
보통강제방쪽 쌓아올린 그날이 있어
조선녀성 그 이름 세상에 떨쳐가는
오늘의 이 자랑 있는것이라고...

백두산녀장군형상의 참신성과 소설의 구성미

— 단편소설 《건국의 첫기슭에서》를 읽고 —

천재규

1

형상의 매력, 형상의 성공여부는 주인공의 정서적 감화력이 남다른 백두산 3대장군을 형상한 소설인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고매한 인간사랑, 인민적품도를 개성적으로 형상화한 단편소설 《건국의 첫기슭에서》(조창근 작, 《조선문학》주체 94년 12호)는 일정한 창조적경험을 시사하여주는 작품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가들의 정치적신념과 강毅한 의지만 아니라 그들의 리상과 포부, 구체적인 심리와 감정까지도 여러 측면에서 깊이있게 그려야 현실에서도와 같이 생동한 혁명가의 전형을 창조할수 있다.》

위인도 인간이다. 인간이되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운 인간중의 인간이다. 이것은 위인이야말로 인간이 갖추수 있는 미덕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한 참인간의 귀감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단편소설 《건국의 첫기슭에서》는 백두산이 낳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위인상을 진실하고 생동한 정서적화폭으로 공감의 가게 그림을 그리는 작품이다.

해방직후 위대한 수령님의 건국로선을 받들고 진행된 보통강개수공사를 생활바탕으로 하고있는 소설은 공사자체를 기본사건선으로 하지 않았다.

그 공사를 둘러싼 인간들의 이야기, 구체적으로는 김정숙동지께서 토성랑물관리로 실명한 박명도청년에게 삶의 희열을 안겨주고 그의 할아버지 박물무로인에게 건국열망을 불붙여주며 이들과 사돈간이 되다가 일시 파기상태에 놓인 명의 허심로의원과 그의 외동딸 허란주들사이에 옛정, 옛사랑을 되찾게 하는 인간사랑의 참이야기를 기본사건선으로 하고있다. 그리하여 소설은 인정의 리의 숨결이 세차게 굽이치고 지성과 사색세계가 안겨오는 정서깊은 작품으로 되였다.

영웅적인 인간, 인걸들의 형상은 흔히 지략과 용맹으로 뛰어나거나 힘과 투지로 출중한것이 상례로 되고있다. 하지만 이 소설에서 김정숙동지는 너무나도 소박하고 겸허한 평민적인 형상으로 개성화되였다. 그 평범속에서 독자들을 순간순간 공감시킨다는데 이 작품이 보여준 형상생리의 고

유성이 있다.

위인은 출중하다. 아니 출중해야 한다. 그러면 항일전장에서 그리도 명성이 높았던 백두산녀장군께서 해방된 조국땅에 개선하신후 보여주신 위인상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이것이 작가가 고심한 형상과제의 하나였다.

공사장에 나오신 점심철참에 부상당한 다리상처에 뜸을 떠보실 생각으로 봉화산의 솔숲을 더듬으며 쭉을 뜯으시던 김정숙동지, 앞뚝보는 청년(박명도)의 가공한 모습을 목격하시고는 대번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인간에 대한 뜨거운 정이 북받쳐오름을 느끼시며 꿈에도 어려오는 사랑하는 동생 기송이로 여겨져 아픈 심중을 지그시 누르시는 그이이시다.

자신의 아픔은 가뭇없이 잊고 일군이 가져다드린 사향을 박명도청년의 눈치로써 써달라고 간절히 청탁하며 허심로의원에게 되돌려주시는 인정의 리세계의 밑바탕에는 인간, 인민에 대한 혈육적인 사랑이 면면히 굽이 치고있다.

역수로 내리는 비발속에서 진흙을 한삽한삽 떠 옮기다가도 지치고 힘이 모자라시면 이국땅에 묻힌 전우들을 불러보군 하시는 김정숙동지—

《희숙동무, 성숙동무, 이전 동무들의 뒤편으로 뜨는 흙이예요. 록금동무, 확실동무, 이견 동무들의 뒤편이구...》

먼저 간 렬사들을 뜨겁게 찾으시는 혁명동지들에 대한 고결한 사랑은 의지가 되고 힘이 되여 온갖 시련을 다 이겨내게 한다. 참인간의 심장에서 분출하는 사랑의 힘은 그리도 큰것이였다.

소설은 론리적강조나 해설적인 서술이 아니라 인간사랑으로 충만된 김정숙동지의 내면심리세계에 대한 섬세한 묘사를 진지하게 추구함으로써 사랑의 감정이 흐르고 정서가 굽이치는 굽이 있는 작품으로 되였다. 결국 소설은 인간사랑이 김정숙동지의 《체질화된 삶의 생리》라는것을 구체적인 생활화폭으로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이 소설이 성공할수 있는 주되는 요인이 여기에 있었다.

소설에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인간,인민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단순히 천품적인 것에만 귀착시키지 않았다. 여러 생활계기를 통하여 그것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품속에서 자라났고 장군님의 《이민위천》사상과 지론을 받든

혁명가들의 어질수 없는 체질로, 근본 생존방식으로 되는것임을 실득력있게 깨우쳐주고 있다.

《저기 벼랑우의 락락장송을 보십시오. 천년세월 풍상을 이겨내며 푸르청청 서있는 근본바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위속에 깊이, 역세계 뿌리를 박았기때문입니다. 우리 혁명가들은 저 소나무처럼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

해방전에 김정숙동지께서 국내혁명가인 리무영에게 하신 이 말씀은 그대로 그이께서 한생토록 간직하신 좌우명이시였다.

소설은 김정숙동지께서 지니신 인간, 인민사랑의 리념이 가지는 사회적의미를 적중한 생활계기들에서 자연스럽게 밝혀줌으로써 작품의 생활적진실을 담보하면서도 정치적대를 무리없이 살릴 수 있었다.

인간사랑의 세계는 어느 사회현실이나 존재한다. 문제는 그 사랑의 인생관적리념과 사회적지향성을 주인공의 운명발전속에서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정치적으로 의의있게 밝히는것이 중요하다. 단편소설 《건국의 첫기슭에서》는 이 창작실천상문제에도 옳은 해답을 주었다.

소설에서 자신을 평양의 평범한 시민으로, 불행한 청년의 누나로. 년장자들의 딸로 여기시는 김정숙동지의 인민적소탈성, 그지없이 겸허한 품모는 인민의 딸로서의 그이의 그지없이 숭고한 정신미, 성격미를 한껏 돋구어주고있다. 이것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지니신 순결한 충실성, 열렬한 동지애와 함께 그이의 위인형상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특질이다. 이 위인 특유의 속성을 정확히 잡아쥐고 개성적인 필치로 참신하게 형상화한데 작가의 몫이 있다.

2

위인의 정신미, 성격미의 참신한 형상은 그에 맞는 참신한 구성미의 탐구를 필수적전제로 하게 된다.

단편소설 《건국의 첫기슭에서》는 감정의 흐름, 감정의 상승과정을 치밀하게 짜나감으로써 감정정서적 호흡을 활성화하는데서 비교적 성공한 작품이라고 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단편소설들이 사상적지향, 미적주장은 별로 나무랄데 없는데 읽고나면 감흥이 덜한것은 많은 경우 감정정서적 호흡을 잘 조절하지 못한것과 관련되어있다. 호흡이 순탄하지 못하면 숨이 찬 현상과 같다고 해야 할지...

이 소설은 사건조직과 인물관계발전과정을 감정정서적흐름으로 잘 뒤받침하고있다. 즉 성격과 생활의 논리적흐름에 대한 독자의 이성적 파악과

감정정서적 숨결에 대한 감성적 감수가 비교적 잘 조화되어있어 작품세계에 끌려들게 한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와 허란주사이의 스스로없는 인정선(1절)으로 시작되는 소설은 애젊은 나이에 앞을 못보게 된 박명도청년에 대한 김정숙동지의 뜨거운 인간애와 아픈 심중으로하여 충격적인 감정정서적흐름이 발단(2절)되며 그것은 박물무로인의 해방전 토성랑에서의 피눈물나는 가정사와 눈먼 손자를 두고 한탄하는 로인의 고달픈 생활처지에 대한 김정숙동지의 가슴저린 아픔과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의 감정으로 발전한다. 여기에 항일무장투쟁시기 토성랑의 가슴아픈 소식에 접한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무거운 시름과 아픔이 김정숙동지의 회상으로 덧쌓인다. (3절) 그리하여 감정정서적흐름이 저류가 되어 용융한 흐름을 이루게 된다.

다음단락에서 소설은 김정숙동지께서 자신의 치료용으로 차려진 사향을 허심로에게 되돌려주시며 박명도청년을 《제 동생》으로 생각하고 꼭 치료해달라는 절절한 간청, 그에 공감되어 사위자식이 될 젊은이도 랭대하였던 허심로의 심중에 폭풍이 이는것으로 감정정서적흐름을 격동시키고있다. (4절) 이러한 전체에 기초하여 비가 억수로 퍼붓는 통수로 굴착장에서 힘든 일을 의지로 이겨나가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뒤늦게야 알아본 수많은 군중의 흥분과 감격, 격정의 드설레임, 이에 김정숙동지의 기쁘시고 행복하신 심중토로의 제시는 감정정서적흐름의 절정을 이룬다. (5절)

이렇듯 사건선과 감정선, 인물선과 심리정서선을 밀착시켜 치밀하게 극을 엮은 여기에 이 소설이 정서로 충만된 감동깊은 서사적화폭을 창조할수 있는 비결이 있었다.

소설적인 이야기. 소설에서의 생활은 시종 미적정서의 물결을 타고 흘러야 한다. 미적정서가 결여된 형상은 참된 의미에서의 예술적화폭이 아니다.

단편소설 《건국의 첫기슭에서》는 인물관계도 치밀하게 설정되고 립체적으로 견인력있게 맞물려 몰아간다.

소설은 단편치고는 비교적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치밀한 인간관계를 맺고 김정숙동지의 위인적품모를 부각시키는데로 힘있게 지향되고있다.

해방전 국내지하공작원이었던 공사장지휘성원인 리무영, 토성랑의 피눈물나는 과거사를 새겨안은 대장쟁이 박물무로인과 눈먼 손자 박명도, 명문가의 후손인 명의 허심로와 그의 외동딸 허란주...이 삼각관계를 이루는 인물군상들은 서로 다른 생활경로를 가진 민족사의 각이한 증견자들이

지만 김정숙동지의 뜨거운 사랑에 떠받들리고 자
각한 인민대중의 뭉친 힘에 의해 위대한 수령님
께서 몸소 발기하신 새조국건설의 첫 공사가 거
세차게 추진되어갔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힘있게
확증하여주었다.

소설은 박물무로인선을 통하여 해방전 토성랑
빈민촌의 가슴아픈 모습을 보여주면서 위대한 수
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보통강
개수공사장에서 건국의 첫삽을 뜨신 참뜻이 무엇
이였는가를 밝혀주었다면 허심로의원선을 통하여
서는 해방전 밥술이나 뜨던 사람들도 새조국건설
에 적극 떨쳐나섰고 모든것을 다 바쳤다는것을
지성적인 생활화폭으로 인상깊게 보여주었다.

리무영선을 통하여서는 해방전 위대한 수령님
의 무장투쟁로선을 받들고 김정숙동지의 손길아
래 성장한 투사들이 새조국건설에서도 골간적역
할을 놀았음을 궁지높이 이야기하고있다.

인물선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해방전후의 온갖

사연을 밝히는 2중적인 형상과제를 안고있지만
마침내는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인간사랑, 인민사
랑의 리념에 매혹되어 그이의 이끄심따라 위대한
수령님의 새조국건설로선을 한결같이 받들어 나
선 자랑스런 수령함모의 력사, 일심단결의 력사를
궁지높이 노래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는것이다.

물론 이 소설도 선군시대의 미학정서적요구의
측면에서 논의할 일련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항일
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위인형상에서 소설이
이룩한 경험이 더 소중한것으로 하여 지적을 피
하려고 한다.

작가들은 이미 이룩된 창조경험들을 적극 살리
는 한편 독창적인 탐구로 백두산녀장군의 위인형
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가며 선군시대의
기념비적명작들을 더 많이 내놓음으로써 선군혁
명문학건설에 높은 실적으로 이바지하여야 할것
이다.

영원한 자옥

김영옥

행복의 높은 창가들이
물결우에 넘실넘실 비끼고
꽃잎마냥 꽃배들이 떠있는 보통강
바라보는 이 마음 마냥 즐겁구나

행복에 겨워 한껏 웃는 사람들이
아는가
오늘의 이 행복을 안겨주시려
우리 수령님 60년전 그날에
이 강에 새기신 사랑의 자옥을

물이 가져다준 원한으로
세상을 한탄하던 통곡과 한숨이
강물처럼 흐르던 토성랑
수령님은 이 토성랑의 피눈물을
건국의 첫삽으로 밀어버리셨거니

세워야 할 공장
복구해야 할 광산들은
얼마나 많았으랴
해방된 조국땅 가는 곳마다
수령님의 손길 기다리는데...

인민이 겪는 고생이면 더 아파하시고

인민이 당하는 괴로움이면 더 잠 못 드시는
우리 수령님이시기에
《이민위전》의 위대한 사랑으로
새 조국땅에 찍으신 불멸의 자옥이어

실실이 수양버들 물결우에 흐느적이고
물속에선 고기떼 무리져 흐르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보통강
오늘도 물결우에 비껴있는 락원의 모습들이
그대로 수령님의 자옥이 아니더냐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을 주시려
우리 수령님 첫삽을 뜨시고 가꾸시어
인민에게 주신 강
오늘은 장군님 손길아래
더더욱 아름다워지는 락원의 강이어

60년의 세월이 더 흐르고
600년의 날과 달이 더 간대도
수령님의 인민사랑의 자옥으로
보통강은 흐르리라
행복의 물결되어 굽이쳐 흐르리라

기쁨의 무게

현승남

《참말이지 지금도 꼭 꿈을 꾸는것만 같습니다. 글썽 엇그제까지만도 최전선의 인민군구분대들을 시찰하고계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뜻밖에도 우리 공장을 찾아주실줄은...》

우리 공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 공장은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 이른 공장이라고, 모든것이 부족한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추호의 동요나 주저를 모르고 미래에 대한 신심과 낙관에 넘쳐 생산을 끊임없이 늘이면서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공장의 면모를 일신시킨 공장이라고 그토록 기뻐하시고 그토록 민족해하시면서 감사까지 주셨으니 이 어찌 꿈엔들 상상이나 할수 있었던 일이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사실 우리가 일을 했으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우린 그저 잡초만 무성했던 여기 평천벌에 친히 나오시여 공장의 터전을 몸소 잡아주시고 여러차례의 현지지도와 가르치심으로 우리들을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도대로만 했을뿐입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공장이 생산은 물론 문화생활, 후방사업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모범이라고 하시면서 것처럼 분에 넘치는 치하와 평가를 주셨으니 저희들의 심정 정녕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겠습니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20여년동안을 한 공장에 있으면서 일을 많이 한 로당일군이라고 치하를 주신 평양 326전선공장 초급당비서와 《고난의 행군》 시기에 공장사업을 맡아안고 생산공정들을 현대화, 과학화하는 사업에 헌신하여 장군님께 큰 기쁨을 드린 젊은 지배인의 감격에 겨운말이었다.

어찌 당비서와 지배인의 심정뿐이라.

30여년전에 이 공장에서 당사업을 하였다는 오랜 당일군은 물론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외국류학을 보내시고 공장의 책임일군으로 내세워주시였던(지금은 모두 공로 보장자들이다.) 70고령의 어제날의 일군들도 장군님을 모시였던 영광의 그날 공장으로 달려와 축하한다고, 정말 수고했다고, 자기들의 평생소원도 풀렸다고 그리고도 기뻐하고 그리고도 감격해하였으니 공장의 환희와 기쁨 세상끝에 닿았다고 할가 하늘끝에 솟았다고 할가!

50여년전 위대한 수령님께서 허리띠를 졸라매며 한푼한푼 아껴오시던 자금을 뚝 떼내시여 사

다주신 눈물겨운 기계의 첫 기대운전공이었다고 하는 80고령의 옛 기대공은 또 이런 말을 했다.

《난 목이 터지게 해방의 만세도 불러왔고 전승의 열병식장에서 최고사령관동지앞으로 열병행진도 했소. 한데 그때는 끄떡도 없었는데 이번에 장군님께서 우리 공장을 찾아주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심장이 터지는줄 알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하긴 내 나이 80이 적은가!》

진정 나이탓뿐일까?

하긴 80나이라면 적다고 할수는 없다.

문득 수십년동안의 고심어린 노력끝에 성공이라는 두마디 소식을 듣자 실험대앞에서 그대로 숨이 켜다는 한 기술자의 이름이 생각났다. 어디 그 기술자 한사람뿐이겠는가...

총포소리없는 전쟁...소리도 없는 전쟁이기에 더 숨가쁘고 안타깝고 답답한 피눈물의 진통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자기가 들고 나가야 할 점심밥팩을 손자손녀들의 밥상맡에 슬며시 밀어넣고 맨손으로 기대앞에 나서야 했던 로기대공! 30여년전 공장을 잘 꾸린 다음 꼭 다시 나와보겠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을 다시 모시지 못한 그 아픔, 그 죄책감으로 몇끼를 굶으면서도 끝까지 기대를 멈추지 않았던 그 종시 나이가 들어 물러섰지만 그 기대앞에 자기대신 장군님을 꼭 모시라고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까지 모두 내세우고 싶었던것이 옛 기대공의 절절한 그 심정이었을진대 너무 기뻐 심장이 터지는줄 알았다고 하던 그 말이 과연 과장이었을가.

량해하시라. 나는 새삼스레 이 공장의 환희와 기쁨을 다시 피력코저 굳이 무딘 붓을 든것은 아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였던 날 공장초급당비서는 전체 종업원들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

《...물론 장군님께서서는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수 없었던 최대의 평가와 치하의 말씀을 주시었습니다. 하지만 동무들, 우리 각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봅시다. 공장을 둘러봅시다. 우리 공장이 진짜 만년대계의 강성대국을 건설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에 만족이 될수 있게 현대화가 되고 과학화가 되었습니까. 우리 공장이 과연 새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시키라고 하신 장군님의 가르치심대로 다 꾸려졌단 말입니까....

우리 장군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고 것처럼 만족해하신것은 무엇때문이며 것처럼 과분한 치하와 평가를 주신 그 깊은 뜻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

그렇다, 좋은 날 배불리 먹으며 백리길을 간 자식보다 어려운 날 배를 끓으면서도 기어이 십리길을 따라간 자식이 더 고맙고 기특한것이 부모의 심정이다.

돌이켜보면 적들의 악랄한 경제봉쇄와 련이어 들이 닥친 자연재해…산악처럼 밀려 드는 고난의 광풍과 해일은 이 공장이라고 스쳐지나지 않았다.

백번 쓰러지면 백번 일어서 싸운 그 철의 분발심이 없었다면 어찌 오늘과 같은 영광의 날을 맞을수 있었으랴.

《고난의 행군》 전기간 수천명 종업원들의 높은 출근률 보장!

《장군님, 우리 공장에서는 《고난의 행군》 전기간 전체 종업원들과 가족들의 생활조건을 자체로 보장했으며 수백세대의 살림집을 지어 생활부터 안착시켰습니다.》

너무도 스스럼없이 올리는 평범한 말솜에 우리 장군님 눈굽에 어이하여 뜨거운 물기가 어리셨으랴!

류레없이 간고한 때이기에 어딜 가나 인민들의 생활문제부터 걱정하신 우리 장군님, 그 인민을 하루빨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우실 결심으로 공업의 현대화, 과학화과업을 전면에 내세우신 장군님이시기에 허를 깨물면서도 나라에 손 한번 내밀지 않고 온 공장이 달라붙어 종업원들의 생활을 안착시키고 한대 또 한대 현대적인 새 기계들과 원료자재를 사들여 생산을 정상화하고 공장안팎을 새시대 새맛이 나게 환하

게 꾸린것이 너무도 특하시여 기대면 기대앞에서, 구내길이면 구내길에서 그리도 기뻐하시고 그리도 큰 만족을 표하신게 아니라.

초급당비서의 마지막말이 더더욱 뜨겁게 귀전을 울린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군님께 조금이나마 기쁨을 드릴수 있었다면 그것은 어려운 시기 오로지 장군님을 받들어 장군님의 뜻대로 일정하게나마 공장을 일떠세웠기때문이지 결코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과 뜻을 다 따랐기때문은 아닙니다. 하다면 장군님의 기쁨, 장군님의 높은 평가와 치하에는 무엇에 담겨져있겠습니까. 그것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발휘하였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이빠진 공정들을 시급히 보충완비하고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공장들 하루빨리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본보기 공장으로 전변시키라는 크나큰 신임이며 믿음과 기대입니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본보기공장!…우리는 오늘의 기쁨을 이런 뜻에서 보다 영광스럽게, 보다 중하게 받아안아야 할것입니다!》

무슨 말을 더 하랴.

항간에도 칭찬을 받으면 마음을 더 가다듬으라는 말이 있다.

자각한 인간의 생활과 투쟁에는 반드시 보다 알찬 열매가 맺어지기마련이다.

오늘도 선군장정의 길에서 찬바람 다 맞으시는 우리 장군님께서 래일은 또 어느 공장, 어느 농장벌을 찾으실지 모르거늘 장군님의 웃음, 장군님의 치하속에 우리들의 기쁨이 있고 보다 큰 혁신을 일으켜나가기를 바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신임과 믿음이 담겨져있다는것을 우리 항상 명심하며 살자!

가사

자강땅의 흰눈송이

오형식

흰눈송이 내리네 강계의 흰눈송이
뜨겁게 안아보는 내 마음 젖어드네
락원의 길 여시려 장군님 헤쳐가신
승업한 그 자욱이 굵이굵이 어려오네
자강땅의 흰눈송이 아 추억깊은 흰눈송이

강선의 하늘가에 내리던 흰눈송이
강계의 솟눈길에 뜨겁게 내리는가
수령님 맞으신 12월의 흰눈송이

고난의 길 헤치시며 장군님 맞으셨네
자강땅의 흰눈송이 아 추억깊은 흰눈송이

강선의 흰눈송이 마음속에 안으시고
장군님 맞으셨던 강계의 흰눈송이
사연깊은 자강땅에 새 봄빛은 흘러도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녹지 않네
자강땅의 흰눈송이 아 추억깊은 흰눈송이



리일룡 그림 김광석

리재명은 리완용을 우리 민족의 가장 극악한 친일매국역적으로 낙인하고 그 처단을 위한 준비를 근 2년간 하였다. 기유(1909)년 동지달 스무날 거사기회가 왔다는 소식이 왔다, 이틀후인 22일 오전 서울명동프랑스교회당에서 벨지끄 황제 레오폴드2세의 추도식이 있는데 리완용이 여러 《대신》들을 거느리고 여기에 참가한다는 소식이였다. 재명은 이 절호의 기회에 놈을 만사람이 보는 교회당앞 큰길에서 처단해치우기로 결심하였다.

거사 바로 전날이 왔다.

이날의 하루는 재명의 마음속에서 무척 굵뜨게 흘러갔다. 그런대로 시간은 흘러 마음을 조이며 기다려온 저녁때가 되자 재명은 천천히 하숙을 나설 차비를 했다.

이제는 저녁녘이 되었으니 안해가 공부를 끝내고 하숙에 와있을것이다. 은근히 긴장해지는 마음으로 서울남부의 자기 하숙을 나온 재명은 양의 벨처럼 무척 오불교불한 골목길을 꺾지르며 수진동을 향하여 스틱스적 걸었다.

그곳에 안해의 하숙이 있었다. 뒤달 되나마나 한서울생활조차 《견우》, 《직녀》처럼 하나는 서쪽에서 하나는 남쪽에서 살던 그들의 생활은 이 밤과 함께 끝난다. 아침이면 그는 두 동지와 함께 거사장소로 가야 한다. 2년전 10여명의 동지들과 평양성안 동산재서묘 사립학교서적종람소에서 거사를 위한 첫 회합을 가질 때 벌써 그의 몸은 이 일에 바친 몸이었다.

《저의 피를 민족의 한을 푸는데 모두 바치겠습니다.》

그때 한 말이였고 그렇게 살았다. 동지를 찾아 먼 아라사(로씨야) 땅에 가야 할 때는 《큰일에 그만한 고생이 뭐 대수겠소.》

하며 이웃마을에 다녀오듯이 가볍게 문을 나섰고 거사를 맹약한 동지들이 리완용의 경비가 이만저만 아니니 《일진회》 회장 리용구라도 죽이고말자고 양보책을 내놓을 때에는

《정 그러면 난 단신으로라도 그놈을 죽여버릴테요. 그리아오.》

하고 단호히 결별을 선언하였다.

그의 손은 저도 모르게 왼편 속주머니를 더듬었다. 차곡차곡 종이에 싸 몇푼 안되는 학비의 탄탄한 촉감이 느껴진다. 안해 모르게 밤마다 서울역에 나가 인력거를 끌며 한푼두푼 모아둔 마지막학비. 《인력걸 끈다는 〈량반〉이 서울장안두 다 몰라? 어디갔다 부려놔.》

《망국의 시절에 그렇게 할 일이 없을가. 멀끔한 청년이 …돈에 환장이 됐구만.》

온갖 멸시와 조소를 꼭 참아가며 일을 끝내고 돌아와 시신처럼 쓰러졌다가도 《아이, 학비…》하며 좋아 할 안해를 그려보면 온갖 피곤이 아침안개처럼 사라져버리던 그 학비였다. 장가들며 그는 안해를 《평양성 모녀학교》에 입학시키였었다.

《당신을 글공부시키는게 소원이었는데 인젠 됐소. 소리치며 마음껏 배우오.》

이 학교에 있는 친구인 박선생과 입학의논을 다 해놓고 와서 그가 안해에게 한 말이였다.

《그만 두겠어요.》

《왜?》

《지어미가 아일 업고 어떻게 공불 하겠어요?》

《안녕으면 될게 아니요.》

《사대들이란… 그게 어디 말대루 돼요.》

성을 냈다.

《별걱정 다 하오. 맘먹어 못하는 일이 어디 있겠소. 날 푸른 하늘을 보듯이 즐겁게 해주는데

그거요. 다짐을 두는데 꼭 그래야 돼. 응?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이두… 날 좀 보우 이거요.》

그는 두손을 째 벌려 영원히 갈라짐을 시늉했다. 그 후 제명은 안해를 거기서 배우게 해주었고 안해가 서울로 올라온 다음에는 다시 《서울양심녀학교》에 전학시켜주었다.

이걸 먼저 주며 말을 건다면… 상상속에 안겨오는 안해의 방글썩 웃는 모습. 고개까지 가웃하여 참말로 고왔다. 손가락끝으로 불이라도 톱팅겨주었으면… 연딩이를 매단것 같던 마음이 불시에 홀 가버워진다.

《여보썩 청년. 그쪽으로 가면 안되우. 게가 어디라구 부득부득 가시우.》

자기 생각에만 빠져 내쳐 걸던 제명은 어디선가 누굴 핀잔하는 소리에 누굴보고 그러나 하며 고개를 돌리다가 흠칠 놀랐다. 이게 뭔가. 거인같은 대궐문이 자기를 마주 쳐 굽어보고있었다. 여기는 잡인들의 통행이 엄격히 금지된 곳이었다. 그리고보니 저쪽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안타까이 손짓으로 가리키고있었다. 아차 내가 무슨 실수를! 대궐문이란 경복궁의 정남문인 광화문을 따로 이르는 말이었다. 황제가 나드는 뺨건칠을 한 가운데 무지개문이며 그 옆에 신하들이 나드는 작은 문이 선명히 보이는걸 보아 무척 가깝게 다가왔다는것이 알렸다. 자칫하면 대궐의 바깥경비를 서는 순경들이나 왜병들에게 걸려 문초를 당할번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다 섬찔했다.

큰일을 앞두고 내가 무슨 망동을… 수진동으로 가려면 대궐문쪽이 아니라 벌써 저쪽에서 꺾어들어 경회루못가를 한켠에 끼고 에돌아가야 하는데 일이 어처구니 없이 되었다. 허둥지둥 되돌아 빠져나와 다시 걸을 때는 등골에 땀이 다 났다. 방금전에 남대문을 꺾지르며 안평대군이 썼다는 남대문의 현판을 올려다 본것같은데 언제 벌써 여기에 왔을가. 도무지 그자신도 알수 없었다. 그의 하숙에서 북악산을 등에 지고 경복궁의 곁에 있는 수진동 안해하숙까지는 서울의 남쪽끝에서 북쪽끝이라 할 때 먼 거리지만 오늘 그는 조금도 먼줄을 몰랐고 북악산에서 내려부는 차거운 동지달바람을 맞받아가면서도 추운줄을 몰랐다. 낮익은 집들, 추위에 별스레 빨라진 사람들의 왕래, 여느때엔 하찮던 자연의 모든것들까지 다 유정해진다는 최후의 감정도 없었다.

토끼꼬리만 한 겨울해는 갈 길 바쁜 나그네처럼 인왕산너머로 쑥 사라져버리고 소리없이 기여든 어둠은 잠간새 모든것을 검은장막으로 폭 덮어버렸다.

제명은 안해가 들어있는 하숙집임을 알려주는 《…수진동 20통 7호 전XX》 문패가 붙어있는 대문을 저만치 보며 걸음을 멈추었다. 결혼한지 4년밖에 안된 안해. 《여보, 거 있지요.》하는 평안도특유의 애정에 찬 안해의 음성이 벌써 귀에

들려오는것만 같다. 문득 소식을 전해듣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당한 일이 떠올랐다. 그가 거사기회가 왔다는 소식을 들은것은 송도에서였다. 드디어 때는 왔고나! 너무나 애타게 고대하던 시각의 도래로 한시가 급했다. 기차를 기다릴경황이 없어 제잡담 떠났는데 로상의 객주집에서 하루밤을 묵게 되었다. 서울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꽤 큰 모자객주집이었다. 온종일 발고생을 시킨뒤여서 저녁을 치르자바람에 땀아떨어졌다. 꿈에 그는 인적없는 외따름한 곳에서 뜻밖에 리완용과 단둘이 맞다들었다. 버르고 버르던 일이란 정작 닥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긴장해지는 법이다. 실패가 없어야 하기때문이다. 아무렇지도 않았다. 마음속으로는 벌써 열백번도 더 처단해치운 놈, 그런놈이 아직 살아 나돌아치니 분노역시 열백배로 더 컸다. 놓쳐서는 안된다! 두 어걸을 좀더 다가섰다.

《아직두 네놈이— 하여간 잘 만났다. 오늘은 네놈의 진짜 장례날이다. 백번이구 천번이구 죽여치울테다. 이노움!》

추상같은 소리를 내지르며 범처럼 무섭게 달려든 그는 가슴에 품고 다니던 날이 선들거리는 비수로 단숨에 놈의 목통을 쿵 찢었다.

《으악!》

자지러진 비명소리 그 순간에 《만세!》 환성도 터쳐올랐다. 그런데 그것은 순간일뿐. 웬일인지 두번 세번 이쪽저쪽 마구 찢러대도 놈은 죽지도 넘어가지도 않았다. 허수아비를 찢든듯이 찢리는 것으로 끝났다. 정말 속상한 일이었다, 놈은 슬슬 뒤걸음쳤다. 내 빼려는구나!

《어디루—》

제명은 코가 대일듯이 더 바투 따라서며 젖먹던 힘까지 합쳐 최후의 일격을 가했다.

《아이쿠!》

낮선 비명소리가 일었다.

《어— 어— 이 사람이 …》

뒤끝에 벼락같은 욕설이 터졌다.

《이, 이놈. 이게 무슨 망동이나. 어른앞에 미쳤느냐, 이놈》

번쩍 눈을 뜬 그는 아연해졌다. 세상에 이런번이라구야. 꿈결의 헛손질이 그만 철썩하고 곁에 자던 중늬은이의 면상을 후려갈긴것이다. 상투바람에 자던 웃갓한 선비였는데 천둥같이 화가 나서 펄펄 뛰며 줄욕을 퍼부어댔다.

《에끼, 이 불법무도한놈—》

입이 열인들 무슨 할 말이 있으랴.

《존장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

《상투쟁이》 앞에 무릎을 꿇고 노전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고개를 숙이고있던 그는 하도 당황한김에 꿈의 사연을 그대로. 날날이 아뢰었다.

《뭐라구? 크게 말하게. 씨원히 듣게스리. 무슨 사내의 목소리가 그런가?》

처음은 맛있게 않게 즐겨보던 《상투쟁이》가 말을 끝냈을 때는 텅져나듯 몸을 숙구치더니 손을 쭉 뻗어 벽에 걸어놓은 의관을 와락와락 벗겼다. 갓이며 두루마기며를 다 몸에 걸치고나서는 옷매무시를 바로 했다. 《미친놈》과 더는 상종하기 싫어 다른델 찾아 가려는게구나.

그런데 그는 재명과 다시 마주 앉았다. 재명을 쳐다보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번쩍거렸다.

《내 눈이 멀었소. 그런 사람인줄 몰라보고 험구까지 막 했으니. 어떻게 용설 빌어야 할지 모르겠소.》

《예?》

재명은 너무나 뜻밖의 말에 당황하여 허둥거리었다.

《꿈에라도 그랬으니 얼마나 장하오. 내 비록 촌구석 생장의 볼풀없는 선비오나 그만한 례의쫘는 아는 사람이요. 정말 속이 씨원하오.》

그는 팔소매로 눈물을 쭉 문지르고는 중노미를 불러 술상까지 차려오게 하였다.

《자고로 의인지사를 대접하는건 이 나라 백성된 도리요. 사양치마오.》...

인성도 그 선비처럼 생각해준다면 얼마나 좋으랴. 인성은 안해의 이름이었다. 발걸음은 쉽게 옮겨지지 않았다. 차라리 안해에게 모든걸 말해준다면... 그러면 가는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을까. 사랑하는만큼 믿고싶은 안해였다.

《여보, 왜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지 당신만은 알아야 하오. 고통두 이겨내야 하구.》

하며 힘도 주고...

이제는 알게 모르게 많은걸 눈치챘을 안해였다. 그럴가봐 그가 서울로 허둥지둥 뒤따라왔을 때

《여보, 당신은 공부하는 학생이요. 난 온전한 일자리를 구해보자고 동분서주하는 몸이요. (그는 안해앞에서 늘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 찾아오는 사람들때문에 당신의 글공부가 지장받을가봐 큰 걱정이요. 내가 직업을 구할 때까지 헤여져있읍시다. 당분간만...》

하고 억지다짐으로 갈라져있었는데 언젠가 안해가 조심히 이런 말을 했다.

《아녀자가 사내들의 일을 간참하면 재수없다고 하겠지만 아무쪼록 몸을 조심하세요.》

지금 생각해보니 의미심장한 말이었다.

아니! 재명은 역세계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런 아픔도 이겨낼 각오가 없이 어떻게 가슴에 품었던 비수들까지 꺼내어 서로 마주대고 《나 리재명은》, 《나 아무개는》 하는 엄숙한 맹약을 하고 거사게 나설수 있었으랴. 사연을 말해줄수도 없었다. 일이 터지면 홀로 얼마나 큰 아픔과 슬픔을 당할 안해인가 오늘 하루 밤만이라도 그것을 덜어주는 심정에서 안해를 기쁘게 해주어야 하였다. 가자, 사나이답게 그래서 안해를 만나지 않고 곧추 가려던 길을 돌려 예까지 찾아 온것이구.

《찌꾸덩—》

대문을 힘있게 열어제끼며 결심을 더욱 쇠덩이처럼 굳히었다.

《오셨군요.》

방안에서 그를 맞는 안해의 목소리는 예나제나 변함없는 무척 반가운 소리였다. 하지만 가냘팠고 낫색도 어둡다. 생각타일가.

《어디 아프오?》

《안요. 저 ... 시장하시겠네.》

안해는 재명을 향해 더 밝게 웃으며 저녁상을 챙겨오려고 부엌으로 나가려 한다.

《그만두오.》

재명은 안해의 손을 다정히 잡았다.

《오늘은 밖에 달이 밝소. 함께 저녁일랑 나누며 거닐지 않겠소?》

자기로서도 미처 생각지 못한 말이 불쑥 나갔다. 말을 하고보니 이 엄동설한에...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 들지만 늦출수도 당길수도 없는 이 밤에 그는 안해를 위하여 무엇이건 해야 하였다.

《전 ... 먹었어요.》

안해는 선자리에서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한다.

함께 살며 처음 거절당하는 청이었다. 가슴은 아물었던 상처를 다시 헤집듯이 쓰리고 아프다. 얼마나 그런걸 바라던 안해인가. 그러데도... 인차 생각을 달리했다. 안해를 위해서는 빨리 떼야 할 정이었다.

《그럼 바람이라두 쏘이자구.》

물러설수는 없었다.

안해는 그를 잠깐 바라보더니 무엇을 생각했던지 몸단장을 하고나서 따라나섰다.

종로에까지 길게 늘어진 야시장에 《10리장》이라할만큼 길고 없는게 없는 장거리였다 재명은 오래간만에 동부인을 하고 동대문야시장을 걸었다. 이밤따라 생활의 줄기찬 숨결이 강하게 느껴지고 그것이 재명을 유혹하는듯도 하다. 등불을 내걸고 싸구려소릴 힘차게 지르는 구멍가게 장사치들, 뚝양푼이며 지배기며 음식그릇들을 그리안고 퍼더버리고 앉은 녀인들, 등불의 바다, 인파의 바다, 그래서 마음이 쓰렸다. 정다울수록 서글퍼지는 땅, 왜적이 날치고 역적이 날치는 빼앗긴 내 땅.

문득 그는 곁에 안해가 있음을 새삼스러이 의식하자 래일의 거사가 벌써 다가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별의 아픔과 사나이의 분노를 감추고 안해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듯이 다정히 말하고 웃어야 하는 지금의 이 《거사》. 어찌보면 이 《거사》는 닥쳐올 래일의 거사보다 더 어려운 거사가 아닐가.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렇다! 나도 이밤만은 안해에게 극진한 한남편일뿐이다. 그는 안해가 들으란듯이 흥얼흥얼 《한양십영》을 내리외웠

다. 그가 처음 서울에 왔을 때 인성의 하숙집 주인인 전씨가 일러준것을 외워둔것이었다.

《장의심승, 제천완월, 반송송객에 목역상화, 어... 그렇지. 전교심방, 마포범주, 흥덕상화, 립석작어, 종가관등이라...》

그가 어찌나 너스레를 떨었는지 그림자처럼 조용히 따르던 안해가 영문을 몰라 눈이 켜해서 보았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반가왔다. 옥문처럼 굳게 닫혔던 안해의 입이 드디어 열린것이다. 더욱 흥을 돋겼다.

《이건 한양십영이요. 예로부터 전해오는... 풀어말하면 장의사의 중구경, 제천정의 달구경, 반송정의 손님배웅, 남산의 꽃구경, 전교의 꽃놀이, 마포의 배놀이, 흥덕사의 꽃구경, 선바위의 낚시질, 종로의 연등놀이란 소리지. 그중에서도 종로의 연등은 정말 볼맛있었다오. 음 2월보름 종로에 등불내건 광경인데 그게 어찌나 볼만했던지 성종대왕의 뭐 된다는 월산대군이란 사람 안국동이 자기 집 서쪽원에다 지은 풍월정에 그걸 노래한 시까지 써붙였다오. 그 연등놀이가 이 밤에 펼쳐진것갈소. 좀 보우. 쪽—》

재명은 싱글벙글 웃으며 안해를 보다가 또 한번 능청을 떨었다.

《여보. 저자에 와서 눈요기만 하겠소. 무얼 좀 먹을가?》

본의아니게 안해앞에서 너스레를 떨러니 목소리도 남의 소리처럼 귀찮다.

《이거 ... 저거 ...》

재명은 어서 무엇이건 요구하라는듯 마주서 병글썩 웃으며 먹음직스러운 음식 몇가지를 짚었다.

안해는 고개를 숙이고 덤덤히 있을뿐이었다. 오늘은 왜 그럴가. 보조개가 움푹 패이게 깔깔 웃던 발랄한 성미는 다 어데 가고 판사람처럼.

《알겠어요.》

마침내 울리는 조용한 말. 허나 일은 판관으로 또 비틀어졌다. 안해는 숯불을 피우고 지글지글 갈비구이를 하는 음식장사에게로 앞서 성큼성큼 걸어갔다.

《술도 있겠어요?》

《물론이지요. 따끈히 데운 술에 갈비구이올시다. 주안으로야 그 이상 있나요.》

겹두루마기 차림에 남이 쓰다버린것같은 흰 휘양을 뒤집어쓰고 숯불을 후후 불어가던 신줄의 사내가 여부가 있냐는듯 수다를 떠다.

《크게 술 한잔 주세요. 안주도 넉넉히.》

주객이 바뀌운 《대접》이었다. 불시에 가슴이 격해왔다.

《거 밥주발을 주시오. 그거로 먹게.》

개다리소반우에 보시기와 뜨끈히 데운 한되들이 구리술주전자가 오를 때 재명은 보시기를 홀

집어 내려놓았다. 아직 술에는 《초학도》이나 오늘은 독으로 마셔도 성찰것 같지 않았다.

《자, 붓소.》

그는 안해앞에 밥주발을 쑥 내밀었다. 단숨에 쑥 내었다.

《히야, 거 리태백이 찹찹먹겠군.》

《갈비구이》와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물밖엔 난 봉어처럼 입을 짹짹 벌리지만 안해는 한점의 웃음도 한마디의 말도 없다. 창백하게 보이는 동글가름한 그의 얼굴만 이렇게도 저렇게도 보인다. 술기운이 오르는 모양이구나. 취하는체하고 물어 봐야 한다. 가슴이 답답하여 견딜수 없었다.

《여보, 무슨 불쾌한 일이 있소? 나한테 불만이라도... 왜 그렇게 시무룩해하오? 난 기쁘데. 당신과 동부인을 하며 마시는 술이래서 난 정말 달게 마셨소. 그것두 밥주발로...》

술타인지 꺼내기 힘든 말들이 스스럼없이 쑥쑥 나왔다.

《안예요. 공연히 그랬어요.》

비로소 조용히 피어나는 안해의 웃음. 어딘가 강인한 모습도 엿보여 명절처럼 기쁘고 힘을 주는 웃음이었다. 벌써 그래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소, 원참. 몸이 기우뚱거렸다.

《하. 내썬 좀 보지. 어- 어- 걸음이 같지자로 왔다갔다하네. 이걸 좀 보우, 이거, 이거...허허허.》 재명은 마음이 기꺼워 일부러 더 이쪽저쪽 비틀거리며 보란듯이 안해를 향해 크게 웃었다.

포근하고 따뜻한 손길이 몸에 느껴왔다. 안해가 그의 팔을 낀것이다.

《넘어지겠어요.》

유령처럼 맴돌며 시시각각 괴롭히던 침묵은 가뭇없이 사라졌다.

《가자요. 선주후면인데 가서 국수도 먹고 오그래랑 많이 들어간 팔죽도 먹자요.》

안해는 재명이 하고싶은 말을 다 알고있는듯이 제가 다 해버렸다. 어딘가 결괐가 느껴지는 말이여서 더욱 기뻐다. 굳세야 하오, 내가 없을 때 불행앞에서, 또 나라와 겨레를 위한 일에서.

《그러자구.》

재명은 상상의 신기루에라도 가닿은 심정이였다.

《이젠 돌아가자요.》

종로를 한바퀴 빙 돌고나서 하는 안해의 그 말에 재명은 불쑥 거사라는 큰길에서 아득히 멀리 벗어난 자기를 의식하였다. 방금전까지의 일은 한바탕의 즐거운 꿈이 아닐가. 객주집에서처럼. 안해와 마주보며 함께 있던것은 자기의 허울이고 재명은 지새는 이 밤과 반대로 자기를 향해 바싹 바싹 다가드는 거사를 생각했다. 어제에 이어 지금까지 머리속에서 백번도 더 익힌 교회당의 생김새며 지세였지만 또다시 미혹한 생각이 든다. 객주집에서나 대궐문앞에서와 같은 실수가 다시

없다고 어찌 장담하랴. 천재일우의 거사였다.

《먼저 들어가오. 내 한가지 잊고있었소. 명동에 사는 친구가 만나자던 일을…》

그는 프랑스코회당에 다시 가볼 결심으로 안해에게 거짓말을 하며 그의 등을 떠밀었다. 그리고 속으로 빌었다. 오늘밤도 뜻대로 안되는구려.

안해는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기결에 더 바싹 붙어섰다.

《같이 가자요.》

그렇게 할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남의 의심도 덜고 단념했다. 사나이들이 하는 일로 녀인들까지 고생시킬수 없다는것은 그의 지론이었다.

《세상엔 사내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아녀자가 할 일이 따로 있소. 내 일에 대해 알려고 하지 말고 당신은 공부와 가사에만 전심하오.》

늘 그가 안해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였다. 더욱이 안해의 얼굴은 새파랗게 얼어있었다.

《안되오.》

딱 잘랐지만 안해는 막무가내였다. 끝내 따라나섰다. 그를 보는 재명의 가슴이 또 무엇에 쿡 찢리운듯 아프다. 그 애정이 헤아려질수록 이 밤에 안해에게 기울이는 자기의 사랑이 너무나 보잘것없이 느껴졌고 안해를 위한 자기의 일이 끝나지 않았음을 느꼈다.

《가자구.》

이번엔 재명이 안해의 팔을 억세게 끼었다. 고맙소.내 당신의 그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가겠소. 마음이 든든해졌다.

재명은 안해와 함께 남산기슭의 명동으로 갔다, 교회당주위를 여러번 뱅뱅 돌았다. 남대문을 등지고 서서 교회당의 정문과 앞마당까지의 거리, 인력거가 기다릴 장소와 리완용이 빠져나갈 길들을 눈에 새기였고 그 길들을 실지처럼 걸어도 보았다. 남산기슭의 새로 낸 길을 따라 걸으며 교회당의 뒤쪽과 옆쪽문까지 눈에 익히고났을 때는 지금 당장 리완용의 모가지를 손으로 비틀어잡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이놈, 더는 용서치 않겠다! 그 순간 그는 아차 하고 또다시 자신을 후회했다. 이제껏 동부인을 한다는 노릇이 안해를 까맣게 잊고있었던것이다. 안해는 저만치 떨어져서 버림받은듯이 홀로 서있었다. 재명은 달려가 그의 손부터 잡았다. 얼음덩이처럼 차거웠다.

《여보, 출지.》

그래도 안해는 내색을 안했다.

《안요.》

《속이누만. 손이 이런데두.》

《그래두 출지 않아요.》

《그 친구 집이 이 어방 어디라는데 통 모르겠는걸.》

거짓말까지 해야 하는 그여서 안해에게 더욱 죄스러웠다.

후날에 날 많이 욕하오. 인정사정 없는 사람이

라고. 잃어버린 생활을 되찾는 의미에서 좋은 사람을 다시 만나구.

《여보.》

잠자리에 들어 고드름처럼 뽕뽕 언뎀이 거의 녹아 잠을 청하려 석유등을 후 불어 끄려는데 안해는 이렇게 부르며 재명의 가슴으로 더 파고들었다.

《끄지 마세요.》

문득 안해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흐느낌소리. 재명은 안해가 터져나오는 오열을 참느라 이불귀를 막 울고있는것을 보았다.

《여보. 왜 그러우? 잡자기 …》

가슴이 무너앉는듯이 철렁했지만 재명은 내색할수 없어 애써 참으며 아무렇지도 않은듯이 심상히 물었다.

《아니 … 됐어요.》

그는 무슨 일인지 말없이 일어나 자기의 책보를 와락와락 헤치고 종이 한장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재명의 녹았던 몸은 다시 뽕뽕 얼어 들며 딱 굳어졌다. 그랬었구나! 그것은 리완용의 거처지인 남녕위궁의 락도였다. 이즈음 높은 백성들의 징벌이 두려워 대궐부속건물인 남녕위궁에서 쥐새끼처럼 숨어살고있었다. 어찌나 상세히 락도를 그렸는지 놈의 심복들이 드나드는 《개구멍문》까지 다 그려져있었다. 그 《개구멍문》은 놈의 심복들만 알고 도적교양이 처럼 드나드는통에 경비가 허술하다는것도 이미 알고있는 일이었다. 구체적인것은 아직 다 알수 없었지만 숨박꼭질은 끝났다. 스치고지난줄 알았던 그 순간은 급소를 찌르며 너무나 불쑥 찾아왔다.

《당신은 알고있었소?》

안해는 말대신 고개를 끄덕이는것으로 대답을 대신 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몰랐고 남남처럼 서먹서먹해졌다. 이제는 《견우》와 《직녀》처럼이 아니라 아득한 이쪽과 저쪽에서 만나는 그들이었다. 툭 터놓고 바로 말해주자. 남기고싶은 부탁까지도. 이것 역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수 있는 대장부의 도리가 아닐가. 그는 지금 자기의 걸음이 결코 속이고 갈수 없는 걸음임을 새삼스러이 자각했다.

《여보!》

재명이 비장한 마음으로 말을 떼는데 안해가 재빨리 조그만 두손으로 그의 입을 꼭 막았다.

《여보… 다… 알아요. 당신이 … 얼마나 사나다운 길을… 가려는지…》

안해는 울음을 짓씹으며 한동안을 있다가야 말을 시작했다. 결혼하자 인차 자기의 행동거지와 말, 자기와 외부사람들과의 분주한 접촉에서 거사를 알아차린 일, 가슴을 조이는 불안속에 늘 있으면서도 자기의 결심과 분노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견디던 일, 어떻게든 자기를 돕자고(그는 거사를 은밀히 해치우는것으로 생각하였을것이

다.)서울로 찾아오던 일, 짐이 되면 안된다는 생각에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갈라져있던 일... 들을수록 눈물겹게 고맙고 외면할수 없었다. 더 주고싶어도 줄수 없는 사람, 중도에서 끊어질 사랑이어서 그는 누구보다 안해를 사랑했다. 아니, 불행한 이 땅의 너인들모두를 동정했고 그들을 보며 사나이의 자책을 통절히 느꼈었다. 그가 머슴 살던 상원땅의 운도사집에 침을 뱉고 너같은 놈 보란듯이 학교라도 하나 세우자고 길을 떠난 것도 자기와 한마을에서 먼 친척집에 외롭게 얹혀살던 애인인 인성의 향학열을 보며 배우고싶어도 배울수 없는 그와 같은 불쌍한 너인들의 서글픔을 느꼈기때문이었다.

《너인들도 사내처럼 큰 소리로 글을 읽는 신식 학교를 세우리라.》

상원땅을 뜨는 그의 가슴에 억세게 자리잡은 맹세였다. 인배로인의 소개신을 가지고 남대문밖 중림동에 찾아가 리완용을 만났을 때의 기쁨은 또 얼마나 컸던가. 한마을에 살던 량반집 서자인 인배로인은 서울의 안국동에서 리완용과 함께 자란 사람이었다. 그때 리완용은 양아버지의 상을 입느라 궁내부 특진관을 사직하고 려막생활을 하고있었다. 그것이 대결안의 비밀을 왜놈에게 넘기느라 한 짓이었음을 안것은 그로부터 썩후인 미국에서였다.

《잘 생각했네. 바로 그결세. 군과 같은 열혈 청년이 교육을 진흥하고 백성을 깨우치는 선각자가 되어야지. 암, 그렇말구.》

리완용이 그의 걸음을 극구 찬양하며 그러자면 미국에 가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대한이민회사》에 소개신까지 써줄 때 그는 너무 감지덕지하여 한달음에 그리로 달려갔었고 성큼 이민배에 몸을 실었었다.

안해의 눈물겨운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끝없는 번민끝에 전 모진 용단을 내렸어요. 당신에게 그놈을 쥐도새도 모르게 해치우고 빠지는 길을 찾아주자고요. 물론 이것은 당신이 할바 이겠지만 내 힘을 더 보태면 그만큼 당신이 쉬울 것이고 하루빨리 불안한 생활을 끝장내고 원앙처럼 재미있게 살아보려는 저의 소원도 성취될테니까요. 몰래 수소문을 해가며 안국동이며 남대문밖 중림동이며 그놈이 살았다는데는 별의별델 다 가보았답니다. 끝내 알아냈어요. 놈의 심복들이 몰래 드나드는 《비밀문》도요. 그 문은 누구도 모르리라곤 여겼는지 경비가 허술했어요. 자, 여기예요.》

안해는 락도의 바로 그 곳을 가리키고나서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이 저에게 왔어요. 너자들의 감각은 이런 때 사대들보다 썩 예민하답니다. 허둥거리며 죄스러워하는 눈길이며 밤중에 날 위하지 못해 안타까와하는 마음을 보며 드디어 때가

왔음을 알았어요. 락도를 내놓으려니 각오했던 일이지만 속이 떨렸어요. 방정맞을 소리지만 왜 서인지 당신이 그 일로 꼭 잘못 될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바재이다가 못내놓고 따라 나섰는데 칠칠야밤에 교회당 주변으로 가서 하는 당신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몰래 해치우려는 기색은 조금도 없었으니깐요. 여보. 어때요. 제 짐작이 틀려요?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하세요. 예? 여보, 사대답게 갈 길을 가세요. 막지는 않겠어요. 다만 몸만은 보존하세요. 제가 있는한 당신은 잘못되면 안돼요. 저의 부탁은 이 한가지입니다. 이걸 결심하느라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아세요? 전 너자예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믿어요. 당신의 뜻이 성취되면 우리 깊은 산속을 찾아가 이름을 숨기고 원앙새처럼 살자요. 당신은 원이라면 저는 양이에요.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안해는 재명의 앞에 남녕위궁락도를 더 바싹들이 대며 그의 무릎을 애타게 흔들었다. 안타까움과 기대로 고추처럼 붉어진 얼굴.

재명은 두눈을 감았다. 아, 얼마나 기특하고 사랑스런 안해인가. 그럴수록 온몸에 파도처럼 엄습하는 후회. 차라리 인성을 안해로 삼지 않았더라면... 친구 꺾선생이 원망스럽기 그지없었다. 미국에서 거사결심을 하고 온탓에 인성을 외면하려는데 속심을 모르는 그는 펄펄 뛰며 재명에게 해보았다.

《이제는 그가 싫어졌다는젠가? 그가 삼년석달 자를 얼마나 기다린줄 아나. 사람이 그럼 못써. 오뉴월 음식변하듯...》

어느날 그가 찾길래 그의 집에 들리니 무작정 방안에 밀어넣고 밖으로 쇠를 잠그어버렸다. 그 안에는 인성이 있었다. ...

다는 몰랐던 안해, 그래서 더욱 사랑스런 그. 동지들인 김정익과 동수, 병록의 권고도 그랬다.

《재명군, 왜 꼭 목숨바쳐 그 일을 하겠다는거요. 죽여치우면 되는건데. 당초부터 거사방침이 그렇게 된거구.》

어제밤 최종거사합의때도 김정익은 눈섭까지 곤두 세우며 안타까와 하였다. 평양부 대동강면 1리에서 국수집을 운영하며 식의주의 걱정을 모르는 그 매국역적들과는 사생결단고 싸우겠다며 거사에 함께 나선 동지였다. 그래서 물리치기가 더 어려웠다. 서적종람소에서의 1차회합과 평양성 안 개정동에서의 2차회합 서울에와서의 여러차례 회합들에서 거사는 그렇게 토의되었었다.

《이거면 리완용놈을 귀신모르게 열번두 죽일수 있소.》

단총 10여자루와 탄환이 백여발 구입되었을 때 그도 동지들도 모두 일이 다 된듯이 기뻐하였었다.

그런데 두달전 온 나라를 들었다놓은 안중근렬

사의 충성에 그는 다시 태어났다. 아이로가 아니라 어른으로.

...그날 아침 재명은 락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길을 걸어 동대문장으로 갔다. 제손으로 안해에게 필목을 사주고싶어서였다. 거사를 실행못하는 쓸쓸한 마음을 그렇게라도 달래고싶었다. 그런데 거기서 천만뜻밖에 할빈의 소식을 듣게 될줄이야. 온 장이 명절처럼 들끓었다.

《이등놈이 똬졌대요.》

《그놈뿐인줄 알아. 술한 왜놈이 함께 황천갔다 드라!》

아이도 아낙네도 늙은이도 모두 열이 올라 그 이야기였다. 물건을 사라고 소리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사자고 하면 그저 주는 사람이 태반이었다.

《옛다. 그냥 먹어라.》

《가져가시우. 오늘같은 날에 돈은 무슨 돈》

재명의 마음이라고 다름바 없었다. 다른것이 있다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그가 대신한것 같아 죄스러울 뿐이었다. 재명도 옛말의 도사처럼 흰 수염을 길게 드리운 한 로인에게서 필목 한조를 그냥 받았다. 상원땅의 인배로인처럼 얼굴이 너부죽한 무뎠던 로인이었다.

《글공부를 하려는것 같은데 그냥 가져가게. 장차 뜻을 성취하게.》

이때 로인결에서 음식장사를 하는 두셋의 아낙네가 법석 고아똥다.

《애고, 그런 펄펄나는 어른이 이등놈을 쏘아죽이고 달아날 노릇이지 왜 그냥 있다가 잡혔을가?》

《그냥 있은게 아니라 죽어자빠진 그놈의 몸통일 발로 꼭 디디고 만세를 크게 외치고있었다 우.》

《아무튼 잡히기는 왜 잡혔을가? 왜놈들은 그분이 무서워 다 달아났다는데...》

《백수로인》이 고개를 옆으로 꺾 돌리며 벼락같이 소리를 내질렀다.

《소갈머리없는것들이란. 그런분이 잡히거나 죽는게 무서우면 그런 큰일을 했겠나? 온 천하에 조선의 얼굴 보여주자고 그랬지. 그제 얼마나 강한 행동이야.》

그 말에 아낙네들도 이구동성으로 《정말》하고 무릎을 쳤다.

재명은 그들앞에 부끄러워 쥐고있던 필목을 슬그머니 로인결에 도로 놓고 하숙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말이 꼭 자기를 비웃는것 같았다. 그렇다! 만고역적을 몰래 죽일수는 없다. 그것은 자객의 행동과 다름바 없다. 내 그놈을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처단하여 안렬사의 뒤를 깨끗이 이으리라.

그가 새로이 다진 맹세였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거사를 함께 맹약한 동지들의 권고인데 받아 들일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스럽게도 그 권고를 받아들일수 없는 저의 마음은 더 괴롭습니다. 저라고 왜 살고싶지 않겠습니까.》

재명은 한참만해야 다시 말을 이었다.

《리완용은 만고역적입니다. 이놈을 나라법도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우린 시시한 자객에 불과합니다. 전 자객이 되고싶게 않습니다. 죽더라도 우리 나라 법관의 자격으로 국법대로 처단하렵니다. 두번다시 이같은놈이 우리 강도에서 나오지 못하게 저의 분노 아니 겨레의 분노가 용납치 않습니다.》

그는 동대문장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하였다.

정익이 재명을 꼭 그러안았다.

《리동지, 고맙습니다. 내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러나...》

《김동지, 일없습니다, 우리야 사나이가 아닙니까.》

허나 지금 안해의 호수같은 맑고 그윽한 눈애고인 절절한 애원의 눈물을 보는 순간 그의 고개는 제것이 아닌듯이 저절로 끄덕여졌고 두손은 으스러지게 안해를 품에 끌어당겼다. 아, 내 사랑! 이런 안해와 백년해로하며 남들이 흔히 말하듯이 검은머리 파뿌리가 되도록 살아보았으면... 그는 작별의 아픔속에 오래도록 안해를 품에 안고있었다. 함께 살아도 너무나 몰랐던 안해였고 굶어볼수록 사랑스러워 품에서 떼어놓고싶지 않았다....

《여보, 자자요.》

안해의 말에 재명은 자기로 돌아왔다. 석유등을 끄고 자리에 눕자 안해는 잠든듯 아무 기척도 없었다.

아마도 안해는 아무 대답도 없는 자기의 태도를 《무언의 긍정》으로 생각하는것 같았다.

나도 잘가. 잠이 울리 없었다. 대신 기다린듯 나두나두 일시에 눈앞을 가리며 떠오르는 모습들. 빙 둘러 서서 자기를 지켜보는것 같아 마음의 눈은 어느 한사람에게 지체할수 없다. 미국에 있는 서금누이, 상원땅의 인배로인, 객주집의 《상투쟁이》 선비, 동대문장의 《백수로인》. 이제껏 자기의 마음속에 새겨진 유명무명의 사람들... 천이던가 만이던가. 얼마전까지 안해와 이야기를 나눈것은 그와 꼭같은 또 하나의 리재명이인듯 하다. 가슴속에서 사랑이 끓어번져 마음이 약 해질 때마다 분노의 길로 떠밀던 그들이었다.

추억은 다시 나래를 펴고 미국의 락화생농장으로 그를 이끌어갔다. 그가 꿈을 안고 기쁨속에 찾아간곳이었다. 억누를길 없는 분노속에 주먹을 그러쥐고 떠나 오기도 한곳.

...

가오가오 나는 가오
님을 두고서 나는 가오

가기는 가오마는
정을랑은 두고가고
...

지척인듯 들려오는 노래소리는 땀별에 저고리 잔등을 땀으로 함뱌 적시며 김을 매는 서금의 노래였다. 《역적죄》를 짓고 도망치는 아버지를 따라왔다는 처녀, 재명보다 6살 우인 인물도 매끈한 처녀였다.

《제길헐, 여긴 뭐 역적놈들이 활개치며 사는 세상인가. 그 주제에 뭐이 좋다고 정이요 낫대가 리요. 쫓쫓...》

동포들도 그를 미워하였지만 그를 보는 재명의 눈에선 불이 쏘아져나왔다. 그가 학교설립자금을 뭉쳤다고 미친듯이 일할 때였다.

서금은 조금도 주접들어하지 않았다. 아무렇지도 않은듯 오히려 자기쪽에서 역겨워하는듯 목청을 더 뽐아댔다.

《노랑머리나 감동일 낳으려는게지.》

그가 스무살을 펴 넘겨 나이로는 《로치녀》 소릴 듣지만 시집갈 꿈도 안꾼다고 총각들은 이렇게도 빈정거렸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미워하지만 그 역적네 수지도 모르는 처녀는 왜 자꾸 말을 걸어오는지. 둘이 다 악을 쓰고 돈을 번다는데서일가. 그 역시 일은 죽을등살등 모르고 했다. 하지만 싫었다.

《누가 날 동정해달랬소?》

언젠가 면전에서 모욕적으로 말했지만 그는 탓할 대신 생글생글 웃었다.

《내가 그렇게 싫으니?》

끝내 그에게 무릎을 꿇었다. 숙소에서 70~80리 떨어진 황무지를 개간하는데서였다. 땀이 득실거리고 해가리울 나무 한그루 없는데다 미칠것처럼 배가 고프는 곳.

《강녕이 범벅이라두 배 툭 터지게 실컷 먹어봤으면 원이 없겠다.》

누우면 누구나 목은 먼지와 쥐똥이 와르르 《마른 버락》을 내리는 천정을 바라보며 넘볼처럼 이 말을 외웠다. 백번을 외우면 소원이 성취된다고 어처구니 없는 말까지 했다. 그런데 정말 《소원》이 성취되었다. 여기에 서금이 먹을걸 이고지고 재명을 찾아왔다. 줄창 땀별속을 오느라 숯덩이처럼 까매진 얼굴, 체소한 몸은 더욱 좋아들어 아이를 보는것 같았다.

《배고랐지. 좀더 빨리 온다는게.》

체고생 같은것은 애당초 생각밖이었다.

《누이.》

저도모르게 나간 말이였다. 그들의 말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누인 나쁜 사람같질 않은데 왜 집안은 역적집안이요?》 그러자 서금은 웃음을 지으며 반문했다. 어딘가 조소가 느껴지는 웃음이었다.

《넌 정말 학교를 세워보겠다구 돈을 벌러 여기 왔니?》

재명은 뺨이 났다. 그게 어쨌단 말인가.

《비꼬는거요? 남을 위하자는건데 ...》

서금은 여전히 웃었다,

《싸우겠니. 그만하자. 세월이 가면 다 알게 될텐데.》

미국땅에 《을사5조약》소식이 왔다. 다른 사람은 망국의 아픔에 땅을 치고 통곡을 터뜨렸지만 재명은 너무나 어이없어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리완용! 누구보다 충신인줄 알았던 네가 매국역적이라니... 미국에서 그가 학부대신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이제야 조정에 대신다운 사람이 들어왔었다며 제일처럼 기뻐한 재명이였다. 이놈, 두고봐라. 떠나올 때는 운도사가 보란듯이 학교를 세우려 했지만 현재는 네놈이 보란듯이 서울 한복판에 궁궐같은 학교를 세우리라. 더 소처럼 일했다. 안타까운것은 마음과는 달리 돈이 벌여 지지 않는것이였다.

어느날 밀린 품삯을 받다가 농장주에게 들이댔다. .

《이거야 너무하지 않소. 우리가 노예요 뭐요? 그 간 샅돈이 왜 이렇게밖에 안되는가 말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일은 더 험하게 시키고...》

터무니없이 샅돈을 톡 잘라먹은 농장주측의 처사가 억울하여 바로 회계를 시키려 하였다. 자기보다 남을 위해서 더욱 가만있을수가 없었다.

농장주는 수판알을 잘그라거리다가 새노란 눈알을 밤고양이처럼 반득거리며 어서 해볼테면 해보라는듯이 속이 뜸뜸해하였다.

《그게 웬 말입니까? 매우 불리합니다. 당신네들 인젠 어데 갈데나 있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보다 돈이 적은걸 나무라지 마시오. 그 사람들은 제발로 왔지만 당신네는 선돈을 주고 사왔습네다.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는지 압네까. 오물청소나 뒤간청소라도 군말없이 하시오. 그게 밥탁이 떨어지지 않는 령리한 처삽네다.》

뭐라고, 우릴 사왔다고?! 리완용, 그놈이 날 팔아치우도록 알선했단 말인가. 분노와 수치로 몸이 불결에 선듯이 화끈거렸다. 그러니 그는 나라가 팔리기전에 벌써 왜놈한테 먼저 팔린 가련한 신세였다. 이민회사는 왜놈들이 경영하는 회사였다.

《에익-》

그는 벽에 세워둔 농장주놈의 개화장을 집어들었다. 자길 우롱하는 눈앞의 놈부터 박살을 내야 하였다.

《네놈부터 죽어라!》

그날 사람들이 달려와 뜯어말리지만 앉았던들 농장주놈은 개화장에 두드려잡은 올빼미신세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너무 분하여 식음을 전폐하고 며칠을 앓았다. 돈! 돈을 벌어야 학교를 세울게 아닌가. 서금은 매일 찾아왔다. 병이 나았을

때 서금은 그에게 공책과 붓을 내놓았다.

《이제부터 글을 배워야겠다.》

재명의 눈섭이 떠나갈듯이 춤을 쳤다.

《누인 룡담을 하우? 속에 불이 나서 죽겠다는데... 돈두 못벌며 한가하게 글이라니.》

《아니, 그럴수록 글을 알아야 돼. 절 알아야 하구. 글을 모르면 분풀일 못해. 사내구실두 못하구.》

이건 무슨 가을빼꾸기같은 소리야.

《난 모르겠소. 도대체 배우긴 누구한테 배우구...》

《내가 가르쳐주지.》

또 졌다.

《눈이 맞아도 별나게 맞누만.》

《제집이 후렸겠지.》

뒤에서 귀퀴한 소리가 돌아갔지만 그것은 아침 안개처럼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후 2년간의 생활은 서금이 그에게 친누이가 되어 자기를 알게 해주고 나라를 알게 해준 나날이었다. 《정미7조약》의 소식이 또 왔다. 리완용이 야밤에 이등놈의 집에 불리워가 밀지를 받고 다음날에는 《총리대신》의 거드름을 피우며 그 조약에 서명하였다는 소릴 들었을 때 재명은 너무 분해 머리를 싸쥐었다. 이 어리석은 놈아, 왜놈은 온 조선을 다 삼켜버리고 매국노는 더 팔아먹지 못해 애를 쓰는데 학교는 뭐 말라빠진 학교냐.

주먹을 떨며 서금에게 말했다.

《누이, 난 고국으로 가겠소.》

《왜 갑자기.》

《리완용놈을 죽여버리겠소.》

그 말은 서금이 말릴가봐 안하자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쑥 나갔다.

그런데 서금은 너무도 태연했다.

《정말?》

《더 못지 마오.》

서금은 먼길을 동행하여 바래주었다. 연두빛저고리에 분홍치마를 받쳐입고. 배가 떠나는 항구까지의 먼 로상에서 그들은 좋은 호텔에 들었고 마차도 1등마차를 탔다. 돈은 모두 서금이 부담했다. 재명이 돈을 낼라면 성을 냈다.

《사내들의 돈은 이런 시시한데 쓰는게 안야.》

작별할 때였다.

《재명아, 네가 드디어 내 원한도 풀어주려 나섰구나. 마지막으로 다시 보자. 나의 동생아...》

서금은 술한 사람이 보는데서 재명을 와락 꺼안고 슬피 울었다. 처음보는 그의 눈물이었다.

《뭐요? 그건 어떻게 하는 말이요? 혹시 리완용놈 때문에 누이네도.》

어떤 예감이 머리속에서 섬광처럼 번쩍했다. 서금은 엉엉 아이같은 울음을 울며 고개를 끄덕였다. 까닭을 말해주었다. 관리들의 업무를 감찰하는 사헌부의 장명인 그의 아버지는 이미전 리완용이 전라도 관찰사를 하던 시절에 남해를 돌아치던 왜놈군함의 함장인 해군중좌 사하꾸놈과 밀통하여 도안의 수비상태를 비롯한 중요비밀을 넘겨주었다는것을 알았다. 그는 이것을 임금에게 은밀히 진언하여 놈을 파면시키었다. 그런데 일

마후 왜놈이 쥐여준 돈을 뿌리며 궁내부 특진관이 된 놈은 이번에는 궁내부 수륜과 감독으로 들어 박혀 려탐군노릇을 하는 오에다꾸와 손을 잡고 대궐안의 비밀을 왜놈공사관에 넘겨주려 하였다. 궁내부는 왕실의 사무를 맡아보는 관청인 까닭에 그걸 밝혀 내기란 이만저만 힘든 일이 아니었다. 어느날 리완용이 대궐을 빠져나와 진고개에 있는 왜놈려관에 들어가는것을 본 그는 이 사실을 임금에게 알려주었다. 궁내부관리로서 왜놈과 허가없이 만나는것자체가 국법에 역적으로 밝혀져있었다. 그런데 일은 반대로 되었다. 리완용은 패당들과 짜고 서금의 아버지를 《모함죄》와 《역모건》에 걸어 엄벌에 처하게 하였다. 다행히 경상도해안에 나가있다가 소식을 들은터에 아버지는 그를 데리고 간신히 빠져나올수 있었지만 탈국하였다고 마음속 상처가 가셔지랴. 가슴에 맺힌 한으로 서금의 아버지는 폐인이 되었고 꿈 많던 서금의 운명은 날바다에 표류하는 일엽편주가 되었다.

《그걸 왜 인제야 말을 하오.》

《아니, 난 그 일을 영원히 말하지 말자고 했다. 네가 이 누이의 복수따위나 하는걸 바라지 않아서였어. 그랬으면 그제 무슨 사내겠니. 시시한 졸장부지. 현대 그놈이 그런 역적죄를 저지를줄이야. 너는 온 민족의 한을 푸는 길에 나섰구...》

서금은 본래의 자기로 돌아왔다. 생글생글 웃으며 재명을 보았다.

《재명아, 이것으로 우리 관계도 끊자.》

《누이, 그건 또 무슨 말이요. 헤지면 다라는거요. 예?! 피줄이 아니래서 그러우. 날 어떻게 보구하는 소리요.》

재명은 너무도 뜻밖의 말에 어쩔줄 모르며 소리쳤다. 몸의 한부분이 똑 떨어져나가듯이 아팠다.

《아니, 그런게 아니야. 네가 너무 돋보여서 그래. 너같은 대장부에게 어찌 나같은 초라한 누이가 당하겠니. 그런 사내라면 시집은 왜 마다하고... 내가 사람을 잘못보지 않았지. 요렇게 정들이자 헤어지는 널 좀더 위해주었더라면 마음이 이다지도 아프지 않을걸. 막 한스러워. 우리 동포들 중에 너같은 사내가 있다는것도 또 그런 사내를 한때나마 동생으로 두었었다는것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다. 하지만 사내가 사사로운 정에 매달리면 큰일을 못해. 그래서 하는 말이다. 부디 잘 가거라. 잘... 함께 갈수 없는 내 마음은... 더... 더 아프다.》

또 울었다. 그는 보짐을 뒤적거려 사품 몇개를 덜어내고 통채로 훔 안겨주었다.

《돈이다. 얼마 안되지만 사내답게 쓰거라. 우리 아버지의 마음도 여기에 남겼다.》

《누이—》

체소한 그의 가슴속에는 너무도 큰 애국의 마음이 깃들어있었다. 그러나 마다했다. 모름지기 이 돈을 위해 값나가는 가산까지 모두 팔아버렸을것이였다. 앞으로는 어떻게 살고.

《누이, 이러지 마오. 돈이자 사람인 여기서 날다주면 어찌겠다는거요.》

갑자기 차거운 그의 두눈이 매섭게 쏘아보았다.

《분노는 사내들만의것인줄 아니? 그 돈을 목숨에 비기겠나...》

《그래두...》

눈물에 가리워 서금의 마지막모습도 똑똑히 가려볼수 없었다.

《잘 있소. 누이.》

끝말은 울음에 먹히워버렸다. ...

그 서금누이가 곁에서 자기를 지켜보고있었다. 서금의 얼굴이 떠나지 않고있는데 그를 가리며 나서는 늙은이의 모습.

... 《수길이가 왔구나. 룡이 되어 왔어.》

방문을 활 열어제끼며 버선목바람에 마당으로 쿵 뛰어내려 달려나오는것은 인배로인이었다. 수길은 재명의 아명이었다. 미국에서 돌아와 상원 땅을 찾았을 때였다. 일찍 저세상으로 간 부모를 다시 보는것 같았다.

《아버님!》

목이 꺾 메여 아무말도 못하고 로인의 두손만 붙들고있었다. 아명속에 흘러간 이 땅의 나날은 악몽처럼 피로왔지만 그 아명속에 눈물겨운 사랑이 있었다.

《세상에 수길이같은 외톨뱅이두 있을가?》

동네사람이면 누구나 동정해서 하는 소리였다. 재명은 무우밀동같은 천애고아였다. 아버지는 1살 때 여의어 얼굴도 몰랐고 11살때 잃은 어머니는 파리한 병든 모습만 기억될뿐이었다. 퇴락한 랑반집 서자로 소박당한 어머니와 상원땅으로 쫓겨와 살아서인지 로인은 운도사네 머슴을 사는 재명을 끔찍이도 위해주었고 이 따금 마을의 불쌍한 아이들을 자기 집 사랑채에 불러다 글을 가르치며

《내 주머니에 돈이 생기면 서당이라도 하나 세우겠는데... 》

하고 입버릇처럼 외우곤 했다.

재명이 운도사집에서 뛰쳐나와 제판의 꿈을 안고 떠날 때는

《허, 세월두... 가거라. 그놈의 집에 처박혀 인생을 썩이기는 아깝지. 꼭 뜻을 이루거라.》

하며 로자와 리완용에게 도움을 바라는 소개신을 써주었었다. 눈에 흙이 들어가도 잊지 못할분이어서 환국 하자바람에 찾아왔던것이다. 평양성 안에 데려다 부모처럼 모실 생각도 하였다. 그는 자식이 없었다.

《두부두 앓구 닭두 잡소.》

로인은 부엌에 대고 훈시질까지 한다. 그만 큼 반가와했다.

《그러지 마십시오. 제게 좀 있습니다.》

《그런법두 있나.》

말려도 막무가내였다.

《허, 자넨 얼마나 기다렸다구. 리완용이 그런 노인줄도 모르고 글월까지 써주었으니 망녕이 들었지, 허... 그놈이 다리라도 분질러졌다면 발편 잠을 자겠네.》

본래 말수더구가 적은 로인이었다. 기쁠 때도 허... 슬플 때도 허—여서 동네별명이 《허령감》

이였다.

재명은 로인의 말에서 겨레의 아픔과 원성을 새삼스러이 느끼였다.

《그때 이제는 서당을 하나 세울만 한가?》

재명이 그간 일을 일추 말하자 로인이 묻는 말이였다. 그의 신색이 펴 달라졌으니 더욱 그런 기대가 가는 모양이였다. 재명은 대답을 피하였다. 그러나 마음속 대답은 컸다.

《꼭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살겠습니다.》

헤여질 때 로인의 말이 더욱 재명의 가슴을 끓여놓았다, 재명은 그에게 성안에 들어가 살자고 권고했다,

《친부모처럼 모시겠습니다.》

로인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싫네. 예서 죽겠어. 성안이라니 더 싫네. 임진왜란 때 우리 외견조상 한분이 게서 의병장으로 왜적들과 싸우다 잘못됐어. 난 그걸 한생토록 자랑으로 여겼구. 헌데 인젠 조상을 죽인 그 원수놈들이 성안을 제프락처럼 활개치며 돌아친다네. 자넨 봤겠지. 허, 통분한 일이야. 왜적이 날치고 역적놈들이 날치니 이야 어디 분해 실겠나. 나라법에 역적은 삼대를 멸살시킨다 하네만 멸살은 고사하구 〈충신〉이라구 돌아친다니 허- 나란-정말 망했어. 통곡할 일이지. 눈은 어떻게 감구. 허-》

마주서서 듣는듯이 귀전에 쟁쟁한 로인의 그 꺼질듯한 한숨소리. 그 다음 또 그 다음... 지금 만약 안해에게 그 사연들을 일일이 터놓는다면 자기 말이 아니라 그들의 가지가지 원성과 울부짖음이 피타는 절구가 개개의 목소리 그대로 터져나올것만 같다...

재명은 안해의 잠든 모습을 굽어보았다. 여보, 그래서 나는 물려설수 없소. 당신을 속이기까지 하면서두...

어느새 손이 지필에 닿았다. 조용히 잠자리를 빠져나온 그는 주인집 부엌마루에 앉아 안해에게 남기는 편지를 썼다.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바람에 석유등이 꺼질듯말듯 나풀거리고 붓이 얼어 들었지만 끝까지 썼다. 새 생활을 꾸리고 원앙새 부부가 되리라는, 1년간의 생활은 나쁜 꿈을 꾸것으로 치고 잊어버리라는 그런 용서를 바라는 글이 아니였다. 그런 말을 쓰도록 지금의 그의 분노가 허락치 않았다. 그것은 사랑하는 안해를 두고가는 남편의 말이기 전에 자기도 안해도 아니, 이 땅의 청춘이면 그 누구도 외면할수 없는 원한에 사무친 이 나라 겨레의 말이고 분노였다.

《...》

이 글이 당신을 쓰러뜨리는 또 한차례의 큰 아픔이 될수 있겠지만 맘 크게 먹고 끝까지 읽어주길 바라오. 당신도 알다싶이 ...》

많은 이야기를 썼다. 서금의 이야기와 객주집의 이야기, 안해도 잘 아는 인배로인과 동대문장의 이야기 ...

쓰고 또 쓰고싶은 하많은 그 이야기들이였다. ...

《...그래서 난 리완용을 그렇게밖에 죽일수 없

소. 아마 이 편지를 볼 때면 나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일수 있소. 걱정말고 곳곳이 살아주.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잠자리에 다시 들었지만 가슴은 분노로 세차게 고동치고있었다.

새날이 밝았다.

안해가 발그스레 곱게 물이 든 팔밥이 오른 밥상을 들여왔을 때 그는 간밤에 아무일도 없었던 듯이 썩웃음을 지었다.

《이거 팔밥이구만. 한그릇 더 먹어야겠소.》

《그러세요.》

재명은 안해가 보란듯이 농부처럼 숟가락으로 밥을 꼭꼭 눌러가며 목이 메게 밥술을 놀리었다. 안해는 그의 천연스러운 태도에 마음이 놓이고 즐거운지 그 사랑스런 볼우물을 지으며 생글거렸다. 자기가 꼭 돌아오리라 굳게 믿을것이다. 그래, 그렇게 웃어주. 그것이 당신에게 역적놈과의 싸움이야. 무자비한 싸움.

집을 나선 그들은 나란히 종로에 이르렀다. 헤어져야 하였다. 재명은 교회당으로, 안해는 학교로... 마지막작별이었다. 안해는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참, 이결에 모자과는 가게가 있지. 오늘저녁엔 모자를 척 사서 쓰고 당신앞에 단정한 학생으로 나타나겠소. 먼저 가요.》

재명은 자기가 학생복을 사서 입을걸 생각하고 (그들은 최종거사합의때 순경들의 의심을 피하고 행동에 편리하게 학생복들을 착용하기로 하였었다.) 이런 갑작 골까지 쓰는데도 안해는 자리를 뜨려 하지 않는다.

《그럼 함께 가자요. 물건보는거야 아무래도 제가 낫지요.》

동지들과 약속한 시간이 바짝바짝 다가오는 안타깝고 눈물겨운 시각이었다.

《공부는 어떻게거?》

《일없어요. 좀 늦으면 뭐래요.》

할수없이 생각을 달리했다. 학교에까지 데려다 주자.

《참, 내팔보지. 오늘아침에 학교쪽에 갈 일을 까맣게 잊고있었구만. 같이 갑시다.》

재명은 그제 무척 반갑고 바라는 일이기라도 한듯이 안해를 보며 빙긋이 웃었다. 함께 걸었다. 가슴에 쿵쿵 울려오는 안해의 단조로운 발걸음소리, 기나긴 그 밤은 아직도 계속되고있었다. 학교정문을 가까이 했을 때 교문옆에 매달아놓은 주먹을 두개 합쳐놓은것만한 종이 땡땡 서너번 울었다. 안해를 창가로 불렀고 때로는 이곳에서 그들의 상봉의 시각도 알리던 다정한 종소리였다. 그것이 오늘은 영원한 리별을 알리듯 류달리 쓸쓸히 들려왔다. 이래서는 안된다. 자신을 단단히 다잡아야 했다.

《늦겠소. 빨리 들어가요.》

재명은 레사로이 안해의 등을 다정히 떠밀었다. 또 움직이지 않았다. 눈을 똑바로 뜨고 재명을

쫓아지게 보았다.

《여보, 저녁에 저에게로 꼭 오지요 예? 기다리겠어요.》

그는 재명의 손을 꼭 쥐었다. 그의 따뜻한 온기가 온몸을 불덩이처럼 달구어놓는다. 재명의 고개는 제것이 아닌듯 힘있게 끄덕여졌다.

《참 잊을번 했소. 학비요. 이번엔 제일먼저 내라구. 보란듯이.》

학비와 편지가 든 봉투를 안겨주는 그의 말 역시 제것이 아닌듯 평온하였다. 하지만 가슴은 칼로 허비듯이 아팠다. 마지막작별이었다.

《고마워요.》

안해는 일부러 고개를 까딱하며 행복한듯 보조개가 패이게 웃는다. 그것이 더 가슴을 미여지게 하였다. 헤어졌지만 안해의 마지막모습과 말은 그를 멀리까지 따라오며 괴롭혔다.

재명은 교회당정문밖의 사람들이 봄비는 속을 오가며 때를 기다렸다. 두 동지는 교회당의 옆과 뒤를 지키게 하였다.

《군밤사시오. 군밤이요.》

남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도록 학생복차림에 군밤봉지가 든 대바구니를 가슴앞에 척 메고 소리를 치는 그는 갈데없는 교학생이었다.

《땡- 땡-》

교회당의 종탑에서 크고 웅글은 종소리가 울렸다. 추도식을 알리는 종소리같았다. 아니 그것은 재명에게 거사가 박두했음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이제 얼마후이면 고대하던 그 순간이 닥쳐올것이다. 그런데 다잡아야 할 마음과는 다르게 종소리는 그를 교정의 안해에게로 다시 이끌어갔다.

《여보, 정녕 그렇게 가시겠어요?...》

상상속에 교정의 종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안해의 가냘픈 목소리, 안해와의 작별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구나. ...

교회당정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나오는것이 먼 발치에서 보였다. 맨앞의 놈이 리완용이었다. 캄캄한 밤에도 그놈의 모습만은 실수없이 알아낼 재명이었다.

《땡가 다가왔다-》

재명은 속으로 조용히 웨쳤다. 품안에 손을 넣자 비수의 손잡이가 제격 손에 잡혔다. 고마웠다. 2년세월 자기와 함께 있으며 마음을 알아준 비수, 어느결에 그의 몸은 사람들사이를 헤집고나가 리완용에게로 내달렸다. 리완용이 인력거우에 거드름스레 앉아 떠나려는 순간이었다. 몸이 거울진 놈의 인력거군이 그의 앞을 딱 막아섰다.

《비켜라-》

재명은 무섭게 소리쳤다.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놈은 재명의 손에 쥐여진 비수를 뺏으려고 덤벼들었다.

내 너를 죽이려고 한것은 아니지만 할수 없구나! 민족안에 너같은 역적의 개도 더는 나와서는 안된다!

《으악—》

비명소리와 함께 نوم은 통나무 자빠지듯이 쿵 넘어갔다.

재명은 자기가 언제 리완용의 먹살을 비틀어잡았는지 알수 없었다. 다만 《청년, 이게 무슨 란동이요?》

하는 نوم의 겁에 질린 눈을 쏘아보며 자기 혼자의 분노만이 아닌 산불처럼 타번지는 민족의 분노를 느낄뿐이었다.

네놈과 무슨 말을 하랴. 그는 نوم을 땅에 끌어 내려 몇번 태를 쳐놓았다. 조금도 속이 풀리지 않았다. 그는 온몸의 힘을 깡그리 모아 نوم의 가슴노리에 힘껏 비수를 박았다. 그리고 웨쳤다.

《민족의 분노로써 처단한다—》

재명은 자기의 그 웨침속에 《이 나라 안해들의 이름으로—》라는 안해 인성의 목소리도 섞여있음을 의식했다. 비수는 두번세번 연거퍼 نوم의 가슴에 박혔다. 때는 오전 11시 30분이였다.…

왜병들에게 체포되어가는 그를 거사를 지켜본 수많은 군중이 뒤따랐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는 눈빛으로 따르는 군중들에게 자기의 인사를 전했다. 재명은 자기가 비로소 웃으며 안해에게로, 겨레에게로 가고있음을 느꼈다. 영원한 포용의 길이었다.

리재명은 사형당하였다. 이때 그의 나이는 21살이었다. 그의 패거리는 온 나라를 기쁘게 하였다. 당시 어느 출판물에는 민심을 반영한 이런 글까지 실렸다.

《…할빈의 총소리가 귀전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서울의 검빛이 눈앞에서 또 번쩍했다!》

리완용은 겨울이어서 옷을 두텁게 입은데다 왜놈들의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 목숨은 겨우 부지하여 그후 얼마간 더 살았지만 민족의 마음속에서 이 때 벌써 죽은 نوم이었다.

작가일화

《싱거운 말을 쓰지 말게》

헤밍웨이는 일상생활에서도 말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하였다.

어느날 점심식사때 있는 일이다.

《선생님. 싱겁지 않습니까? 싱거우면 소금을 가져오랍니까?》

함께 식사하던 제자가 이렇게 말하며 일어서려 하였다.

《〈소금을 가져올가요?〉 이 한마디면 될걸 뭐 그리 번잡스레 말하나. 나머지는 굳더더기네. 그러니까 자네 작품에는 〈선생님, 싱겁지 않습니까? 싱거우면〉 따위의 말이 많네. 정말 싱거운 말들이지. 싱거운 말을 쓰지 말게. 한번 자네 한쪽발을 들고 서서 글을 써보게. 그러면 짭작한 말만 고를걸세. 아버지들이 자식을 훈계하거나 선생들이 학생을 추궁할 때 일궈세워놓고 말하는것이 무엇때문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 리치를 알수 있을거네.》 간결성, 생동성, 함축성 이것은 헤밍웨이의 소설문장의 특징이었다.

성구, 속담 (로동)

- 금은 불로 시험하고 사람은 로동으로 시험한다
- 로동이 있는 곳에 풍작이 있다
- 로동은 기쁨의 아버지이다
- 보습에 매달린자는 굶지 않는다
- 로동이 없으면 휴식은 없다
- 손발이 일을 하면 마음에는 명절이 찾아든다

잊지 못할 그날에

염득복

별이 솟는 밤이면 한뼘한뼘
바느질을 하시며 기다리셨고
해쫂는 아침이면
터발을 가꾸시며 기다리셨다

낮이나 밤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떠나간 자식들 기다림으로
한평생을 사신 만경대의 할머니
오늘은 나라를 해방하고 돌아온
손자분을 맞으신다 장군을 맞으신다

아, 맨발로 달려나온 할머니는
수령님품에 얼굴을 묻고
수령님은 할머니를 뜨겁게 포옹하신다
력사여, 축복해다오
만경대일가의 뜻깊은 이 상봉을...

아버님과 어머님을 타향에 묻고
삼촌과 사랑하는 동생도 모두다 잃고
고향에 돌아오신 우리 수령님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쓰라린 마음을 아뢰이는데
할머니 하시던 그날의 말씀이여!

- 왜 빈손이란 말이나
독립이 얼마나 큰 선물이나!

내가 성한 몸으로 해방을 안고왔으니
나는 그이상 더 바랄게 없다

그러시면서도 자꾸 눈굽을 찍으시던
할머니의 모습이여!
그렇게도 애타게 기다리던 만경대뜨락으로
슬픔의 비보만이 연방 날아들 때도
눈물을 모르시던 리보익할머니
가장 기쁜 날에
어이하여 눈물을 보이셨던가

그 무슨 말로
할머니의 마음을 대신할수 있으랴
모두가 고향집사립문을 나설 때에는
나라를 찾고 돌아오리라
씩씩하게 웃음지으며 떠나갔건만
아, 돌아오신분은 돌아오신분은
손자분 하나 우리 수령님!

아, 조국을 위해 겨레를 위해
가정도 한복숨도 깡그리 다바친
위대한 만경대일가의 상봉이여!
한평생 자식들을 기다리신
할머니의 품에
수령님 피어린 불바다 헤치시어
아, 조국을 안고오셨구나
해방을 안고오셨구나

경구, 격언

- 작가는 흰머리로 창작하는것이 아니라 리성으로 창작한다
- 작가들에게는 오직 한 스승이 있을뿐이니 이는 바로 독자들이다
- 조각이나 회화의 매개 작품은 생활의 그 어떤 위대한 규범을 표현하지 않으면 안되며

유모아

- 교훈을 주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못한다면 그것은 병어리로 남을것이다
- 좋은 문체는 심장속에 있다
- 좋은 예술가가 되는데는 네가지가 필요하다. 착한 심장. 예리한 눈, 가벼운 손 그리고 언제나 깨끗이 닦은 붓

《당신은 누구의 단속을 받소?》

《금지도서》인 고리끼의 장편소설 《어머니》를 읽은 죄로 이전 쏘련의 작가 글라드코브는 짜리경찰에 단속되었다.

《당신이 〈어머니〉를 읽고있다는것이 경찰에 신고됐소. 나도 읽어보았는데 그 책은 사상이 좋은 책이 못돼. 당국에서는 이 책을 읽은자를 엄중히

단속한다는것을 당신은 모르고있소?》

《그럼 당신은 누구의 단속을 받소?》

《뭐라구?》

《당신도 그 책을 읽어보았으니 당국의 단속을 받아야 할게 아니요.》

《쌀은 곧 사회주의다.》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강령적지침으로 삼고 온 나라가
농업전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공동사설에서

벌이 낚는다 (외 1 편)

김창호

날씨도 좋다
살랑이는 봄바람
종다리 우짖는 5월
철철 흐르는 논물은
모살이 맞춤하게 데워졌다

감사리도 좋다
씨레질 앞세워
앙금이 폭 가라앉은 논
줄대같이 실한 모
옮기기 바쁘게 뿌리내릴게다

시작부터 다르지 않던가
주타격전선-
이 한마디로 천만군민이 일떠서고
총동원, 총집중!
이 부름따라 벌이 낚는 봄

저 봐라
제대군인 분이오빠
키높이 모집을 지고도 씨엥씨엥 가는걸
지원자 방직공처녀들
북바디 나들듯 일손도 쥘싸구나

시원스레 댕아놓은 농장길이
이해엔 어찌면 이리도 좁은가
다시한번 농업전선으로 부른 당의 호소따라
선군혁명총진군의 장엄한 흐름
포전에 그대로 잇닿아 노도치나니

겨우내 봄내 정을 쏟은 벌
밀, 보리, 감자작황 흐뭇하게
벼농사도 틀림없이 《통장훈》 부를
배심도 든든하니
일바람이 절로 나누나

아 내 조국 찾아주신 수령님품에서
난생 처음으로 땅의 주인된 이 나라 농민들
기쁨에 울고 고마움 목에이던
60년전 력사의 환희
그대로 안고 설레는 벌

온 농장벌이 주타격전선의 전호가 된 이 땅
애국의 구슬땀 아낌없이 바쳐
대지위에 푸른 주단 쪽쪽 펼쳐가자
모내기전투의 승리로 돌과구 열어제길 한마음
번개같이 내달려
풍요한 가을을 어서 안아오자

청년분조원의 일기

우린 끝내 이겨냈어
나어린 청년분조원들
어디 한번 혼나보라고
그리도 기승을 부리던 겨울을...

랭상모판 온도계의 수은주도
흑흑 흐느끼듯 오르내릴 땐
정말이지 우린 속도 많이 때웠지
귀여운 새싹들을 어찌보려고
얄밋게도 《요술》을 부리며
모진 추위는 지긋게도 달려들었지

그래도...

우린 새봄을 맛았어
우리애 청춘처럼 푸르른 실한 모
두벌농사 과학농사 꽃피워
더욱더 흠뻑한 앞그루작황
일매지게 씨레친 아득한 논벌들을 안고

그러니 얼마나 좋아
봄과 이 벌은
땀과 진심을 한껏 쏟아부을
우리 계절 우리 무대
아무렴
곡식을 자래울 때도
청춘이 약동하는 소리

우썩우썩 들리게 해야지

말없는 내 마음 재촉하는 5월과
청년분조원의 자격으로
나는 손가락을 건다

청춘의 땀으로 건너들일

풍성한 가을을

청춘과 떼어놓고 생각지 못할
우리네 가을을

소 나 기

박정철

저 해압산에 구름이 걸리면
비가 올 징조라더니
경쟁의 불을 단 모내기전투장에
하늘가득 비구름이 진을 쳤구나

평곳- 번개날이 장검을 휘두른다
와르릉— 우리가 출전복을 올린다
마침내 앞길을 막아나서는
너 소나기 만만치 않구나

작업반 탈곡장 넓은 지붕아래
잠간 이 비를 그을가
무슨 나약한 생각을...
총동원, 총집중!
또다시 주타격전선으로 온 나라를 부른
우리 당의 힘찬 호소가
우리를 지켜보고있지 않느냐

그렇지 그래 어림도 없다
총알같은 비살에 눈물이 뚫어도
불같은 경쟁에 단 가슴들이
이쯤 소나기에 어이 식으랴

쌀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사회주의를 지키며
빠저리게 깨달은 우리거니
봄날의 이 하루 늦잡는다면
가을의 쌀더미 그만큼 낮아지리

선전실 지붕우에 나뭇기는 경쟁기발이
퍼더덕 펄럭이며 우릴 부른다
선전실 지붕 확성기에선
힘찬 혁명군가가 피를 끓인다

또다시 평곳- 번개 한줄기
이제는 하늘이 벗인양 손을 내미는가
또다시 와르릉- 저 우뢰소리
이해의 승전고 벌써 울리는가

차라리 고맙다 너 소나기
우리네 심장이 또 한번 커졌거니
이제 해압산에 무지개 비끼면
축하의 꽃테프로 목에 걸테다

즐거운 작별

김정철

10년도 넘게 정을 붙인 양수장
내 손때묻은 양수기와
오늘로 나는 헤어지게 되노라
백마—철산 새 물길로
양수기가 더는 소용없는 이 벌에서

잘 있으라 마당가의 소담한 들꽃들아
이 손으로 쌓아올린 뒤뜰안의 웅벽아
이제껏 제집처럼 살아온 일터다만
아깝지 않아라
내 받아안은 큰 기쁨에 비하면
두고가는 그것들은 하치 않거늘

전기가 없이도 양수기가 없이도
포전마다 저절로 흘러드는 생명수
오랜 날 농민이 꿈속에서 그려보던
물에 대한 소원이 이런것이 아니냐

아 이 땅 농민들의 간절한 그 숙망
우리 장군님 헤아리시여
전선길에서 구상하시고 펼쳐주신
개천—태성호, 백마-철산
우리 식의 자연흐름식 새 물길이어

백두의 눈보라가 밋을줄 모르는
장군님의 옷자락아래 꽃피난

사랑의 저 물줄기에 실려
영원히 흘러갔다 이 땅에서 물걱정은
물걱정과 함께 양수공의 남모르는 이 수고도

잘 있으라 양수기야
우리 이젠 헤어지자
나는 지금 양수기로 물을 푸며 농사를 짓던

수필

소원

우리 인민모두에게는 하나의 공통된 소원이 있다.

그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뵈옵고싶은 마음이다.

정녕 경애하는 장군님을 몸가까이 뵈고싶은 심정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작년 12월 나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락원기체련 합기업소 신포향주철직장을 찾아주셨다는 소식에 접하고 서둘러 취재길에 올랐다.

직장 초급당비서의 안내로 신포향주철직장을 찾았을 때 나는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놀랍게 면모를 일신한 신포향주철직장, 천지개벽이란 말이 여기에 꼭 들어맞는 말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궁륭형지붕의 겉모양만 보고도 희한하게 생각되었지만 안에 들어가보니 과연 천지개벽했구나 하는 탄복의 웨침이 절로 터져나왔다.

무틀조형기로부터 점토모래자동흐름선, 유도로 중앙조종실과 수지모래재생흐름실, 사락장과 실험실, 종합지령실 등 모든 생산공정이 고도로 현대화되고 어찌나 깨끗한지 별세상에 온듯한 기분이였다. 미용실과 리발실, 한증탕은 마치도 평양의 창광원을 그대로 옮겨다놓은것 같았다. 이러한 편의시설이 기업소내 하나의 직장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만족해하신것처럼 모든것이 희한했다.

원래 주물직장이라고 하면 어느 공장에서도 제일 힘든것은 물론 어지럽고 유해로운 작업을 하는 곳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던 곳이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세심한 보살핌에 의해 보기드문 현대적인 일터로 변한것이였다.

먼지와 유해가 없이, 눈보라치는 겨울날에도 훈훈한 속에서 땀 한방울 흘리지 않고 모든 일을 컴퓨터조종에 의해 진행되는 작업전공정을 지켜보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장의 일군들에게 거듭 치하와 고무의 말씀을 해주시였다는것이

어제날과 작별하고있거니

아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컴퓨터로 공장을 움직이는 노동자들처럼
우리 농민들도 그렇게 살게 될
눈부신 래일이
나를 부르노라

배경휘

다.

새롭게 꾸려진 신포향주철직장으로 말하면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보살핌속에서 최상의 수준의 일터로 꾸려진 곳이었다. 그런데도 그 성과를 그대로 로동계급에게 돌리시며 과분한 치하의 말씀까지 해주시였다는 직장 초급당비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가슴이 뜨거워움을 금할수 없었다.

언제인가 어버이수령님께서 일군들에게 제기할 것이 있으면 제기하라고 하셨을 때 인민들의 밥그릇에 대해 제기한 일군을 높이 평가하시며 만족해하셨던 일이 떠오른다.

그렇다. 어버이수령님의 《이민위천》의 뜻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우리 장군님의 가장 큰 소원도 역시 인민의 행복인것이다. 하기에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해도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아까울것이 없다시며 자신의 모든것을 인민을 위해 바쳐가시는분이 바로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이신것이다. 그러기에 로동자들이 현대적인 설비들을 가지고 문화적으로 일하게 된것이 기쁘시여, 자신의 뜻이 실현된것이 기쁘시여 분에 넘친 치하의 말씀까지 해주신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한 로동자에게 경애하는 장군님을 일터에 모셨던 감격에 대해 말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로동자들의 기쁨과 환희의 감정을 듣고싶었던것이 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그는 잠시후에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죄스러웠습니다. 저희들에게 이런 최신식설비를 맡겨주셨는데 우리들에 아직 기능이 낮아 제품의 질을 최대한 올리지 못하는것이 죄스럽습니다. 저희들이 구실을 못하는것이 ...》

진심이 어린 소박한 대답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에 보답을 못해 안타까와하고있는 그를 보는 순간 불현듯 어느 한 국가적인 큰 대회에 대표로 참가하고 돌아온 친구가 하던 말이 떠올랐다. 그때 그 친구는 대회에 참가한것을 축하한다는 나의 의사에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었다.

《축하는 무슨 축하를 받겠나?...물론 대회에서 배운바도 크고 사랑과 믿음도 많이 받았지. 하지만...별로 크게 한일도 없이 사랑과 믿음만을 받아안았다고 생각하니 참 부끄럽기 그지 없더구만...》

더 많은 일을 하여 장군님께 더 큰 기쁨을 드리려는 마음이 느껴지는 그 말을 듣고 나는 그때 그저 그의 마음이 뜨겁다는데 대해서만 생각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 그가 왜서 부끄러웠다고 했는지 비로소 이해되었다. 별로 한 일이 없이 사랑과 믿음만을 받아안은것이 부끄럽다고 한 것이었다.

진정 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 인민의 소원은 결코 사랑과 믿음을 받는 거기에 머무르는

시 초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조금이나마 보답하려고 하는 거기에 있는것이였다.

우리 로동계급의 그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이 뜨겁게 느껴질수록 나는 가슴이 후더워오름을 금할수 없었다.

떨어지지 않는 걸음을 돌려 공장을 나서면서 나는 생각했다.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바치시려는 불같이 뜨거운 마음을 지니고 계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사랑, 그 믿음에 조금이라도 보답하지 못하는것을 그토록 안타까와하며 그이께 기쁨을 드리는것을 자기들의 최대의 소망으로 간주하고있는 이런 인민의 모습, 여기에 바로 우리 조국의 필승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는것이 아니겠는가.)하고...

선군과 녀인

럼형미

녀인의 말

군말이 필요없는 시대
정 헤프고 웃음많은 녀인들이
총대를 자식처럼 남편처럼
굳이 믿는 시대

《조미기본합의문》의 파기 !
별로 놀랍지는 않다만
고난과 시련속에 지켜온
이 나라 정직한 마음들의 신의를
미제는 너무도 무참히 우롱하누나

《악의 축》이요. 《선제타격》이요

정말 놀랍고도 무서운 말들을
행복한 웃음우에 쏟아놓누나
화려한 조선옷 차려입고
모란봉에서 노래춤 즐겨하는
우리들을 향해

세살난 애 말조차 끝까지 리해해주는
착하고 무던한 엄마이건만
더는 우롱당하지 말아야 할 사랑이기에
아, 나에게 총이 쥐여진다면
맨 먼저 미제의 허바닥부터 뚫으리라

녀인의 손

고난의 죽가마도 저어보았고
피눈물의 그 언덕에 꽃을 엮으며
슬픔의 눈물도 닦아본 손

아이도 키우고 시도 쓰고
집안의 크고 작은 일 많이도 치르고
일터에선 보배손으로 사랑받는 손
허나 너무도 작고 말큰하구나
저고리 웃고름 곁에도 매고
맛난음식 재간스레 만드느 녀인의 손은

터실터실 갈라지고 굳어졌다가도
아기뺨 만질 땐 비단처럼 부드러워지고
빨래거품속에서 눈같이 깨끗해지는 손

녀인의 손은 왜 곱고도 연연할가
퍼내고 퍼내어도 마르지 않는
온몸의 사랑이 손으로 뿜어져나와서일가

허나 그 손에 총을 쏜다면
사나이손처럼 커지리라
대장부 주먹처럼 강해지리라

오, 사랑하는만큼 증오도 서리차거니
그날에는 사랑의 모든 혈관들이
증오의 힘살로 천백배 뻗치려니

주저없이 맡겨달라 조국이어
너인의 작은 손에
제일 크고 무거운 총을!

사랑의 담보

어여쁜 처녀 내 동생아
너의 그 사람 만나보지 않고도
언니는 네 결심을 승낙한다
최전연부대 군관이라니
그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나

적의 총구앞에 가슴을 내던
군인중에서도 제일 억센 사나이
그는 사랑이 무엇인지
제일로 잘 아는 이 땅의 사나이거니
한생을 의심없이 맡겨라
행복한 안해 어머니가 되려거든...

별많은 밤에

총센 머리칼
장난세찬 손
썩근썩근 단잠 든 아들에
가만히 어루쓸고 만져보느라면

아름차구나 숨가쁘구나
행복의 바다에 빠진듯
산호진주 웅실대는 그 속을
나 혼자 고요히 헤가르는듯

하루가 다르게
미출히도 자라는 나의 아들이
너는 날마다 커가고
나는 날마다 작아지려니

지금도 너를 안기엔

모자라는 나의 팔 나의 가슴이
언젠가는 떠맡겨야 하리
조국이라는 크나큰 어머니에게

아 나는 본다
그날의 군복입은 너의 모습을
그 어떤 총탄도 뚫을수 없고
그 어떤 파편도 박힐수 없는
엄마의 소원과 사랑의 갑옷을 입은
장한 아들을

뿔뿔이 나서거라
용감하거라
조국은 병사를 제일 사랑하기에
조국은 전장에서 아들과 맺은 정을
제일 귀중히 여기기에...

선군과 너인

이제는 떨어져선 못산다
선군이란 말
쌀이 없이 못살듯
물이 없이 못살듯

아기를 안으면
세상이 온통 기쁨으로 보이는
이 나라 너인들은
선군이란 말
하늘처럼 이고산다

선군과 너인!
얼마나 잘 어울리는 말이나

꽃밭에 나비 어울리듯
얼마나 정차고 살뜰한 말이나
엄마의 품에 아기가 어울리듯
선군이 없었다면

이 나라 너인들은
노예의 자식을 낳아야 했으리
노예를 기르며 너인들의 가슴은
눈물로 피로 곁어야 했으리

오, 엄마의 품에 아기가 웃게 해주고
처녀의 손에 꽃이 웃게 해주고
아이의 눈동자에 꿈이 웃게 해주고

알뜰한 집안에 너인이 웃게 해준
선군이여 고마운 선군이여

승냥이 미제놈들에게는
폭탄같이 무서운 말이려만
우리 조선의 너인들에게는
더없이 이쁜 말 고운 말
마음놓고 기대웃는 행복이란 말

세상천지 둘러보면
아직도 오만한 침략의 줄폭탄에
귀여운 자식과 가정을 잃고
왜 인간을 낳아서 키워야 하는가를
하늘에 대고 묻는 너인들의 호곡이
그칠새 없건만

아, 이 나라에서만은
행운을 타고난 이 나라 너인들만은

길이 밟고 사누나 굳게 밟고 사누나
그런 불행 있을수 없다는것을
꿈에도 있을수 없다는것을

우리 장군님의 신념인 선군
그것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이라는 말
삶이라는 말
사랑과 창조로 숨 벅찬
평화라는 말!

하기에 떨어저선 못산다
헤여저선 못산다
심장처럼
태양처럼
이 나라 너인들은 순간도 못산다
선군을 떠나서는!

상식

풍력발전소

바람의 힘을 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풍력발전소라고 한다. 풍력발전소는 생산한 전기를 개별적부하에 공급하는가 또는 지역적전력망에 공급하는가에 따라서 개별운전 풍력발전소와 병렬운전풍력발전소로 구분하는데 이것은 보통 출력의 크기에 따른다. 출력이 0.1~10kW인 소형풍력발전소는 주로 충전을 위한 직류를 생산한다. 출력이 10~100kW 인 중형풍력발전소는 다른 발전소와 병렬로 운전되며 100kW이상에서는 기본전력망에 투입 운전된다. 국가적목적으로 건설되는 풍력발전소는 수~수백대의 풍차로 풍차숲을 이루고있다. 풍력발전소는 크게 풍차, 전동장치, 발전기, 배전반, 축장치들로 이루어진다. 풍력발전설비에는 생산된 전력을 전기설비들에 보내기 위하여 여단개, 조작기구, 신호장치, 계기, 계기들이 설치된 배전반과 바람에너르기저축설비들이다. 자료에 의하면 인류가 바람의 힘을 리용한

것은 먼 옛날부터이나 이것으로 전기를 일으킬 풍력발전소를 만든것은 1890년대부터이다. 1930년대에는 100kW 정도의 출력을 가진 풍력발전소가, 1940년대에는 1,100kW 이상의 대형풍력발전소가 출현하였고 1950년대, 1960년대초까지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발전용풍차를 생산하여 전기가 들어가지 못한 외진 곳, 해안지대 등에 설치하여 리용하거나 기본전력망에 병렬로 련결하여 리용하였다. 원유값이 떨어지면서 풍차의 리용이 중지되다가 1970년대초부터 원유값이 높아지면서 풍력발전소를 많이 건설하고있다.

초기에는 발전원가가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원가보다 3배정도 높기때문에 일반화하지 못하였으나 오늘은 두 원가가 비슷해져서 그 리용률은 더욱 높아지고있다.

지금 우리 나라의 일부 지역들에서도 풍력발전기로 전기를 생산하여 덕을 보고있다.

욕망, 고민, 교훈… (2)

—다부작장편소설 《력사의 대결》을 창작하고—

허문길

4. 흥미와 독자와의 교감

나는 이번에 다부작장편소설 《력사의 대결》을 구상하고 완성시켜온 과정에 작가들이 진실로 독자들의 관심을 받는 작품을 만들어내며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작가가 되기 위하여서는 일단 펜을 놓을 때까지 끊임없이 독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교감을 가져야 한다는것을 더욱 새삼스럽게 느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소설가는 온갖 재주를 다 부려 독자들의 눈을 자기의 글에 붙잡아두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나는 제1부를 끝고나가면서 흥미라는 문제를 놓고 크게 고민하게 되었다.

대서사시적화풍이 펼쳐질 다부작소설에서 1부는 1막이라 해야 할것이다. 시대를 펼쳐보이고 인물들을 소개하며 《력사의 대결》의 진을 꾸리는 데로 인물들을 움직이게 해야 한다.

이렇듯 피할수 없는 1부의 어수선한 구성이 흥미라는 소설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할수있다. 제1부를 어떻게 해야 읽히는 소설로 엮어나가겠는가. 2부 부터는 작품의 견인력문제에서 자신이 있었다.

문학적인 줄거리가 쪽쪽 뻗어나갈것 같았다. 그렇다고 독자들에게 《자. 2부부터는 이야기가 슬슬 기쁨기가 돌게 되니 졸리더라도 1부를 인내성 있게 마저 보시오.》하고 귀찮아여줄수도 없는 노릇이다. 흥미를 잃은 소설은 벌써 소설의 진미를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예술적흥미는 바로 일상생활에 체험되어있는 깊은 뜻을 새롭게 알게 되고 고상한 생활세계에 스스로 끌려들어가는데서 생겨나는것이다.》

소설을 의무감에 의하여 보는 독자들은 없다. 그래서 소설가들은 고민중의 가장 큰 고민이 어떻게 하면 첫째지부터 마지막페이지까지 독자들의 눈을 붙잡고 놓아 주지 않도록 작품의 흥미를 최대한 보장하겠는가 하는것이라고 생각한다.

소설의 흥미를 돌구는것, 이것은 사실상 소설가의 기교중에서도 으뜸가는 재산이고 소설을 다룬 형식의 글과 구별되게 하는 핵심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작가는 마땅히 소설의 생명인 흥미를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서 패한 소설은 독자들이 외면하는 고정재산으로 도서실의 당반우에 10년이고 20년이고 압전한 자세로 피롭게 앉아있어야 한다.

소설가가 밤을 새워가며 심혈을 기울인 노력이 이렇게 독자들의 싸늘한 땀대를 받는다면 참말로 억울한 일이지만 흥미를 잃은 소설이 당하는 응당한 수모이니 하소연해볼데도 없다.

그런데 나는 소설에 막을 올리자 이 문제에서 곤경에 빠졌다. 50년전의 시대를 폭넓게 보여주고 수많은 인물들을 등장시켜야 되겠으니 1부는 지루한대로 보아달라고 독자들에게 통사정을 해볼 수도 없었다.

나는 제1부가 독자없는 처지에 빠지지 않도록 출로를 모색하다가 작품의 양상과 구성을 달리하여보았다.

원래 나는 소설을 구성할 때 매개 부에 다음과 같은 과제를 부여하고 매개 부들의 양상도 그에 따라 변화를 보이게 하려고 하였다.

제1부-폭 〈환경제시와 사건발단〉

제2부-심도 〈사건발전〉

제3부-첨예성 〈절정〉

제4부-비장성 〈해결〉

나는 매개 부에 정시명을 중심에 세워놓고 인물관계를 다르게 짜며 그에 맞게 문학적줄거리들도 련속적이면서도 각각 독자적인 자기의 모양새를 갖추도록 하는것이 매개 부들의 흥미와 견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로라고 인정하고 새롭게 구성작업을 하였다.

그렇게 되어 제1부에서는 주인공을 정점으로 문어다리식으로 인물구도를 잡고 제2부에서는 김구와 리승만, 하지를, 제3부에서는 김승원, 권혜숙, 권영호, 리승만, 무초, 제4부에서는 김명호, 혜영, 방대광, 노불, 리범석을 중심인물로 세워놓았다.

작품이 완결된 후 어느 한 평론가가 제1부는 정시명의 책이고 제2부는 정시명과 김구의 책이고 제3부는 정시명과 권혜숙의 책이고 제4부는 정시명과 방대광의 책이라고 했는데 비슷한 지적인것 같다.

제1부의 흥미와 관련한 고민거리를 해소하기 위한 출로가 섰으나 또 하나의 문제가 나섰다.

제1부를 관통하는 문학적줄거리를 탐색하는것이였다. 주인공의 원형인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참된 혁명가라고 뜨겁게 불러주신 다면적으로 세련된 인물이다. 결국 제1부에서는 세계관의 형성 과정이 아니라 주인공이 《이런 인물이다》 하는 과제를 설정하고 그 해명어로 여러 인물들을 실재한 일화에 기초하여 엮히게 해서 문학적인 줄거리를 세워나가야 하는것이였다.

생각해보니 제1부에 설정된 과제로 보나 제1부의 양상으로 보나 합당하였다.

나는 산만하게 등장하고 움직이던 실재한 인물들을 주인공을 축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들모두가 외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주인공의 성격화를 위한 과제들을 제 나름으로 특색있게 받아안고 움직이도록 초점을 좁혀었다.

이리하여 려운형, 김구도 주인공과의 밀접한 관계속에서 작용과 반작용을 하는 인물로 되었고 송호성, 류동명, 박정인 등 인물들도 주인공과 밀착한 인물로 되었다. 부정인물들도 그렇게 묶여 놓았다.

제1부는 미제의 현지피수인 하지가 리승만일파를 중심으로 제놈들의 정치지반을 묶어세우려 할 때 그에 정면으로 도전한 정시명과 그의 전우들이 우익민족주의 세력을 미제의 품에서 떼어내 애국통일의 기발밀에 묶어세우는 《력사의 대결》이 기본흐름으로 되어있다.

제1부의 마지막장면으로 《쏘미공동위원회》와 관련된 치열한 정치전이 선정되었는데 외관상 정시명과 하지가 직접적으로 충돌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소설의 구조를 엄밀히 관찰해보면 정치리념과 지향, 이해관계와 도덕적인 규범, 인간윤리와 인격 등 선과 악으로 총칭되어 날카롭게 대치되어 격렬하게 승부를 다룬다.

마침내 력사에 실재하였던 인물들이 주인공과 외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밀접히 연결되어 살아 움직이게 되었으며 주인공의 세련된 혁명가적품격, 인간적인 면모를 형상하는데 기여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제1부에서 흥미와 관련된 고민이 다소 해소되었다.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온을 내게 되었는지는 이미 평론가들이 시비를 켜으므로 더 언급하지 않겠다.

작품의 흥미를 돋구기 위한 작가적노력에서 다른 문제도 있었다.

그것은 독자들과의 교감을 한시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작가는 부단히 독자들의 눈치를 뽐낼아니라 그들을 자기의 의도대로 웃고 울고 분노하고 사색하도록 그들모르게 수를 써야 한다.

어떤 수를 어떻게 써야 할가? 이것은 소설가들의 재능과 기교를 가늠하게 하는 주요기준이다.

물론 독자들과의 교감문제를 론할 때 독자들이 첫 페이지부터 시종일관 흥미를 잃지 않도록 이야기를 재치있게 엮어가는 문제와 함께 장편력사소설답게 등장인물들과 이야기들을 하나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믿어의심치 않게 하는 문제가 나서게 된다.

독자들이 페이지를 넘기다가 《에잇, 전랑 거짓부리군.》 하거나 《지루하구만.》 하고 짜증을 부리기 시작하면 야단이다. 하지만 나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정치이야기와 정세 등 따분한 이야기를 사이사이 꺼내놓아야 하였고 묘사하자면 길어만 저서 독자들이 하품을 하게 될 장면도 내놓아야 하였다.

나는 이런 경우에는 흥미와 진실을 잃지 않기 위하여 독자들의 눈치를 빠가며 서술형식을 자유

분방하게 바꾸기도 하였다. 그래서 어떤 지루한 대목은 《정보 보고》라는 형식으로, 어떤 대목은 적들의 문건형식으로, 혹은 한 인간의 극적인 운명사를 일기형식으로 극히 함축하여 내놓기도 하였다.

혹은 후일담으로 그 인간의 기나긴 뒤이야기를 마무리짓기도 하고 신문기사와도 같은 글로 여러 페이지에 전개하여야 할 묘사를 짤막히 굵뎌버리기도 하였다. 아마 권혜숙의 일기를 다 엮어나가자면 그것만 가지고도 증편소설분량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 어떤 도식에 구애됨이 없이!》

나는 다른 소설들에서도 이런 식의 위안으로 독자들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문제도 부단히 바꾸어가기도 하였으며 묘사도 지루하게 하지 않는다고 애를 썼다. 독자들은 묘사가 지지하면 작가의 의도와 재주는 무시하고 땡강땡강 뛰어넘어버린다.

그런데 작가는 《그 대목을 만드느라고 필자가 얼마나 고심했다고 그렇게 말뼉질을 하시요?》하고 제지시킬수도 없다. 원래 숨쉴수 있는 이야기군은 청중이 더 듣고싶어할 때에 뚝 끊어버린다고 한다.

뒤이야기가 궁금해서 팔설을 붙잡게 하기 위한 일종의 청중과의 교감인것이다.

나는 새책을 쓸 때마다 항상 묘사를 지루하게 하지 말자고 자신을 다잡곤 하는데 창작실천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없는 재주를 부려 머리를 썩여가며 따분하고 지루한 글을 쓸 멋이야 어데 있겠는가. 독자들이 땡강땡강 뛰어넘을 눈치면 작가도 함께 땡강땡강 뛰어넘는게 좋지 않겠는가.

사건전개와 묘사에서 속도-우리 독자들은 쌍수들어 환영이다. 나는 크게 필요없는 묘사를 몇페이지씩 채우는 고투적인 틀과 멋을 타파하고 속도감있게 끌고 나가다가 독자들도 사색에 잠길 기회도 마련하여주는 《아랑》도 보이고싶어 어떤 때는 멋을 부리고싶은 욕망을 《아서라.》하고 뿌리치기도 하였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묘사에서도 나는 그런 유혹을 이겨냈다. 나는 사형장으로 나가는 주인공을 세워놓고 주인공의 심리, 전우들의 걱정 그리고 불라는 새벽노을, 맑고 푸른 하늘과 그속에서 우짚는 새들의 노래도 그리고 가까이에서 들려오는 포성의 의미도 펼쳐보이고 싶었다.

독자들과 오래동안 운명을 함께 해온 주인공과의 영결을 너무 서둘러 끝낼수 있는가?...

그러나 나는 꼭 참았다. 그건 도식이다.

독자들이 그 모든것을 그려보게 하자. 독자들은 지금 눈물에 잠겨있다. 추운한 침묵속에 그들 자신이 마음속으로 주인공과 작별하게 하자.

나는 이 장면의 문학적효과와 여운을 위하여 방대한 분량의 서사시적화폭을 거두면서 우리의 동시대인들과 후대들에게 꼭 하고싶던 당부마저 앞으로 밀어올렸다.

《이 땅을 깨치는자 리유여하 불문하고 천하역적이노라!》

그리고는 지금의 장면묘사처럼 툭툭 건너뛰다가 군소리없이 끝냈다.
이것이 옳았을까?...

5. 소설의 격과 심도

소설의 격—뜻풀이를 하자면 갈래가 많은것이다.

형상의 격, 대사의 격, 묘사의 격, 지문과 문장의 격... 여기서 기본은 형상의 격이다.

주인공과 인물들의 격이 곧 소설의 격과 무게를 가늠하게 한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상식이다.

그러니 지금 랭정하게 훑어보면 내가 과연 구상단계에서 의도하였던 소설의 품격에 대한 높은 요구를 다 충족시켰다고 인정할수 있는가.

사실 나는 다부작장편소설 《력사의 대결》의 구상단계에서 욕망은 컸지만 솔직한 말로 불안이 더 컸다. 소설에는 남조선에 기여한 미제의 우두머리급 인물들은 물론 해방후 남조선정치계의 거물급인물들은 거의다 나온다.

그중 적지 않은 인물들이 이미 력사에서 취급되어 전해지고있으며 소설이나 영화를 통하여 그 성격들이 기정사실화되어있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사회적지위와 격에 맞게 그려낼수 있을가. 그리고 이미 독자들에게 뚜렷한 표상으로 굳어져버린 비교적 높은 경지에서 그려낼수 있겠는가.

아무리 애를 써야 이미 형상된 인물들의 격을 더 높이 끌어올린다는것은 자기를 모르고 덤비는 미련한짓 같기도 하였다.

뱀새가 황새흉내를 내면 어떻게 된다고 했더라...

그들을 형상해내기에는 작가의 키가 너무 작은것이다. 이를테면 등장인물들의 키에 비해볼 때 작가의 키가 대비가 안되는것이다.

그런데 만약 김구나 려운형, 리승만, 하지 같은 민물을 이미 세상에 알려진 계선에서 새롭게 더 형상하지 못한다면 작품으로서 완전한 실패를 가져올것은 자명하였다.

이것은 작품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문제였다.

나는 인물들 특히 부정인물들로는 최상층인물들은 될수록 피하고 2부류급인물들로 선정할 생각도 해보았다.

김구나 려운형같이 우리 인민에게 널리 알려져있는 인물들도 피하려고 하였다.

일찌기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창작은 본래의 의미에서 비판복격이며 독창적인것이라고 하시면서 독창성은 창작의 본성이라고 지적해주시였다. 반복에 머무르는 성격창조는 작품의 죽음이다. 그러나 나는 소심해서 주춤거리는 자신을 달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우라고 불러주신 불굴의 애국충신, 남조선통치권을 통채로 흔든 인물을 그

려널 과제를 설정하여 놓은이상 그 상대역 인물들을 2부류급으로 세워놓고 최상층인물들을 피해간다면 《력사의 대결》은 제목부터 버려야 할것이다.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안일한 창작태도이며 비겁한 후퇴였다. 《력사의 대결》은 그런 섬약한 의지의 담력을 가지고서는 꼬아내지 못할것이라고 나는 랭철하게 흔들거리는 자신을 질책하였다.

대담하자, 대담하자.

나는 이 기회에 자신의 《키》도 부쩍 크게 하면서 작품의 지성과 격을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리라고 다시금 강심을 다지였다.

그러나 펜을 들고 원고매수를 넘겨갈수록 우선 정치를 뭘 조금 안다고 자부하고있던 자신의 지성의 깊이가 너무 얕으며 거물급인물들을 다루기에는 자신의 철학적인 키, 정치적인 키, 문학적인 키가 너무 작다는것을 통탄하지 않을수 없었다.

일단 집필에 들어가면 작가는 책에서 펼쳐지는 세계의 총감독이 되여야 한다. 《력사의 대결》의 이쪽저쪽을 감독하려면 두 진영의 총대장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고문정도는 되여야 한다.

나는 인물들을 맞세워 공방전을 벌리게 해놓고는 이쪽저쪽에다가 부단히 《우로》, 《좌로》, 《앞으로》, 《뒤로》하고 그들이 자기의 리념과 지위에 맞게 성격과 생활의 론리에 따라 작가가 그어놓은 운명선에서 탈선되지 않도록 순간도 헛눈팔새없이 일깨워주고 부촉해주어야 했다.

레컨대 하지를 놓고도 고문관쯤 돼가지고 《그건 네놈의 생리에 어울리지 않으니 이리이리하는게 순리다》하면서 내가 그어놓은 운명의 주로에서 리탈하지 않도록 그냥 때려몰아야 했다.

그래서 나는 자기 키부터 돋구는 고심어린 탐구를 선행시켜야 하였다.

나는 인물형상의 격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비결은 우리 문학에서 흔히 보아온 도식적인 틀에서 벗어나는것이라는것을 늘 생각하였다.

인물들의 형상의 격을 높이는데서 제일 품을 들인 인물들은 김구나 려운형, 리승만, 방대광이었다. 그들은 이미 력사에 널리 알려져있고 문학사에도 성격화되어 독자들에게 뚜렷한 표상으로 기억되어있는 인물들이다.

그러한 인물들을 작품권안에 들여놓은 이상 새롭게 성격화되되 보다 높은 경지에서 탐구되여야 한다. 나는 그들의 성격을 보다 참신하고 수준있게 전형화하기 위하여 주인공과 그들과의 실재하였던 관계를 면밀히 따져보았으며 그들의 운명사를 다시금 연구하였다.

고심어린 탐구끝에 그들도 개념화하지 말고 주인공과의 관계속에서 더욱 리념적으로, 성격적으로 성장하는 인물들로 그려야 한다는것을 깨달았다.

독자들과 전문가들이 소설의 제1,2부가 나간

뒤 소설의 일부 측면에 대하여는 다소 엇갈린 주장을 펴면서도 김구와 러운형의 형상수준의 높이에 대하여 일치하게 공감하는것을 보면 어느 정도 필자의 창작적 의도가 관철되지 않았는가싶다.

나는 김구를 제3부에 등장시킬 때에는 더욱 신중해지고 동요도 하였다. 제1, 2부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는 평가를 받은 김구를 이제 제3부에 등장시켜 성격화에서 더 덕볼게 있을가?

제1, 2부에서 간신히 끌어올린 성격의 높이를 뛰어 넘거나 적어도 견지하여야 하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바에는 제3부에 등장시키지 않는것이 좋지 않을가. 그러나 나는 실재한 사실에 기초하여 고집스럽게 그를 제3부에도 등장시켰다.

등장시킨 이상에는 형상의 격을 제1, 2부보다 질적으로 다르게 그리고 한계단 더 높이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배가로 해야 하였다.

그에게 문학적과제부터 듬뿍 안겨주었다. 이리하여 미제놈들의 교활한 모함과 평양에서 다진 맹세대로 살려는 고결한 지향사이에서 갈팡질팡 모대기다가 절간으로 들어가 은둔해버리려는 김구를 주인공과의 관계속에 등장시켜 다시 미제놈들과의 싸움에 뛰어들도록 하였다. 그리고 생애의 말년을 애국의 길에서 빛나게 장식하는 인간으로 우리 민족사에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게 된 또 다른 김구를 실재한 사실에 기초하여 성격적으로 완성시켰다.

부정인물들도 대체로 독자들에게 알려져있는 인물들이었으므로 그들의 개성화를 위하여서는 보다 대담하고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창작에서 독창성은 작가의 창작적개성이 뚜렷할 때라야 이루어진다고 교시하시였다.

소설에서 보는바와 같이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강점의 첫 력사를 총칼로 새겨가는 하지나 브라운, 무쵸, 노불은 다 미국의 정계에서 선발된 상류층인물들이다.

그들은 다 대학을 한두개씩 졸업하고 장성별이 무겁게 어깨에 올라있거나 외교계와 정보계, 군부에서 제노라고 하는 로회한자들이였다. 그들에게도 높은 수준의 부르조아적지성이 있으며 리념과 행동방식, 도덕과 룰리에서 제나름의 일가견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성격적기질도 다르며 미제의 대조선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에서도 차이와 모순을 가지고있다.

나는 이러한 부정인물들의 성격을 파고들어 원쑤, 략탈자, 패륜아라는 격식화되고 추상화된 고정관념과 틀에서 벗어나 실재한 사건과 자료들에 기초하여 각각 자기의 얼굴을 가진 인물들로 개성화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하지와 브라운, 무쵸와 노불을 대치시켜 그들사이의 모순을 드러내고 《력사의 대결》에서 각각 자기 몫을 가진 인물들

로 창조하려고 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에게 기생하고있는 사대매국노들의 형상에서도 원형인물들의 성격적바탕에 기초하여 도식적인 형상의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다. 리승만이나 오성도, 리범석, 윤치명, 신익희, 방대광 등은 통치권의 상층인물들로서 그저 꼭두각시로만 형상되어서는 일면적일것이 아닌가.

수하에 적지 않은 무리를 거느린자들이 미제놈들에 대한 아부아첨으로만 생존할수는 없을것이다. 아무리 주구노릇하는 반동일지라도 그놈들의 지위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내적인 고민도 가지고있으며 각자 나름대로의 생존방식과 배짱도 있는것만은 틀림없다. 그리고 민족적존엄의 견지에서 보아도 그저 덮어놓고 굽실거리는 놈보다 이따금 딱딱거려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미제놈들을 눈아래로 굽어보며 뒤통질도 해보는 놈을 보는게 더 시원스럽다.

나는 식민지주구로서의 성격의 2중성을 옹계 살려주는것은 여러모로 《력사의 대결》의 창작적 의도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되어 리승만이나 오성도, 리범석, 신익희 등 부정인물들이 권력과 부귀영화를 위하여 미제놈들에게 붙어 살면서도 때로는 미제놈들을 깔보고 조롱하고 맞서기도 하는 산인물들로 개성화되였다.

나는 소설의 품격과 지성도 그리고 철학적심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면과 세부는 물론 짤막한 대사에 이르기까지 신경을 썼다.

소설에 당대사회 상류계층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는 조건에서 그들의 사회적지체와 인격, 학력과 경력에 맞는 묘사와 대사를 찾아내야 하였다. 창작가들은 누구나 아무리 방대한 규모의 작품이라도 매개 문장, 매개 단어에 이르기까지 놓치지 않고 자기의 심혼을 부어넣는다고 하는데 나역시 그렇게 하였다. 물론 다부작장편소설의 철학적심도와 격이 철학적인 대사 몇마디나 작가의 설명 몇구절, 혹은 장면 몇개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즉 미숙한 솜씨, 좁고 얇은 지식을 가지고 배짱 하나만 믿고 지나친 욕심을 췌기느라니 그만큼 고충이 컸으리라는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인물들의 키, 소설의 키를 돌구기 위한 고심을 통하여 나의 키도 커졌다는것만은 확실하다. 문학적키를 크게 하기 위한 작가수업은 아마도 펜을 놓을 때까지 계속하여야 할것이다. 지식의 고간이 바닥이 나지 않도록 하는것도 물론 중요하리라고 본다. 몇해사이에 부지런히 책을 써내고보니 어휘창고도 거덜이 나서 써먹은 묘사나 성구, 속담이 반복되는 때도 종종 나타나 당황해질 때도 있다.

6. 다부작소설에서 중심주인공들의 운명처리

다부작장편소설 《력사의 대결》 제4부가 세상에 나왔을 때 여러 독자들이 나에게 작품의 연속부를 한두권 더 쓰라고 권고하여왔다.

주인공들의 운명이 완결되지 않은게 많지 않느냐고 배수진을 치고 오금을 박기도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작품의 여운이 강하게 되어야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고 지적하시었다.

인물들의 운명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이것은 등장인물들의 매력이고 작품의 여운이라고 할 때 나는 독자들의 호소에서 무엇을 찾아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다부작소설일수록 마지막결속부에 이르기까지 인물들의 다양한 사상감정과 성격을 다면적으로 드러내는 생활묘사를 더욱 진실하게 파고들어 성격화를 완성하여야 한다는것이다. 만약 운명처리를 결속하지 못했다면 적어도 독자들이 뒤날에 그들의 운명을 가늠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실 나도 소설이 결속단계에 가까와올수록 인물들과 사건들에 이빠진것이 없는가고 두루 살펴보고 완성작업을 하느라고는 하였다.

특히 제4부의 집필에 앞서 중심주인공들의 운명을 놓고 크게 고심하였다. 독자들앞에서 빛을 지고있는 인물들도 여럿이 있었다. 제2부까지 오다가 사라진 인물도 있었고 제3부까지 왔으나 아직까지도 얼굴이 뚜렷치 못한 인물들도 있었다.

특히 레영이, 김명호에게는 미안한 생각까지 들었다. 그들은 소설이 시작될 때부터 제3부에 이르기까지 줄곧 주인공의 주위에서 꺼묻어 돌던 인물들이었으나 권혜숙, 김승원, 김구, 길철과 같은 선명한 개성을 가지지 못한채 제4부에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흔히 어떤 소설가들은 필자의 의도와는 달리 주인공의 성격이 방계인물들에 비하여 인상적이지 못하거나 중심주인공들의 성격이 주인공의 성격에 눌리워 빛을 내지 못한다는 혹평을 받기도 하는데 레영과 김명호가 그러한 인물로 되어있었다.

제1부에서 서막에 불과하다는 변명에는 아랑곳없이 정시명의 성격이 김구나 려운형보다 썩 못하다는 비난도 있었는가 하면 제4부에 가서 작가가 탕개가 풀려 형상의 밀도를 보장하지 못할수 있다는 경종도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나는 필봉을 더욱 예리하게 버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인공들의 성격에서 미흡한것을 찾아내서 보충해주고 그들의 성격을 보다 높은 경지에 끌어올려 독자들의 기대를 만족시켜야 하였다.

우선 레영에게 제4부에서 새로운 생활무대를 마련하여주고 보다 첨예한 극을 조성하여주었다. 레영이를 감옥에 보냈다가 석방되는 생활을 주니 그의 성격이 레영의 수준에 맞으면서도 질적으로 다른 면모를 보여주기는 했으나 그로서는 부족하였다. 레영의 성격을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더 굴절시켜 보여줄수 없겠는가 이렇게 모대기다가 찾아낸것이 그의 남편 마동열을 서울에 불러내는 것이었다.

나는 이 세부를 찾아냈을 때 자기도 모르게 환성을 올렸다. 자기도 상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황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활의 본질이 드러나는 세부를 정확히 골라서 인상깊게 묘사하는것은 생활을 구체적으로 형상하여 사람들의 정서와 감동을 강하게 불러일으키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지적하시었다.

창작가들이 누구나 체험하듯이 하나의 세부가 열백의 의미를 가질 때 그의 가치는 참으로 커지는것이다. 줄거리가 꽃나무의 줄기라면 세부는 잎새며 아지며 꽃송이다. 기름진 세부를 떠나서는 기름진 성격, 기름진 소설을 꼬아낼수 없음을 자명한 리치다.

마동열을 제4부에서 서울에 끌어들이니 여러가지 문제가 척척 풀려나갔다.

마동열의 서울도착은 우선 레영의 성격을 보다 높이 승화시켜나갈수 있는 생활무대를 마련하여주게 하였다.

레영이는 그림던 남편으로부터 아버지수령님께서 정시명을 불러주신 소식에 접하여 기쁨에 휩싸인다. 그러나 정시명의 립장과 충돌하며 그속에서 더욱 커다란 정신도덕적충격을 받아안고 정시명의 엄하고 절절한 부탁에 따라 출국의 길에 오른다. 레영이는 출국의 길에서 김포비행장이 아니라 통일혁명가로서의 자기의 위치를 스스로 찾아 빨찌산으로 들어간다.

만약 이 장면에서 레영이를 그대로 훌쩍 서울을 떠나보내면 그의 성격은 여전히 앞부들에서 보여주었던 굴곡이 없고 개성이 없는 성격으로 남아있게 될것이였다.

레영의 빨찌산입대는 정시명의 슬하에서 여러해를 보내온 인간의 정신적높이를 보여주는것으로서 레영의 성격론리로 보아도 타당한 설정이였다.

이렇게 새로운 모습을 찾은 레영은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 다시한번 굴절되어 전쟁의 포성을 들으며 정시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마동열과 함께 서울로 걸음을 다그친다.

《동무들, 속도 빨리, 더 빨리!》안타깝게 구령을 내리는 레영의 모습은 몇해전 마동열의 앞에서 몸둘바를 몰라 절절 매던 때와는 판판 다른 모습이다.

레영이는 통일애국자들의 대오에서 자기의 위치를 차지한 보다 숭고한 면모로 독자들앞에 나서게 됨으로써 그의 성격화가 드디어 완성되게 되었다.

조직에서 정시명의 대리인으로 활약한 김명호의 형상도 제4부에 와서 보다 개성적인 자기 얼굴을 보여 주도록 새로운 극을 날카롭게 조성하여야 하였다. 그리하여 엄혹한 감옥투쟁과 보석방, 다시 자기발로 들어선 감옥, 장엄한 최후라는 생활공간이 조성되고 그속에서 그의 지위에 맞는 투사다운 성격이 재창조되었다.

확실히 제1, 2, 3부에서 주인공과 길철, 권혜숙, 김승원에게 가리워져있던 김명호도 제4부에 와서야 훌륭한 인격과 세련된 애국투사의 풍모를 지닌 자기 모습을 가진 인물로 완성된것 같다.

그러나 나는 제4부를 결속한 후 김명호의 성격의 절정을 이룬 최후에 대하여 걱정이 갔다. 그의 최후장면에 잇달아 주인공의 마지막결전이 이어지므로 거기에 가리워 여운을 남기지 못할것이라는 우려에서였다. 원래 나는 김명호에게도 가정과 조직, 동지들과의 관계를 두고 보다 길게, 곡절있게 운명사를 전개하려고도 하였다. 이것은 실재한 사실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조직의 두번째 책임자로서의 그의 짧은 인격에 어울리지 않으며 또 권혜숙의 인정선과 류사해지리라는 우려가 생겨났다.

작가는 자기의 작품안에서도 반복과 류사성을 극히 피해야 한다. 자기 모방도 모방이다. 특히 작가가 창조한 성격들은 엇비슷해서는 안되며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독특한 개성을 가진 인물로 되어야 한다.

나는 김명호에게 주인공의 대리인다운 지위와 격에 어울리는 극을 조성하여 그의 최후를 준비하여나갔다. 더우기 김명호가 본의아닌 실책으로 심각한 번민에 시달리면서도 독자들의 이해와 존경을 받도록 운명적인 이야기들을 주인공과의 관계속에서 여운있게 영겨돌아가도록 하는데 주목을 돌리었다. 다행스럽게 제4부의 작품초고를 처음 읽고난 담당편집원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다고 전해왔다.

리범석과 송호정도 다시 제4부에서 형상의 복판에 내세워 제1부부터 끝어온 그들의 형상을 보다 높은 경지에서 완성하느라고 고심하였다.

나는 제1, 2부에서 부정인물들의 진에서 말석에 앉아있던 노불을 제3부에서부터 대결의 가녁에서 복판으로 서서히 떠밀어왔다. 그러나 제3부까지도 노불은 그리 개성이 없었으며 작품권내에서 말아안은 문학적과제도 크지 않은 인물로 남아있었다. 물론 나는 구상단계에서 노불을 중히 써먹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작품이 진척되어 극이 첨예화되어가자 하지와 브라운은 무초에게 바통을 넘겨주고 무대에서 퇴장하고 왜소하게 그려졌던 노불의 성격이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으며 따라서 차지하는 지위와 뭉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나는 제4부에 와서 노불에게 《력사의 대결》의

50년증거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였다. 노불이 제4부의 마지막무렵에 《조선권력기》를 구상하면서 종장으로 쓰려고 한 주장과 결론은 곧 《력사의 대결》에서의 미제의 조선침략사의 종장으로 될것이다. 나는 그것을 통하여 노불의 결론이야말로 곧 력사의 대결에서 얻게 될 미제의 마지막비명이며 력사의 교훈으로 되리라는것을 만천하에 선언하고싶었다.

나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마지막장면으로 미제국주의를 대표한 무초와 남조선의 애국진영을 대표한 정시명과 대결장면을 설정하였다. 원래 이 장면은 다부작장편소설 《력사의 대결》이 나오면 한권한권을 두 세번씩 읽어본다는 한 로인이 보내온 편지에서 우연히 착상되었다.

당시 투쟁의 참가자인 로인은 제2부가 나왔을 때 보내온 독후감 뒤끝에 그때 일을 감회깊이 회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전쟁전 어느날이었다오. 신문에 무초가 성시백동지를 만나봤다는 기사가 실렸지요. 30분간 만나고나서 전향시켰다나. 간특한 양놈들, 이렇게 모함해서 애국세력을 동요시키려고 했다오.》

로인이 보내준 편지가 제4부의 마지막에 설정된 주인공과 무초, 노불과의 대결장면으로 재현되었다.

이 장면에서 나는 조선민족의 불사신의 성격적 특징을 체현한 주인공앞에서 위압되고 머리숙여야 하는 노불과 이 땅을 타고앉아야 할 식민지 《감독관》으로서의 사명감사이의 모순속에 번민하는 무초와 제놈들의 렬등의식과 미제의 패배로 끝날 《력사의 대결》의 종점을 재확인하는 노불을 보여줌으로써 미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성격화를 새롭게 시도하고 소설의 철학적깊이를 심오한 성격속에 보장하려고 하였다.

이밖에도 시대를 폭넓게 담느라고 했고 복잡다단한 정치의 리면사를 펼치려고 했고 등장인물들을 수많은 등장시킨 다부작소설이었으므로 고민거리도 많았고 고충도 컸다.

민족성을 구현하는 문제, 작품의 묘사의 깊이와 속도를 보장하는 문제, 함축과 비약, 언어구사 등 소설의 묘기를 터득하고 작품창작에 구현하는 문제 등 나름으로 모대김도 있었고 교훈도 적지 않았다.

책을 다 끝내고보니 후회도 많다.

작품후기에서도 고백했듯이 나의 펜이 원숙하고 나의 탐구가 보다 진지하였더라면 보다 매력적인 형상들과 주옥같은 필치로 통일운동의 선각자들을 빛내이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적인 위업에 보다 무게있는 기여를 하였을것이다.

서투른 재간에 덤비며 쓰고나니 설익은 과일처럼 뽕뽕하고 거친 구석도 적지 않다.

나는 다시금 신들메를 조인다. 경험과 교훈은 성공의 밑거름이라는 말도 있으니 분발하고 분발해서 독자들의 기대에 보답하고자한다.

독자들이 많은 소설, 시대와 더불어 오래 전해지는 소설-이것을 창작하려는것이 나의 욕망이며 리상이며 고민이기도 하다.

막장시간

주 경

땅우에선 보이지 않는다
천년암반을 밀며
탄벽을 허물어내며
한초한초 흐르는 막장시간은

허나 나는 보았노라
탄부들이 땀 흘리는 그 시간에
태어나는 땅우의
모든 시간들을

한발과 해체끼고도
두드러진 굴천정때문에
끝끝내 세우지 못한 동발 한대를 두고
넘겨주어야 할 교대시간앞에서
탄부들은 막장을 떠날줄 몰랐거니

여기엔 없었다 시간의 예비가
못다한 계획량을 보충할 ...
우리들이 흘린 땀방울이
조국앞에 석탄의 무게로 검증되는
탄부의 이 시간앞에는

착암기가 고장나면 정대와 함마를 들고
전차가 멎어서면 광차에 어깨를 들이밀고
한치한치 운탄선으로 밀고오르며

가장 간고한 시련의 나날에도
자신보다 먼저 석탄을 생각하며
쌀대신 압축공기를 달라고 웨치던
그 뜨거운 숨결로 흐르는 막장시간이여

탄벽에 뜨거운 가슴 대이고
장군님 헤치시는 전선길을 생각하며
달아오른 착암기로 땅속길을 열어가며
지하의 별무리로 흐르던 막장시간이여

순간의 멈춤을 모르는 이 시간에
장군님의 혁명시간에
폭풍과 우뢰를 더하여주고
용해시간을 단축하여 류출구를 터치는
붉은 쇠물의 화광으로 타번졌나니

너는 땅우에서 웃누나
달덩이같은 아기를 품어안고
단꿈꾸는 너인의 머리우에도
최첨단과학의 세계를 날으며
탐구로 지새는 사색어린 창가에도

오, 조국의 숨결에 박동을 맞추며
탄부의 한생이 흘러가는 막장시간이여
너는 수천일 땅속으로 깊어갈수록
조국땅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누나

가사

초소의 새벽까지

문기창

우리 초소 감나무에 내려앉은 새벽까지
그 무슨 새소식을 안고서 날아왔니
장군님 오셨던 못잇을 그 아침도
너는야 찾아왔지 반가운 새벽까지

자나깨나 장군님 오실 날 기다리는
병사들 그 마음을 너도야 잘 알리라

감나무가지에서 고운 날개 다듬고서
정담아 지저귀는 반가운 새벽까지

장군님의 사랑속에 행복넘친 우리 모습
너 먼저 보러왔나 반가운 새벽까지
령장의 축복속에 참된 삶을 누려가는
초소의 병사들과 다정한 새벽까지

그대의 심장

박 윤

끝이 시작으로 되다

행복한 사람은 대체로 자기가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근심이 많고 늘 오늘의 시각이 불쑥 끝나버리길라도 할듯 래일을 위하여 삶을 초조하게 이어가는 인상이다. 이것은 물론 사회와 집단을 위해 무시할수 없는 공적을 이룩하고도 자기앞에 항시 도달하기 어려워보이는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착실히 점령해가는 성실한 사람들에 한해서이다.

지금 나의 앞에 앉아있는 손박사가 바로 그런 류의 인물이다. 우리 나라 생물공학분야에서 일찌기 두각을 나타냈고 세계적인 관심사로 유전학자들의 이목을 끌고있는 클론기술을 현실화하는 데서 기수적역할을 한 그는 현재 과학원분원을 책임지고있는 일꾼이다.

우리는 대학동창이다. 40대말에 학계의 선두에서 보폭이 큰 걸음을 내딛고있는 이 친구는 대학 때에도 진취성이 강하고 승벽이 세여 자연과학은 물론 철학이면 철학, 역사면 역사, 지어 문학분야에 들어서서도 턱을 낮추는 법이 없어 은근히 나를 약올리곤 하였다.

공상의 시절이고 무턱대고 약속하고 내달리던 그 정열의 나날, 그 《욕망》의 구간에 나는 그에게 큰 《빛》을 지고말았다. 분자생물학적방법에 의해 현대의학이 전면방향전환될것이라는 그의 가설(소박한 대학생의)에 현혹되어 과학환상소설을 써내겠다는 터무니없는 약속을 했던것이다.

그 《빛》은 스무해동안 갇아지지 못하였다. 정신적 빛이 더 무거운 법이다. 그것은 명예와 존엄과 잇닿아있기때문이다. 인내성있는 《채권자》는 그 짧지않은 스무해나날 꾸준히 여러가지 가치있는 자료들을 보충해주면서 은근히 독촉해왔으나 줄기찬 생활의 격류속에서 나는 늘 시간에 쫓기우는 몸이었다. 어쩌다 시간이 나는 경우에도 과학환상문학이라는것이 내가 추구하는 소설문학의 견지에서 볼 때면 보얀 안개속에 가리워진 동화세계처럼 여겨져 도저히 펜을 들수 있는 현실감을 느낄수 없었던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하지만 독탐에도 용수가 있다고 집중창작시 장편소설구상의 여가에 머리를 쉬우려고 책 돌아앉아 어쩌다 가끔씩 소묘한것들을 두루 몽그려 남가리해놓으니 꽤 《물건》이 될것 같았다.

동행한 작가들이 둘러보고나서 한결같이 머리

를 끄덕이었다. 과학환상소설은 곧 원고지에 옮겨졌고 먼저 인연을 통하여 손박사에게로 가닿았다. 열흘이 지난 때 그 십년을 두번씩 묶은 《구렁이》 원고에 대한 의견을 들으러 나는 손박사를 찾아 분원으로 온것이다.

《그러니 끝냈다는건가?》

《목은 빗을 갇은셈이지...》

손박사는 책상 한귀퉁이에 놓은 나의 원고를 끄당겼다. 나는 무수히 접혀있는 원고묶음들을 쓰겁게 스쳐보았다.

그는 책장을 벌컥벌컥 뒤졌다.

《이보게 작가선생, 한데 말일세. 저 60년대초라고 기억되는데... 어느 한 나라의 머리원 박사 수십명이 모여 한세기후의 과학기술발전상을 예측한 가설들을 묶은 책을 물론 읽었겠지? 〈21세기 이야기〉 던가? 그야말로 마음을 봉 뜨게 하는 가설이었지.》

《그래서?...》

《허 참, 백년앞을 내다본 그 박사들의 환상은 불과 십년도 못되어 현실로 되어버렸지. 80년대에 인류는 벌써 책의 가설들을 전부 실현하고 멀리 뽕구었던 말일세.》

《그래서?...》

손박사는 두터운 안경너머로 슬쩍 나를 훑쳐보더니 녀자의것처럼 길고 흰 손가락으로 책상우에 놓여있는 나의 원고를 툭툭 쳤다.

《동무가 오랜 세월에 걸쳐 품들여 쓴 이 의미심장하고 형상성이 높은 환상의 책도 지금 내 눈앞에서 현실로 되어가고있다 그 말일세.》

《뭘라구? 혹시 동무가 환상소설을 쓰자는건 아닌가?》

손박사는 소리내여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철케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한참만에 서류철을 꺼내들고 돌아선 그의 얼굴을 올려다본 나는 저으기 놀랐다.

너부죽하고 편안히 생긴 그의 얼굴전체에는 방금 터뜨린 웃음의 흔적이 가셔지지 않았으나 감정표현의 예민한 부위들인 눈이며 입가엔 어쩐지 진중하고 다소 엄한 일종의 굳어진 인상이 점점 살아나고있었던것이다.

그는 한팔을 뻗 내젓더니 규격이 큰 서류들을 나의 앞에 내려놓았다.

《동무의 환상소설에서는 과학적환상이랄가 가설이랄가 그것을 몇마디로 요약하면... 인체에 병조가 왔다는것은 분자생물학적으로 그 부위의 분

자구조가 정상 상태에서 파괴된것이므로 환상적인 기구를 리용하여 병든 세포를 본래대로 만들어 사람의 건강을 순식간에 회복시키는 기적을 형성한것이라고 볼수 있는데...》

《놀랍도록 정확하면서도 짧은 분석일세.》

내가 수백매의 원고지에 형성한것을 그는 단마디로 말해버렸던것이다.

그는 비죽이 웃었다,

《현대의학을 령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대 발견이지. 아니, 동무 가설대로 한다면 전통적인 의학자체가 없어지고 말걸세. 얼마나 엄청난 환상인가. 얼마나 환희로운 미래의 세계인가. 온 세상 의사들은 모조리 <밥통> 이 떨어질걸세. 그저 인체특수진단컴퓨터와 병든 세포를 되살리도록 조정하는 동무의 분자생물학적종합기구만 있으면 되니까. 어떨까?...》

《이 환상이 바로 동무의 가설로부터 출발했다는걸 잊지 않았겠지?》

손박사는 자기 자리에 앉아 두눈을 쏘프렸다.

《그 문서들을 읽어보게. 립신해연구사의 논문이야. 나의 비양도 동무의 불만도 해소시켜 줄걸세. 한마디로 이 발명가가 개발한 제품은 약도 아니요 오히려 아무런 부작용도 없는 건강식품에 가깝지만 외부적인 생물 컴퓨터가 아니라 인체내의 <컴퓨터> 인 중추신경의 시구하부의 교감, 부교감을 조절하여 기본적인 병조부위들에 강력하게 작용하여 정상으로 만드는거야. 환상적인 설비가 아니라 이 원리와 이 땅의 고유한 고려약학적방법을 결합한 일종의 특수생장촉진물질을 발명개발하여 벌써 립상실천에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있네.》

나는 그만 아연해져서 그가 펼쳐놓은 논문을 주의깊게 훑어보았다.

한동안 시간이 흘렀다. 모든것이 선명하게 리해되었다.

《여보게 경남이. 개요를 보면 립상실험이 오래전 90년대 중엽부터 시작된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여직 묻혀있었나?...》

《난 이미 알고있었지. 이 발명도 발명가도... 하지만 나도 보수주의자인 모양이야 부연한다면 얼마전 이 발명품이 우리 공화국의 특허를 받았네. 과학원의 장철 박사가 알려주더군.》

《?!...》

《자연을 감상하는건 누구나 할수 있지. 그리고 그 자연을 관찰하는것은 지성이 있는 문화인이라면 또 할수 있지. 그렇다면 생각해보게. 한걸음더 나가 자연을 해석하는것은?... 탐구적인 리성적두뇌를 가진 연구자만이 가능할걸세. 하지만 친구, 자연속에서 그 심원한 원리를 찾아낸다는것은 큰심장, 놀라운 정신력을 지닌 발명가만이 할수 있는 일일세. 지금 나의 가슴을 치는건 뭔가? 우리의 선군시대는 그런 창조자들을 수많이

배출하고있다는것이네.》

나는 오래동안 나의 원고와 특허문건들을 한눈에 담아 바라보았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니 처음부터 다시 써야겠구만.》

《옳게 결심했네. 환상소설을 시작점으로 현실소설을 쓰게. 인간에 대한 뜨거운 심장을 지닌 한 탐구자에 대해서 말일세.》

분원창밖멀리 서쪽하늘가에 저녁해가 불타고있었다.

멀리 지는 해는 아름답다. 하지만 서운하다. 래일의 새날을 예상할수 없다면 저녁해를 보는이는 절망에 빠지고말것이다. 하지만 해는 래일 아침 또 뜰것이다. ...

운명의 시각

비바람이 속절없이 몰아치고있었다. 강우에 낮추 드리운 칙칙한 하늘, 어두운 회색구름이 광란하는 물결과 거의 잇닿아 온통 시뻘썩 안개의 세계를 이루고말았다.

하늘과 땅, 강물이 폭우속에 형체를 가릴새없이 흔들리고 기슭의 나무숲이 목메여 흐느낀다. 그 무엇을 하소연하듯, 그 누군가를 안타까이 찾고 부르는듯...

립신해는 아예 맥을 놓고 대동강기슭에 주저앉아버렸다. 복방의 힘산준령을 넘나들며 캐운 귀한 약재가 들어있는 가방이 비물에 젖어 황토색 땅빛과 같아져보여도 꿈만했던 그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수 있는가? 사람들을 위한 진정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일보다 더 허무한게 있을가. 근 달포에 가까운 나날을 마식령과 부전령 골짜기들을 뚫다가 돌아온 그의 눈에 안겨든것은 전등알마저 뿔아가버린 텅빈 실험실과 얼마전까지 놓여 있던 기구자리에 어지럽게 흩어진 유리관조각들과 장마비에 곰팡이가 쓸기 시작한 종이장들뿐이었다. 연구구성원들은 어디론가 뿔뿔이 흩어지고말았다.

지치고 고달픈 걸음으로 렬차에서 내린 그는 직방 최장수부국장을 찾아갔었다. 이미 연구조해 산소식을 허천에서 만난 지방연구사를 통해 전해들은 뒤여서 억이 막히는 첫순간의 격분은 지나가고 비교적 령정성을 되찾은 그였다.

산더미같이 쌓인 외국문도서들을 끄당겨 뒤적이며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적고있던 최장수부국장은 번쩍이는 시선으로 그를 훑어보고 책장을 탕하고 덮었다.

《기다리던참이었소. 왜 이리 늦었나?》

《허천역에 도착해서야 전달받았습니다.》

최장수는 아무말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중량감있는 어깨우에 걸쳤던 이른 가을외투가 금시 떨어질듯 위태롭게 흔들렸다. 한쪽 어깨를 긴장시킨채 책상을 에돌았다.

《림신해동무한테 미안하지만 연구조를 깨친건 어쩔수 없는 막바지였소. 문제는 말이야. 술에다 맹물탄것 같은 동무네 일이 점점 더 꼬였다는거야. 김창순이 말이야. 령감이 끝내 말썽을 일으켰거든. 그가 말은 치료대상들이 중태에 빠져 중환자실로 실려가는 소동이 없었더라면 그럭저럭 내가 육을 좀 먹더라도 눈감았을거야. 하지만… 어찌됐나. 리해하라우.》

림신해는 그냥 선택로 발끝에 떨어졌던 시선을 불시에 들었다.

《그 대상들이야 병조말기환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 치료도 부국장동지가 주관해서…》

《헛 참, 중환자실이 비좁으니… 시내의 구급환자는 다 모인것 같았대. 제길. 그… 김혜영녀성이 끝내 …》

최장수의 마지막말은 어쩐지 처량하게 들렸다.

김혜영… 일생을 딸애와 함께 살아온 녀인. 불치의 병에 걸렸어도 온화한 눈길과 다정한 음성을 잃지 않았던 녀인, 외동딸은 교원대학을 졸업하고 선교구역의 어느 소학교에서 교원을 하고있었다. 딸이 외손녀와 함께 가물치회를 해오면 그 녀자는 서둘러 나를 찾곤 했지. 웬일인지 최부국장은 병원을 돌아보다가 그 녀인을 만나면 금시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고 장대한 몸이 《졸아들군》했다.

《아는 사인가요?…》

부국장이 떠나간 다음 그는 입원실침대곁에 주저앉아 가물치회를 바라보았다. 그 옆에는 최부국장이 가져온 퍼티퍼티한 사과알들과 통줄임, 단물들이 놓여있다.

《대학… 상급생이었어요. 무서운 정열가, 눈에 띄는 활동가… 온통 처녀들의 심장을 사로잡았지요. 리상이 높고… 그 앞에서면 자신이 작은 존재로 느껴지고 가슴이 떨리고…》

녀인은 갑자기 침묵에 빠져 사과를 짹는 딸을 녀모았다.

최장수가 헛기침을 하는 바람에 그는 상념에서 깨어났다.

헛기침과 군동작에 가을외투가 방바닥에 툭 떨어졌다. 최장수는 육중한 몸을 놀리기 싫은지 그냥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부국장동지… 솔직히 말하면 C.C.F 개발은 완성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때… 이제 최후의 한걸음을 내걸으면…》

《됐소, 됐소 그런 녀두리는 골백번 들었소. 서당개 삼년이면 풍월외운다고 나도 그럭저럭 동무네 사업을 주관해서 그 속내가 흰해. 여보, 게다가 중이 머리짖는날 모기 성한다고 동무네가 매 재기를 치니 국의 재정부문이 또 들구일어난단 말이요. 예산은 커녕 지금까지 쓴걸 토하든가 그 무슨… 책임을 지라는거야. 그걸 막느라 내가 이

젠 지쳤소. 그 책임이란게 뭘지 알거나 해? … 그런 부담까지 동무에게 씌우겠는가. 모난 돌이 치인다고 림동문 물우에 뜬 기름형이야. 너무 팔딱팔딱하거든. 그전에 한 시인이 쓴 글이 있지? 먼길에 심장이 인츰 식으면 어찌어찌하나하구 말이요. 리론적연구를 좀더 깊이하우.》

《…》

홍분이 가라앉자 눈앞에 안개라도 낀듯 모든것이 뿌연게 보이고 온몸이 천근으로 무거웠다.

그는 비틀거리며 책상모서리를 손으로 짚었다.

《그리구!》 불쑥 최장수의 목소리에 목격한것이 실린다. 《시구하부연구는 동무네 독점물이 아니요. 세계적인 관심은 물론 우리 학계에서도 권위있는 학자들이 움직이고있소. 아직은 리론적측면을 더 중시해야 해. 먹은 소가 어쩐다질 않나.》

《만약…》 그는 두손으로 책상모서리를 짚고 갈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 연구과제를 림상실천으로 옮길 전망성있는 집단이 현실적으로 생긴다면 전… 모든걸 넘겨줄 용의가 있습니다.》

《헛 참, 사람두… 그런 용해빠진 소리 그만두… 그제 연구조일루 나갔다가 집사람을 보았소. 학교일이 힘든게야. 펍 상했더군. 손퐁금때문에 다니더구만. 우선 집안일부터 돌보우…》

최장수는 무엇이 안심치 않은지 뒤말을 얼버무리며 그의 눈치를 흘름 살폈다.

산해는 허탈상태에 빠져 사무실을 되짚어 나왔다.

비가 내리고있었다. 그리고 바람이 불었다. 그것은 거의 폭풍에 가까운것이였다.

그는 허둥지둥 폭우 쏟아지는 강변의 이끼덮인 바위에 주저앉아버렸다. 천둥소리가 하늘을 찢어 이어 퍼런 번개불이 또다시 번쩍이고 젖은 나무들이 목메여 뒤흔들었다.

이곳을 옛적에 술취한 사나이가 옷을 벗어던졌다고 의암이라 부른다지… 그 다음 고장은 취객이 쉬어갔다고 휴암이라 전해오고… 어린 날의 이강변…

산산이 깨어져나간 꿈, 흩어진 연구조성원들… 김창순아바이는?… 그리도 화려했던 출발… 남은 건 무엇인가? 서툰 학구의 선택이 오늘의 이 역풍을 몰아왔는가?…

그는 팔굽을 무릎에 꺾은채 턱을 틀어친 주먹에 고이고 상념에 잠겨버렸다. 비물이 불을 타고 흘러내려 목덜미로, 등골로 기어들건만 좌절과 충격에 단 심장을 조금도 식히지 못한다.

이런 꼴불견의 녀를 보고 전우들은 뭐라고 할가. 살아있거나 떠나간 전우들앞에 네가 무슨 면목으로 나선단 말인가?

…불보라빛 앵초꽃이 핀 초소길…

…무너지는 산사태…

…하얀 종이배가 떠가던 이 강변…

…애처롭게 물에 드러나던 소녀의 가냘픈 손…

… 비오는 만수대언덕…

…

…초소경계근무를 마친 병사들이 산길을 걷고 있었다.

해가 힘들게 뜨려 하고있다. 감빛노을이 비친 동켄 하늘밑 산마루가 더욱 컴컴하게 진해지고 초소길옆의 골짜기에는 고요가 깃들었다. 그것은 숨막힐듯 한 고요였다.

림신해는 가쁜 숨을 내쉬며 겨우 걸음을 옮기고있었다. 어깨에 멘 총과 장구류들이 밤새 축축하게 젖은 군복을 사정없이 잡아당긴다. 장구류가 이처럼 무겁게 느껴지기는 입대해서 처음이다.

경계근무장소를 떠날 때부터 갑자기 왼쪽배가 켜기여 뒤덜미로 식은땀이 흘렀으나 안간짓 허리를 펴고걸었다.

앞에서는 삼수내기 분대장이 겨우 드러나는 오솔길의 새초가지들을 무릎으로 가볍게 툭툭 치며 재빠르게 걷고있다. 작달막한 키에 박달나무처럼 단단한 그 잔등이 잡관목속에 묻히기도 하고 가운데 선 부분대장의 허우대 큰 모습에 가리우기도 한다.

분대장의 등은 늘 믿음직했다. 그 떡판같은 등을 바라보거나 뒤따르면 두려운게 없었고 막히웠던것이 사라졌다,

조금만 더. 이제 곧 초소병영이야… 넌 병사야. …

순간 눈앞이 어질어질해지고 파란 쪽빛하늘이 발밑으로 빙그르르 돌아간다. 축축한 흙에 단 얼굴이 닿자 림신해는 가까스로 눈을 떴다. 까풀진 눈시울앞이 온통 붉은빛이다. 그래, 초소에 산불이 일어구나. 머리가 불덩이같이 달아올라 저렇게 보이는걸가.

눈을 크게 뜨자 그 불그레한것이 선명하게 안겨들었다. 잎꼭지가 길고 잎몸이 둥글넙적한 붉은 보라빛 영초꽃이 꽃잎을 하늘하늘하며 그의 불을 스치고있는것이다. 림신해는 불안간 정신이 혼몽해치는것을 느꼈다.

(영초꽃 의암의 대동강기슭… 하얀 종이배 …)

《음, 열이 있구만… 근무장소를 떠날 때 낮색이 이상하다 했더니… 자, 부분대장동무, 이 친구를 바로 늑시오.》

거울진 병사가 손을 뻗치자 림신해는 신음소리를 내질렀다.

《엄살은 작작 부리게… 분대장동지, 아예 제게 업혀주십시오. 제창 군의소로 갑시다.》

《두다리를 굽혀 세워야지 그러단 정말 정신을 잃겠소. 배아픔이 찌르는듯 할거야, 좀 보지요.》

분대장의 따뜻한 손이 군복섶을 뒤흔치고 배를 쓸어 만지며 점차 힘을 가한다. 팔목을 당겨 맥을 보는듯 싶더니 이어 군화를 벗기고 발바닥가운데를 더듬는다. 한순간 발바닥을 불로 지지듯한 찌릿한 아픔에 림신해는 악 소리를 지르며 벌떡 몸을 일으켰다.

분대장은 건어울렸던 군복소매를 내렸다.

림신해는 영초꽃무더기곁에 주저앉아 눈이 등그래져서 두 사관을 바라보았다.

《어때?…》

《분대장동지, 아픔이 … 짝 멎었습니다.》

강창모분대장은 빙긋빙긋 웃기만 했다.

부분대장이 입맛을 켜켄 다셨다.

《제길… 신대원이니 어쩔수 없지. 여 신해동무, 우리 분대장동지로 말하면 우리 사단적으로도 이름이 짜해! 정치위원동지가 군의소장까지 보내서 의술을 배워가게 한단 말이요.》

《됐소. 부분대장. 의술은 무슨… 고향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뉘렸는지 아나? 의술은 인술, 사람을 귀히 여기고 달라붙는게 기본이됐어.》

《할아버지가 의사였습니까?》

림신해의 두눈이 이제는 반짝거리기 시작한다.

《응, 저 삼수땅에선 한타하는 고려의였지. 그덕에 나두 중학때 허준. 로중례의 의술고문서들을 더러 읽었어. 할아버지의 회초리에 종아리를 맞으며 말이야.》

〈고려의학보감〉, 〈의방류취〉… 할아버지가 갖고있는 옛서의 첫머리에 뭐라고 썼는가 하니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는자에게는 함부로 이 책을 보이지 말라고 했어. 그만금 신기하고 예민한 비방들이 가득차있었지. 우리 선조들은 정말 대단했어. 이걸 우리가 앞날에 학술적으로 전개하고 발전시켜야겠는데…》

《야, 분대장동진… 정말 대단합니다.》

분대장이 탄성을 지르는 림신해의 군모를 폭눌러 씹었다.

《아직은 일러… 우리 신해동무는 화술이 좋은 걸 보면 화선방송원감이야.》

《평양학생소년궁전 화술소조에 다녔습니다.》

《제길, 분대장동진 장차 의학대학으로, 림신해는 연극영화대학으로… 난 뭘 한다?…》

부분대장이 한탄하듯 투덜거리자 강창모는 흰대문이를 드러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우리 전상철동무야 탄광내기고 완력이 있으니 이제 큰 탄전의 지배인감이지.》

부분대장의 입이 합치처럼 커졌다.

…초소의 나날, 어제날의 중학생들이 언땅에 배를 대이고 더운 숨결로 총가목을 덥히며 끝끝한 대장부로 되여가던 시절, 예술선전대에서 은근히 림신해의 잔잔한 화술을 탐내며 우아래를 들쭈시었으나 정든 분대와 헤어지기 아쉬워 그는 중대의 《화선방송원》으로 산발을 오르내리는데 만족을 느꼈다.

그래, 앞으로 복무를 마치고 평양연극영화대학에 가서 마음껏 배우자. 화선선동과 함께 오락회때면 부드러운 중음으로 군가도 불렀다. 군부대에 예술선전대에서는 그들대로 화술과 목청이 좋은 그를 데려가려고 원심을 썼으나 박철진정치위원을 설복해낼수 없었다.

《본인이 바라오?》

《신해동무는… 당조직에서 하라는대로…》

선전대장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다.

정치위원의 눈에 만족한 빛이 어리다.

《후에, 후에 보지요. 팔은 안으로 휘지 밖으로 굽지 않소.》

《정치위원동지, 후에 보자는 사람 무서운게 없

습니다. 우린 그래도 림동무 부탁대로 술한 의대 교과서들까지 가져왔는데…》

《의대교과서는 왜?…》

《무슨 자기네 분대장이 의학대학입학시험을 친 다던지…》

늙은 중좌의 두어깨는 축 처지고말았다.

《여보 대장. 아직도 모르겠소. 전번 화선공연 나왔을 때 동무네 피꿀새말이요. 배탈이 난걸 지압으로 제격 고쳐준 땅딸보…》

《아, 그 삼수내기 대문이 !…》

《나도 가끔 부상자리때문에 신세를 지지. 림신해가 그 분대장직무를 넘겨받아야 할 때가 됐소.》

박철진은 씹쓸하게 중얼거렸다.

…사단군악대가 비장하게 추도곡을 불고있었다.

희끗희끗한 차거운 눈가루가 초소의 상공을 덮었다. 비감과 울분에 젖은 군인들의 열기에 그것들은 땅에 내리는듯 마는듯 녹아버리고 발밑에 질척거린다. 림신해는 그저 망연히 서서 나지막한 봉분앞의 검은테를 두른 크지 않은 사진속의 분대장의 모습을 넋을 잃은채 바라보고있었다.

한순간 날카로운 설음과 걱정이 림신해의 심장을 비수가 되어 허비는듯싶었다. 그렇게 분대장은 활짝 웃고 있었다. 전상철부분대장이 밤새 배낭고를 뒤지고 사진첩을 번졌으나 그 이상한 사진밖에 없었다.

박철진정치위원이 발은 이마밑의 가는 눈을 쏘프리고 갈린 어조로 부르짖었다.

《…동무들, 강창모분대장은 비록 우리결을 떠났으나 그의 영웅적희생정신은 조국과 함께 남을 것입니다.… 놈들이 눈사태를 리용하여 불의에도발을 걸어왔을 때 그는 마지막순간까지 신성한 조국의 초소를 지켜냈을뿐만아니라 동지들을 목숨으로 구원하였습니다.…》

마가목숲속에서 불시에 적들의 불줄기가 날아올 때 림신해는 철조망이 흘러간 골짜기앞을 감시하고있었다. 분대장은 림신해의 몸을 그 역센등으로 막으며 대응사격을 하였다. 전투가 끝나자 분대장은 부분대장의 무릎우에서 조용히 눈을 뜨고 림신해를 올려다보았다.

《신해… 이제 의학대학에 가면 한번 본때있게 공부하려했는데… 내 책들을 기념으로…》

분대장의 대문이가 저녁빛에 빛났다. 분대장의 결, 화염에 탄 전호가에 마른 앵초꽃줄기들이 뿔쳐져 덩굴고 있었다.

림신해는 가슴이 옥죄여들었다.

《분대장동지…》

어쩌면 그 순간 분대장은 대원들앞에서 웃어보이려 한것 같다. 하지만 그 웃음은 피어오르려는 도중에 영영 굳어지고말았다.

…이태후 림신해는 분대장이 애지중지하던 그 사연 많은 의학교과서들을 넣은 배낭을 등에 진채 의학대학의 교문을 두드렸다…

하얀 종이배가 떠가는 기슭

타격은 너똥나도 엄청난 곳에서 가해져왔다.

림신해는 중학교교원인 안해가 얻어온 아직도 인쇄 잉크냄새가 가볍게 풍기는 최신의학잡지를 손에 들고 한동안 멍하니 서있었다.

연구조가 해체된 다음 근 반년째 퇴근후면 집에 불박혀 연구사업에 몰두해오던 그여서 언제 신문잡지같은것을 들여다볼 새도 없었다.

얕팍한 잡지의 맨 서두에 실려있는 소론문.

아니, 거기에는 얼핏 보매 분자생물학적투시로 고려의학의 새로운 발전분야를 개척하려는 의도가 그지없이 높은 안목에서 여러가지로 무게있게 서술되어있지만 역시 알맹이는… 림신해의 것이었다. 그것은 내용에서만이 아니라 전개방식과 구성, 연구체계까지 그대로 복사한것이나 다름없었다.

혹시 국에서 우리를 생각하여 연구방향을 그대로 서둘러 발표했는가?

제목밑에는 집필자의 이름이 없었다. 허전했으나 선뜻 글의 마지막 뒤부분을 들여다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제 한장을 더 번지면 소론문의 끝이 나타나고 그밑에 집필자의 이름이 있을수 있다. 무엇인가 서늘한 느낌이 등뒤에서 풍기면서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조여든다.

소론론의 마지막장을 켜 림신해의 손이 가볍게 떨렸다. 예감은, 심장은 이 순간 안타가이 부르짖고있었다. 이제 이 한장을 번지고나면 너는 한 인간을 얻든가, 잃을것이다… 이 인쇄잉크냄새가 가볍게 풍기는 희지 못한 종이 한장뒤에 믿음, 배신이, 희망이, 좌절이 숨겨져있다고 생각하니 억이 막혔다.

힘난한, 오랜 과학탐구의 나날에 어언간 그의 심장은 철처럼 굳어지고 성격도 지나칠정도로 침착해져버렸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팔딱팔딱한 성질이라고 하지만 하나의 조그마한 약재를 놓고 사흘간을 물 한모금 입에 대지 않고 현미경을 들여다볼수 있는 검질긴 사내가 바로 림신해였다.

지금도 림신해는 그 마지막을 엄지손가락과 장지 사이에 끼여쥐고 부동상태로 굳어져있다.

(그래, 지난해 겨울 연구조에 급히 나타난 그는 예산문제때문에 자료가 필요하다고 했지.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와 전망을 구체적으로 개괄하여 서면으로 제출할것을 요구했지. 희망속에 기대속에 웅근 이들을 품들여 작성한 그 문건을 나는 감감 잊고있었다. … 만약, 막부득하여 연구조를 해산한 미안감에서 이 소론문이라든 나의 이름으로 발표해줄 선의의 의도였다면…

아니. 설사 누구의 이름으로든 우리의 연구지향에 학계에 알려져 사람들의 관심속으로 들어온다면 그건 대단히 중시되어야 할 일이다. 우리 모두가 기뻐해야 할 일이다. 내가 무엇때문에 사사로운 감정에서 이처럼 안절부절 못하는가, 너 줄장부야!…)

번졌다. 손끝이, 눈길에 굳어졌다, 숨길이 막혔다.

소론문의 맨 마지막 문장뒤에는 론문글체보다 더 작은 활자로 거의 눈에 띄이지 않게 소박하게 《최장수》라는 부드럽게 울리는 이름석자가 올려다보고있었다.

...

무궤도전차정류소자 내려다보이는 길옆 아파트 5층의 두칸짜리 집 늦은 밤.

림신해는 창밖을 내려다보고있었다.

락엽이 깔린 보도로 나이지숙한 령감이 천천히 걸어가고있다. 그뒤로 한 녀인이 공손히 뒤따르고있다. 령감은 무궤도전차 정류소앞에서 잠깐 주춤거리더니 그냥 휴암동쪽으로 걸음을 옮긴다. 문득 돌아서서 바래주는 녀인의 인사에 가볍게 몸짓으로 응답하고 무춤 걸음을 땀다.

망연히 서있던 녀인이 화닥닥 놀라며 손에 든 가방을 달려가 령감의 어깨에 메워준다. 가방은 속이 겨우 반이나 찬듯 체소한 령감의 어깨를 파고드는 기색도 아니다.

문득 가슴을 무딘 칼로 도려내듯 찢린 아픔이 전신을 훑는다. 령감은 방금전 저 훌쩍해진 가방에 수십년간 자기가 연구해온 자료들과 그리고 중요하게는... 잃어졌다고, 혹시는 최장수네가 가져갔다고 여겼던 림신해의 실험일지들을 넣어가지고 찾아왔었다. ...

《아니, 그럼?...》

림신해는 놀라서 김창순의 손을 맞잡았다.

김창순은 눈길을 내리칸채 연구자료들과 실험일지를 꺼냈다.

《허허, 동무가 그 알량한 의학잡지글을 보고 락심해할것 같아서 다 걸어안고 왔네. 동문 그때... 이 실험일지들을 불태워버리겠다고 울근불근 했었지? 허허허...》

《아바이, 내 오늘 인생에서 큰 실망을 안았다가 아바이덕에 신심이 생겼습니다. 한 인간을 잃었다는 상실감에 가슴이 비였었는데 아바이같은 참인간을 대하니 속이 풀리고 힘이 생깁니다. 내 그게 기뻐 이러는겁니다.》

림신해는 김창순이 한생 탐구한 문서보따리를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이 사람. 난 동물 의학대학에 다닐 때부터 눈여겨 보았네. 기운을 잃지 말게. 우리 수령님께서 가르치심을 주시지 않았나. 우리 조선사람들이니 의술도 마땅히 우리 식으로 해야지. 동문 의지가 굳고 명석하고 사람이 근실하니 꼭 해낼거야. 칠순가까운 사람의 말을 듣게. 그저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 말씀대로만 하면 랑패가 없어. 이제 빛을 보면 조선사람들이 더 억세지네. 우리 인민이 말일세! 그들이 우리 장군님을 더 잘 받들게 아닌가! ...》

《좋은 말씀을 해주어 고맙습니다. 아바이... 내 진심을 말하랍니까?》

《말하게.》

《섬섬해하지 않지요?》

《원, 무슨 말을...》

림신해는 눈길을 내리깔았다. 그 순간 무엇인가가 자기의 귀밑에 와닿는 느낌이 들었다. 그것이 예민한 안해의 눈길이라는것을 알았다.

개의치 않았다.

《전... 아바이, 아바이가 끝낸 지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 ...》

《이건 어쩔수 없는 일입니다. 창순아바이는 한생의 밑천을 마련했습니다. 그 밑천을 바탕으로 우린 새롭게... 솟아올라야 합니다. 아마 제가 성공하면 그 아바이의 아홉에 저의 하나가 보태진 것일것입니다. 빙산일각이라고...》

문득 김창순이 다시 눈길을 들었다. 그가 눈을 올려뜨는 일은 극히 드물다.

김창순의 눈에 밝은 빛이 가득 찼다.

《웁게 결심했네. 바로 그거야. 난 그저 밑거름이 되면 족하네. 동무가 싹틔워 키워 맺히게 하려는 열매는 전혀 새로운 창조물이라는걸 명심하게. 과학탐구에서는 체면이나 인정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해, 난 그저 동무가 성공해서 장군님께서 아끼시는 우리 인민들의 얼굴이 늘 밝았으면 해!》

림신해의 앞에는 또 한명의 《분대장》이 서있었다.

《고맙습니다, 창순아바이.》

《그런데 이젠 연구조도 없으니 어쩔셈인가?...》

《아바이, 그 누구도 저에게서 빼앗지 못하게 있습니다. 시간과 저의 정신력이지요.》

《허허, 우리 병원에서 오게. 당비서가 새로 왔네... 제대군관출신인데 마음에 들더군요. 나와 많은 이야기를 했지. 함께 손잡고 일할수 있는 사람갈네.》

《...》

《내 평생에 믿는게 하나 있지. 우리 사회는... 좋은것이 기본을 이룬다는거야. 이걸 명심하게! ...》

김창순을 바래준 안해가 둘째딸 설희와 함께 방에 들어섰다.

《여보, 설희가 아버지앞에서 노래를 부르겠대요.》

《?...》

림신해는 새삼스러운 눈길로 어린딸을 바라보았다.

《학교에서 이 애를 다음해 평양예술학원에 추천한대요. 벌써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이 애 노래를 듣고 갔답니다. ...》

안해의 눈가에 따뜻한 빛같이 찰랑거렸다.

《우리 설희가...》

노래, 화술... 까마득히 잊혀진 멀고먼 옛시절의 아름다웠던 꿈이...

딸애는 복스러운 동그스름한 얼굴이 저으기 밝그레 해져가지고 실직한 흰 무릎을 파란 교복치마로 감싼 채 방바닥에 주저앉아 손뽕금을 펼쳤다.

아직 서툴어보이는 손뽕금소리가 방안을 흔든다. 림신해는 아예 눈을 감고말았다. 어쩐지 딸애의 노래소리를 듣는것이 두려웠다. 마음이 더 약해질것 같은감이 들었다. 머리까지 수그렸다.

노래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해마다 봄이 오면
산과 들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

림신해는 눈을 뜰수 없었다. 늘 듣던것 같은 안착되고 은근하고 가슴 밑바닥을 적시는 노래소리가 소박한 작은 방안을 가볍게 흔들기 시작했다. 물이 출렁이는 소랭이처럼, 딸애가 손뽕금을 멘 어깨를 흔드는지 노래소리도 출렁출렁 하며 멀고가까와지며 그의 심혼속으로 흘러든다.

딸애, 딸애의 목소리... 잔잔하고 애잔하고 향수와 애수에 젖은것 같은 따뜻하고 서글픈 메아리...

림신해는 그냥 눈을 감고있었다...

안개낀 의암의 대동강기슭, 눈석임물, 두 아이가 기슭에 서서 눈처럼 하얀 종이배를 강물위에 띄우고있었다. 하얀 종이것을 돛대마냥 곧추 세운 조그마한 배는 기슭에서 맴돌며 좀처럼 길을 잡지 못하더니 이윽고 바람에 밀려 움쉴 떠나기 시작했다.

불에 동동
꿈에 동동
하얀 배가
가는 그곳
...

저 종이배가 어디까지 갈까? 꿈과 희망과 소원을 싣고 멀리멀리 어디로 갈까? 그때도 더벅머리 소년은 눈을 감고 머리속에서 대양을 헤쳐가는 흰 기선을 상상해 보고있었다.

문득 새된 비명소리에 소년은 눈을 떴다. 떠나려가는 종이배를 건지려고 물벽에 들어섰던 소녀가 파란 치마폭을 불안고 헤엄비다가 눈석이물 사품치는 강물에서 아우성을 친다.

《신해, 신해야! ...》

소녀의 빨간 고사리손이 종이배를 잡은채 눈앞에서 얼른거린다.

성정이 침착한 소년은 그냥 한포레 소녀의 모습을 재미있게 바라보고만 있다. 한참만에야 기슭에 덩구는 작대기를 쥐고 강벽에 들어서서 소녀에게 내밀었다. 소녀는 그통에도 종이배를 놓지 않고 다른손으로 작대기를 잡은채 기슭으로 걸어나왔다. 새침해서 눈이 울롱해서 종알거린다.

《넌 내가 물에 빠져죽는데두 그냥 눈만 감구서...》

《명숙아, 우리 이 배를 봐줄까?...》

《싫어 ...》

《이 종이배 저멀리 바다까지 갈거야.》

《바다?》

《응. 》

소녀의 새별눈이 반짝하고 빛난다.

《그럼 봐주자,》

소년소녀는 봄시위물결을 따라 안개속으로 멀리멀리 사라지는 그 하얀 종이배를 오래도록 바라보고있었다, ...

《명숙동무, 스무해만에야 이 기슭에 함께 왔구만. 저 강굽이와 의암은 변함없어.》

《난 매해 학생들을 데리고 여기 오곤 해요.》
《나도... 병사시절 가끔 우리 의암을 생각했소. 그리고 그 종이배두...》

《이젠... 졸업두 멀지 않았지요?》

《몇달 안남았소 그냥 연구원으로 넘어갈것 같아.》

《애야, 신해야, 넌 어찌자구 그러니? 이젠 저량명숙이두 스물아홉이다. 그곳 중학교 교장선생이랑 여간 근심이 아니야.》

《어머니, 동갑인데 제가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직 전 달리기경주로 말하면 출발선에 있어요.》

《원 애두. 집에 데려다 앉히면 내가 다 조치하지않으리. 그랜 널 기다려... 내 해묵은 속달두 그애 정성에 털었다. ...》

《명숙동무, 내가 막 미웠지?》

《믿음이 있으면 생활은... 견딜만 하답니다.》

《앞으로도 그 믿음만을 가지고 날 기다려야 할거요.》

《전... 바다를 향해 떠가던 그 종이배를 늘 생각해요. 그것이 역세고 큰 기선이 될때까지...》

바다를 향해 떠가는 하얀, 하얀 종이배...

...소녀는 처녀로 처녀는 안해로, 안해는 어머니로! 세월도 강물도 바다로...

그대 바라는것은

《제일 어려운 때가 있었겠지요?...》

그는 나의 물음에 그저 시무룩이 웃음을 지을 뿐이었다. 사무실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었다. 40대 말이지만 아직 머리에 흰오리 한점 없고 살갗은 탄력있고 잔주름조차 없는 단정하고 친근한, 동그스름한 조화로운 얼굴이다. 체구는 다부지다. 어깨가 넓고 근육이 여전히 풀리지 않은 중년의 사나이... 좌절과 시련을 헤쳐온 사람치고는례외적인 결모양새다. 그가 만들어낸 새세기의 기적적인 《건강식품》때문일까?

《작가선생,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학탐구의 길에서 진짜 어려운 때란 별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때와 마주친다면 제 경우엔 그걸 굳이 희열이라고 해야겠습니까.

저의 연구과정은 책상우에서 흐르게 아닙니다. 아마 그 대부분은 현지 산발들과 환자들속에서 지나갔습니다. 빛이 꺼져가는 생명을 소생시켰을때의 기쁨, 그건 아마 작가선생도 이해하기 어려울겁니다.

언젠가 제가 대학시절인 저 80년대에 북부철길 공사장에 실습을 갔던적이 있습니다. 그때 평안남도려단 군의소장인 한 의사의 모습을 일생 잊을수 없습니다. 신경외과의사인 그는 락반사고로 머리를 다친 한 애어린 청년돌격대원을 수술하였는데 제가 조수로 함께 참가했습니다. 머리를 헤치자 종래의 의학이론이나 림상실천상 상상할수 없는 상태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뇌조직이 출혈로 피범벅이고 벌써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살린다는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더군요. 그

때 제대군인출신의 그 의사는 조금도 당황해하지 않고 입안을 소독한 후 그 피범벅을 오래도록 조심스레 입으로 다 빨아낸 후 봉합했습니다. …》

《?…》

《그 박견학사는 현재도 도병원에서 중진으로 활동하고있고 그 환자는 지금 어느 한 시의 청년 동맹1비서로 사업하고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 의학에 몸잠근 사람에게는 이것이 기본입니다.》

《!…》

《제일 어려운 때에도 확고한 과학적신념과 주장만 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본은 자기자신을 이겨내지 못할 때가 제일 어려운 험산준령이라고 할지…》

불쑥 림신해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의 탄력있는 젊어보이던 얼굴에 고뇌에 가까운 심상치 않은 빛이 깃들고 눈귀에 잔주름이 잡혔다. 그는 이 순간 늙은이처럼 보였다.

《?…》

《저는 지금도 폭우 쏟아지는 7월의 만수대언덕을 잇을수가 없습니다. 밤새 비를 맞으며 그 언덕에 서서 우리 수령님을 그렸습니다. 우리 의학자들의 무능으로 청천벽력같은 민족의 대국상이 왔다는 죄악감과 좌절감으로, 옥죄어드는 심장으로 비오는 새날을 맞을 때가 제일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제가 만들고있는, 제가 얻으려는 자연성을 잃지 않은 특수생장촉진물질만 발견했다 하면… 물론 소박한… 소원이었지만 희생된 분대장앞에 도저히 면목이 없었습니다.》

《!…》

《그리고… 더 어려운 때는 자기자신과의 투쟁에서 물러선 때입니다. 그게 바로 연구조가 해산되고 연구소에서까지 나와 건설현장에서 목고채를 메고 정신이 아니라 육신을 내대며 땀을 흘리던 그 가을이였습니다.

모든걸 꿰버리고 차라리 성실하고 평범한 로동으로 신성한 조국을 만들겠다는 일면적인 생각까지 겹쳐들었을 때 김창순아바이가 또 찾아왔더군요.

저는 퇴근후에 새로 왔다는 그 당비서를 만나러 병원으로 찾아갔지요. 작가동지, 그 당비서가 누구였겠습니까? 정말, 생활이란 참… 만날 사람은 아무리 피해도 종시 만난다더니…》

《누구였습니까?…》

나는 그를 넘겨다보았다.

《저의 병사시절 상관이었던 박철진정치위원이였습니다. 전연에서 입었던 부상으로 여러해동안 입원생활을 하다가 제대된 그는 중앙병원 당비서로 사업하고있었던것입니다.

정말 뜻깊은 상봉이였습니다. …

구내를 돌아본 제가 병원후방부의 구석진곳의 빈 창고를 연구조 실험실로 쓰고싶다고 하자 그가 뭐했는지 압니까?

〈신해동무. 동문 왜 외딴곳을 택하려 하오? 그 전에 강창모분대장은 늘 병사들속에서 의술도 익히고 또 병도 고쳐주곤 했는데…〉

〈그렇지만…〉

그는 발은 이마밑의 가는 눈을 쪼프리고 내 어깨를 조용히 다독이며 미소를 짓더군요.

〈이렇게 하면 어떨소? 차라리 우리 고려과 치료실의 한방에 틀고앉아 연구도 하고 환자치료도 함께 하면 말이요. 실험실도 늘 리용할수 있소. 우리 원장동무도 좋아할거요. 이게 더 실리있지 않을까?〉

나는 그만 눈물이 핑도는 시선으로 활짝 웃고 있는 당비서를 바라보며 투덜거리지 않을수 없었지요.

〈정치위원동진… 또 본위주의군요. 그러니 환자들속에서… 이건 정말 껌먹고 알먹고…〉

〈둥지털어 볼때는 격이지.〉

그는 저의 어깨를 붙안고 병원구내의 정원길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보. 내 창순연구사에게서 다 들었소. 마음고생을 많이 했더구만. 우리 원장이 처음 주저했지만 반대하지는 않았소. 함께 일해보자구. 한가지 만은 명백히 하기로. 우리의 주체의학은 명실공히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인간사랑의 사상을 구현해야 한다는거요.

신해동무, 동문 현대분자생물학의 최신성과를 전통적인 조선고려의학의 토법으로 완성하려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가. 난 말ियो, 어제 최장수부국장의 전화를 받고 좀 주저했지만 밤새 생각을 거듭하던 끝에 결단을 내렸소. 상급당조직도 동무문제를 제기하자 새 의학 분야를 개척해서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려는 이 사업을 지지해주었소.

x x 병원의 물리치료과장으로 일한다는 김경호 동무는 새로 개발한 기능진단프로그램을 리용하여 연구조일을 적극 돕겠다고 소식을 보내오고…〉

작가동지, 이런 건실한 집단과 진실한 동지들의 믿음이 있다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긴장한 탐구의 나날속에 김창순아바이의 〈갱생 1〉을 토대로 중추신경조절을 위한 발명이 점차 무르익어갔습니다. 그리하여 다음해 봄에는 드디어 연구의 심장부라고 할수 있는 특수생장촉진물질 C.G.F를 합성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

두툼한 서류가방을 옆구리에 낀 최장수부국장은 고려과 치료실과 입원실들을 돌아보고나서 마원장을 마뜩지 않게 쏘아보았다.

《제길, 일하는 본때들이란… 전화로 말한 대책을 토의하지요.》

《에…》

최장수는 원장방의 팔걸이결상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가쁜 숨을 내쉬며 이따금 손으로 가슴을 두드렸다.

《원장동무 어째서 이 병원에서는 국의 지시가 먹어들지 않소?》

마원장이 출입문결에 불편스레 서있는 림신해의 눈치를 흘끔 살피며 어깨를 낮추었다.

《부국장동지, 이미 보고했지만 당위원회에서 토의하고…》

《당비서동무는 어디 있소?》

부국장의 목소리는 저이기 부드러워졌다.

《일이 있어 출장을 갔는데… 오늘래일 돌아올 것 같습니다.》

《당비서동무문제는… 음, 마원장,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의학기술은 주관적육망으로 해결될수 없소. 참새가 황새걸음을 할수는 없단 말이요.》

최장수는 또 심장부위를 두드리다가 그냥 마원장을 바라보며 어성을 높였다.

《동무네가 정신이 있는지 모르겠소. 동무네가 개발했다는 C.G.F 는 국산하의 전문실험실들에서도 전혀인정하지 않소. 조성과 테타를 내놓으라는건 받아물지도 않지. 림상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약품을 치료에 썼다가 젠장 무슨 일을 치자고 그래?》

《…》

《부국장동지, 우리 나라 고려약재를 기본으로 개발한 C.G.F 는 여러가지 실험과 치료에서 과학적인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림신해가 조용히 대답하였지만 최장수는 그냥 마원장만 달군다.

《국의 해당 심의성원들은 다른 결과를 보고해왔소. 이 치료는 절대로 허용할수없소. 위험하단 말이요. 전에 〈경쟁〉이 독해물질험의까지 받았던걸 벌써 잊었소? 당장 걷어 치우시오!》

《부국장동지 …》

《마원장, 오늘중으로 연구조를 고려과에서 밀어내고 정상치료로 돌아가야겠소. 성과도 토의가 있었소. 정말을 안들으면 검열조를 내려보내기로 했소. 이젠 위험이 아니요! …》

《알… 알았습니다.》

마원장의 이마와 목덜미는 아예 땀투성이가 되어버렸다.

숨막힐듯 한 침묵이 방안에 얼기설기 드리웠다.

출입문이 열리는 소리에 각이한 세 사람의 시선이 한데 모아졌다. 마원장이 짓는 안도의 한숨소리가 림신해의 신경을 건드린다.

《부국장동무, 부국장동무도 학자출신인데 문을 벽이라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새것을… 덮어놓고 두려워 하면 안되지요.》

방에 들어선 박철진당비서의 몸에서는 이른 봄의 찬기운이 풍겨왔다.

최장수는 그를 보고 처음 웃으려 하였으나 인츰 가슴을 두드리던 손을 책 저으며 미간을 찌프렸다.

《만나자 원새끼요? 마침 왔소. 낫선것이라고 새것은 아니요. 호박이 제스스로 줄친다고 수박이 되오? 난 당비서동무가 행정실무사업에 너무 깊숙이 빠져드는데 마음에 들지 않소.》

진짜 찬기운은 최부국장으로부터 미쳐오고있었다.

박철진은 결상을 끄당겨 앉으며 가방을 열었다.

《부국장동무 우린 론쟁보다 완치를 바라는 환자들을 생각합니다. 이번에 xx 병원에서 수백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림연구사가 개발한 약으로 집중치료를 조직하였는데 효과가 대단합니다. 보시

오. 일부 치료유효률을 보면 뇌혈전, 뇌동맥경화, 식물신경장애, 협심증, 뇌진탕후유증이 78.5프로에서 93.2프로입니다.》

박철진이 얼핏 문가에 장승처럼 서있는 림신해에게 가벼운 미소를 던졌다. 림신해의 눈가에 한순간 물기가 팽 돌았다.

최장수는 박철진이 넘겨준 문서들을 벌컥벌컥 뒤지고나서 머리를 마주 들이댄 마원장에게 홀 던쳐주었다.

《문제는 림상대상들이 어느 단계의 증상에서부터 치료를 받았는가 하는거요. 국이 조사한 자료는 공격적인 신약보다 일부 정신적효과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대상들은 반응이 전혀 없었단대거요. 결국 C.G.F 는 과학적으로 인정할수 없단 말이요.》

《가만! 권위있는 xx 병원에서는 물리치료과장 김경호동무가 개발한 컴퓨터기구를 리용하여 이 특수생장촉진물질이 놀라운 효과를 내는 면역부활제라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혔소. 또한 최첨단 화상 및 기능진단, 실험진단에 의해 발명 및 치료효과수치를 얻어냈소.》

《인정할수 없소!》

최장수는 눈길을 내리깔고 코맹맹이 소리로 중얼거렸다.

박철진이 격분하여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문서를 조심스레 들여다보던 마원장이 와들 놀라 머리를 쳐들었다.

림신해는 그저 생각에 잠겨 묵묵히 서있었다.

《부국장동무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이요. 왜 사람들에게 건강복리를 줄수 있는 가치있는 연구사업과 실리있는 림상응용을 한사코 반대하오? 나 역시 오랜 세월 시달리던 부상후유증을 이 약으로 깨끗이 툰 사람이요. xx 병원의 확증은 인정할수 없다? 여보, 바다물은 라진알바다에서 먹어보든 문천알바다에서 먹어보든 다 같이 짜오. 진리는 가리울수 없단 말이요. 좀 물어보지요. 부국장동무가 의학잡지에 발표했던 소론문은 무슨 목적이요?》

《그건 생체조종의학의 리론적방향, 리론적개발의 구도였소. 리론과 실천은 별개의 문제요!》

《여보, 실천을 떠난 리론이 무슨 필요가 있소?》

날카로운, 타협을 모르는 눈길들이 한점에서 부딪쳤다.

《?…》

《!…》

…

이튿날 아침 국에서 파견한 검열조가 병원에 도착하였다.

…

해가 떠오르기전 대지는 더 캄캄하게 느껴진다.

…

이 땅이 아들에게 주는 사랑의 노래

대동강기슭의 회백색벼랑밑을 두사람이 거닐고 있었다. 멀리 해가 지고있었다. 스러지려는 석양 빛에 의암이 불타고 사동공원쪽의 조락하는 단풍 숲은 더욱 진하세 물들어 거의 진보라빛에 가깝다.

차츰 대동강물결이 검게 보이더니 인차 불그레한 화광에 밝아진다. 강기슭에 바투 다가앉은 준첩선에 불이 켜진것이다. 그 준첩선 타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모래를 퍼냈는지 강녘의 여기저기가 불뿔없이 파헤쳐져 주변의 아름다운 강변풍치에 다소 손상을 준다.

작가는 그것이 불만스러워 머리를 가볍게 저었다.

다부진 증기에 총이 세보이는 머리칼을 단정히 비다듬어 넘긴 사나이가 먼저 바위우에 올라서서 손을 내민다.

《작가동지, 조심하십시오.》

작가는 바위우에 올라 옷옷을 벗어들었다.

《땀이 나누만. 우리도 의암의 전설을 직접 체험해 보는게 어떻소?》

《허허, 이제 더 어둡겠는데 그럼 저 휴암까지 가잡니까?》

림신해는 흰이를 드러내고 명랑하게 웃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신에 가까운데 젊은이처럼 느껴지는가?...)

작가는 머리를 기웃거렸다.

《이보우, 림동무. 얼마전에 작가동맹의 한 평론가의 부인이 근 십년째 속달로 자리를 일지못한 다기에 동무가 두고간걸 한통 보내준 일이 있소. 그 문학박사가 며칠전에 찾아왔더군. 동무가 개발한 약을 쓰고 안해가 드디어 자리를 털고 일어나 이젠 삼점출입까지 한다는거요. 동무가 받을 인사를 내가 대신 받았지.》

《아주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제 병사시절의 전우한명이 전상철이라고 함경북도에서 수산사업소 지배인을 하는데 뇌혈전을 만나 자리를 내놓는가 했지요. 우리 약을 쓰고 말끔히 나왔다고 벌써 여러통의 편지가 옵니다. 곁따라 희귀한 수산물도 좀 오고... 허허, 이제부터는 작가동지가 늘 인사를 받도록 합시다.》

작가는 소리내어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결불에 손족이라?... 내 손분원장의 말을 듣고 동무의 연구사업을 소개한 신문기사들과 해내외 반영도 종합해서 읽어보았소. 이런 설명도 있더군만.

(유니콜론은 최신분자생물학의 성과와 고려의학의 전통적인 치료방법을 리용하여 새로 발견한 면역부활제(특수성장촉진물질)로 뇌수의 시구하부 기능을 지배하므로써 세계가 지향하는 생체조종의학의 길을 연 기능성건강약품이다.)

이건 결국 중추신경조절, 시구하부의 교감과 부교감의 균형을 조정한다는게 아니겠소?》

림신해는 눈을 능청스럽게 깜박이며 활짝 웃었다.

《이젠 작가동지도 끈질기게 파고들더니 이 분야의 박식가가 되었습니다. 실지 연구사업은 오늘 의 시각에서 보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향방사선치료와 컴퓨터사용시 제기되는 스트레스를 방지하는데로 더 넓혀 연구하렵니다.

그런데... 정말 소설을 쓰렵니까?》

《물론이지요.》

《하다면 과학기술적인 문제는 될수록 피하십시오. 독자들은 결과만을 바랄것입니다.》

작가는 고집스럽게 머리를 저었다.

《아니- 독자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시하오. 물론 실무적인 연구과정얘기는 그만 두겠소. 자신도 없거니와 진짜 다분해질수 있거든. 난 그저 탐구자의 심장에 대하여 쓰고싶소.》

《탐구자의 심장이요?》

《그렇소. 인간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탐구자의 심장은 큰것을, 새것을 창조할수 있다!...》

...

이래전 여름, 림신해연구사의 발명개발이 국가 과학원발명국의 특허를 받은날 저녁 칠순이 넘은 김창순이 큼직한 구럭지를 들고 의암동의 집에 찾아왔다.

《이사람, 신해. 어디, 어디 보자구. 특허증서를 좀 보여주게!》

《창순아바이, 이 속엔 아바이의 공로와 노력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소릴 하나? 지나친 겸양도 교만이라는 말이 있어. 이젠 탐구의 고행길을 걸어온 동무의 당당한 창조물이야. 우리는 그저 밀거름이 되고 사람들이 기뻐하면 그게 기쁨이고 행복이 아니겠나.》

김창순은 돈보기도 없이 특허증서를 두팔 길게 내 밀어 펼치고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허, 우선권날자... 이건 정말 경사야. 어, 그보다도 병원들과 환자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나. 그 최장수소식을 들었나? 그가 협심증으로 부국장자리를 내놓은 후 누워서 꼼짝 못하했는데 자네가 보내준 약을 먹고 이젠 일어났단만... 물이야 제값으로 흐르기 마련이지. 자, 이사람, 어서!》

《아바이, 이러지 마십시오. 당비서동지한테서 방금 전화가 왔습니다. 이젠 도착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음, 그럼 함께 축하를 해줍세. 경희야, 네가 외과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를 돕느라 고생했다. 그리구 설희야, 너도 오늘은 아버지에게 노래를 불러줘야지!...》

마원장의 뒤를 따라 흥분한 박철진당비서가 방에 들어서는 바람에 림신해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박철진은 발은 이마밑의 가는 눈을 꿈벅이며 림신해의 손을 잡았다.

《림동무, 기뻐하오, 정말 꿈같은 일이 생겼소.

얼마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전선시찰의 길에서 동무가 발명개발한 건강약품에 대한 료해를 하시였습니다.》

《예? ...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장군님께서...》

림신해는 넋을 잃은채 그만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걱정애 젖은 얼굴을 두손으로 싸

취였다.

《당비서동지, 정말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림신해동무, 인민을 위한 일은 지어 자그마한 소행까지도 우리 장군님께서 다 아시고... 또 늘 기뻐 하시오.》

림신해와 안해 랑명숙의 눈길이 뜨겁게 부딪쳤다.

《경애하는 장군님. 제 한생... 과학탐구를 위한 복무의 길을 곳곳이 걸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울고있었다. 진실한 걱정과 행복은 자기의 존재를 눈물로 표현할수밖에 없는 모양이다.

...

설희가 피아노앞에 앉아 밝게 웃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동무들 다 같이

노래를 부르자

...

림신해는 눈물속에 평양예술학원에 다니는 딸애의 노래소리를 듣고있었다.

그 사연많은 뜨거운 눈물속에 빨간 앵초꽃이 만발한 최전연의 초소길과 화선방송차, 빙그레 웃는 강창모본대장의 모습이 밝게 떠오른다.

하얀 종이배가 회고 역센 아름다운 기선이 되어 만경창과를 헤치고있다. 귀여운 새벌논의 소녀들이 파란 치마자락들을 날리며 란간에 매달려 손을 흔든다 ...

눈부신 태양의 찬연한 빛에 흰 기선의 선체가 아름답게 번쩍거린다. ...

길은 지평선너머에서 계속된다.

나의 저주 나의 분노

한원희

가난한 마을에 가난한 총각이
한동네 처녀와 혼례를 이루던 날
세상살이 고달픈 마을사람들이
오래간만에 웃어도 보며 축복하였다
아들나고 딸나고 행복하게 살라고

허지만 어 무슨 참변인가
옆구리에 칼을 찬 왜놈순사들이
신랑을, 신부를 덮쳐갔다
신랑은 죽음의 고역장 《징용》으로
신부는 왜놈군대 《위안부》로

오,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놈들
력사이래 패륜패덕의 무리중에
왜놈보다 더한 놈이 였던가
이런 놈들에게 죄를 론할 여지도 없다
이 나라의 왕궁에 뛰어들어
왕비까지 칼탕쳐 죽이는 놈들이거니

조국해방과 함께 기적같은 상봉이 있었다
《징용》 갔던 그날의 신랑이
한다리를 끌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그날의 신부
그도 또한 두다리를 잘리우고 왔다

어버이수령님 찾아주신 우리 세상이
눈물에 젖는 백년가약도 다시 맺어주었건만
그들은 그 백년도 살수 없었다.
놈들이 끝수에 새겨준 흉혈이 너무 깊어

원한의 마지막 숨을 모아 부탁하였다
놈들에게 죽음을, 죽음을

오, 지구상에 가장 극악한 놈들
천추만대 용서 못할 무리중에
씨도 없이 징벌해야 할 왜놈들
이런놈들에게 죄를 론할 여지도 없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깡그리 멸살시키자고
피묻은 칼을 휘두르던 놈들이거니

×

그날의 불우한 부부
그들은 지난날 우리 부모들의 처지였다
우리 그 원한의 피줄기를 이어받았고
우리 부모가 안고살던 복수의 분화구를
세대의 의무로 물려받았다
그것을 잊으면 우리 순간도 살수 없다
오로지 놈들을 멸망시키고야 말
그 하나 삶의 목적으로 심장은 고동친다

오, 이 세상에 가장 잔인흉악한 놈들
이런 놈들에게 죄를 론할 여지도 없다
일본군국주의를 쳐엎애는 섬멸전이 있다면
그것은 인류를 위해 가장 아름다운 성전으로
온 세상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기록되리라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을 지구밖으로
쫓아버리는 일이거니 !

작품이 밝혀낸 생활철학과 작가의 지성

- 단편소설 묶음 《해뜨는 계곡》에 대하여 -

박춘택

작품에 작가에 의하여 발견된 새로운 생활철학이 있을 때 독자들은 그 형상세계에 깊이 끌려들어가 주인공의 운명과 그 생활에 공감하면서 사람의 참된 삶과 자기의 인생길을 두고 깊은 사색에 잠기게 된다.

작품에 담겨진 깊은 생활철학, 이것이 사람들을 작품세계에 끌려들게 하며 작품의 생명력, 건인력, 감화력을 담보한다. 생활철학이 없는 작품, 그것은 문학작품이 아니다.

지성도를 담보하는 생활의 귀중한 진리를 담은 심오하고 독창적인 생활철학은 작가의 지성적인 사색을 통해서만 발견된다. 깊은 생활내용, 생활철학의 발견은 작가의 이성적활동과 지성적인 사색력의 정화물이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작품의 지성수준은 전적으로 작가의 지성도에 의해 결정된다.》

철학적인 안목이 있고 지성적인 사고력이 있는 작가라야 깊고 새로운 생활철학을 담은 지성이 있는 작품을 써낼수 있다.

최근에 창작발표된 단편소설 묶음 《해뜨는 계곡》(리명작, 《조선문학》 주체94년 10~12호)은 작품이 밝혀내는 생활철학, 생활진리와 작가의 지성적인 사색력에 대하여 소설들에게 일정한 시사해주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다.

소설가는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거창하게 일떠서는 어랑천발전소건설장에 나가 오래동안 현실체험을 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 인간들의 삶과 투쟁, 사랑과 증오, 생활과 감정 등 많은것을 보고 듣고 느낀데 기초하여 단편소설 묶음 《해뜨는 계곡》을 창작하였다. 단편소설 묶음에는 단편소설 《산정의 소나무》, 《그리움의 세계》, 《명령하라》가 들어있는데 매 작품마다에서 작가는 자기가 발견한 묘이라고 당당히 말할수 있는 높은 지성세계에서 형상해낸 새로운 성격을 들고나왔다.

단편소설 《산정의 소나무》의 주인공 현심의 남편 김영준은 언제기초작업장에서 폭약꾸레미에 불이 달려 위험한 폭발을 하게 되었을 때 한몸을 서슴없이 내대고 벼랑우에 올라가 폭약꾸레미를 가슴에 안고 비호같이 몸을 던져 발전소언제와 수많은 동지들을 구원하고 장렬하게 희생된다.

현심은 발전소건설장에서 남편이 희생되자 그의 뒤를 잇고싶어 건설장에 자원하며 첫 걸음으로 남편이 최후를 마친곳인 산정의 소나무를 찾는다. 산정의 소나무는 현심의 가슴에 남편의 심흔처럼 뿌리내렸으며 중대장의 넋이 숨배인 곳으로서 기남을 비롯한 청년들격대원들의 마음속에

영웅의 상징처럼 뿌리내렸다. 그리하여 기남은 잠시도 잊을수도 잊어서도 안되는 교정을 찾듯이 어렵고 힘든 일이 앞에 나설 때마다 소나무 산정에 올라 억센 기개와 담력을 가다듬기도 하고 동지애로 심장을 불태우기도 하는것이다.

이런 중대장의 넋이 깃든 이 산정에 유람길을 내려는것을 알았을 때 기남은 차라리 내 가슴을 던고다니면 다녔지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고 측량공에게 항변하며 설계원을 찾아 결판내려하는것이다. 그런데 문제의 산정의 소나무가 있는 《수리발톱》을 통과하게 유람길을 내도록 설계한 사람이 다름아닌 중대장의 안해인 현심인것이다.

이것을 알았을 때 기남은 어떤 배신감을 느낀다. 현심이 남편의 고귀한 넋을 심장에 품고 사는 인격높은 녀성인줄 알았던 그 모든 믿음이 줄지에 무너져 내리고 마치도 은빛 허울로 감싼 속물을 보는듯 허무감과 쓰거운 환멸에 속이 떨려하는것이다. 기남의 가슴은 현심에 대한 절규로 타끓는다.

그러나 기남은 오해했던것이다. 그 설계에 비친 현심의 웅심깊고 고결한 아름다운 마음을 미처 몰랐던것이다.

현심이 어찌 그 소나무를 한 순간인들 잊을수 있겠는가. 소나무는 남편이자 남편의 넋이고 현심의 둘도없는 사랑이었다. 장차 아들이 크면 소나무앞에 세워 아버지의 푸른 기상을 보여주고 싶었던것이 현심의 마음이었다.

그래서 현심은 그 소나무를 살리려고 몇번이나 다르게 설계해보았다. 언제우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길을 등고선으로 따라 평면을 그으면 어차피 《수리발톱》을 통과하게 돼있고 그렇다고 조금 낮추면 언제수면과 너무 가깝고 또 조금 높이면 급경사를 이루게 되는것이다. 이렇게 되면 선군시대 자랑찬 창조물로 건설되는 발전소에 흠집이 생기는것이다.

마음속의 아픔과 동요를 이기고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을 최상의 언제를 바랐던 남편의 뜻을 지켜 그 누구보다 산정의 소나무를 사랑하고 그에 애정을 묻고사는 현심은 결국한 지조로 산정의 소나무가 서있는 《수리발톱》으로 유람길을 내려고 선을 긋는다.

현심은 자신의 슬픔도 사랑도 추억도 그 모든 소중한것을 산정의 소나무에 얹고 실면서도 남편의 뜻을 따라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자기의 귀중하고 소중한것들을 서슴없이 바치는것이다.

작가는 현심의 형상을 창조하면서 기정사실화하지 않고 마음속 동요도 있는 그의 개성적인 심리체험과정을 섬세하게 드러내는데 관심을 돌리었다.

소나무를 살리기 위해 《수리발톱》을 에돌길을 뿔아보려고 밤늦도록 설계판을 붙잡고 설계를 할 수록 길은 자꾸만 멀어지고 형편없이 우물구불해질 때 현심의 마음속 고층, 이 산정의 소나무를 없앨가봐 망설이고 겁을 내던 그의 심리, 겁내면 낼수록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워야 할 연제가 안중에서 점차 사라지고 이것이 남편이 녀원했던 연제에서 물러나고 남편이 지켜섰던 이 자리에서 도망치는것이라는것을 깨달았을 때의 그의 고민...

소설은 이러한 현심의 내면체험세계를 아무런 꾸밈과 과장도 없이 생활적으로 소박하게 묘사하고있다.

자기의 생활에 깊이 얽혀있고 자기의 몸의 한 부분과도 같았던 그 귀중한것을 서슴없이 조국의 미래를 위해 바친 현심의 모습은 남편이 섰던 자리에 자신을 세우고 사는 고결한 모습이였다. 그의 모습은 진정 영웅의 녀으로 숨쉬는 산정의 푸르른 소나무였고 그의 삶은 그대로 이 땅에 솟아오르는 시대의 기념비였다.

현심이 설계한대로 소나무산정을 통과하게 휴양길을 낸다고 하여 산정의 소나무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산정의 소나무자체는 없어질수 있어도 희생된 남편-중대장의 녀이 깃들어있고 현심의 고결한 마음이 어린 소나무는 영원히 살아있게 된다. 그것은 산정의 소나무야말로 결코 꺾을수도 없앨수도 없는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현심의 생활과 녀속에서 오늘뿐아니라 래일에도 영원히 푸르게 솟아 세찬 박동으로 숨쉴것이다. 그런데 청년돌격대 소대장 최기남은 중대장이 희생된 곳인 《수리발톱》의 산정의 소나무를 여태 부등켜안고있는것으로 영웅의 녀과 의리를 지키는 줄로 여겼던것이다. 사실 이것은 중대장을 잊고 있는것이였고 그 자신이 소나무를 꺾어버리고 있는것이였다. 현심의 고결한 모습을 보고서야 그는 한갓 《우승》이라는 영예도 위훈도 영웅중대장의 삶과 이어져야 한다는것을 비로소 깨닫는것이다. 기남의 형상은 사람들에게 렬사들의 녀을 어떻게 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가르쳐주는 의의있는 형상이다.

현심의 형상에는 조국을 위한 영웅적투쟁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뜻을 잇고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받들고 산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조국을 위해 사심없는 진심을 바친다는것은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한 깊은 생활의 진리가 새겨져있다.

사람들은 이처럼 소설에 생활의 진리를 담은 심오한 내용이 밝혀진것으로 하여 지성도를 느낀다. 이것은 여기에 작가의 지성적인 사색이 비껴있다는것을 말하여 준다.

작가는 어랑천발전소건설에 동원된 일군들과 기술자들, 돌격대원들이 어려운 난관과 건설장을 위협하는 위급한 정황이 조성될 때마다 한몫을 서슴없이 내대는 희생정신과 영웅적최후를 높은 지성세계에서 보고 우리 시대 인간들이 지닌 인생관과 정신력에 대한 생활철학을 시대정신의 견지에서 밝히였다. 비로 여기에 이 소설이 주는 정서적감화력의 요인이 있다.

단편소설 《그리움의 세계》의 주인공 정학세지배인은 《촌놈은이와 같은 인상》이 짙은 사람이다. 그 한테서 수천명을 거느리는 지배인이라는 위풍은 전혀 찾아볼수 없다. 그러나 확고한 주견과 높은 실력, 빈틈없는 사업조직들은 그 《위풍》을 감당하고도 남는다. 오히려 틀거지가 없는 그 소박성때문에 사람들이 더 믿고 존경하는 정학세의 가슴은 과연 무엇으로 끓고있는가. 소설은 여기에 형상의 중심을 모으고있다.

정학세는 오랜 건설경험과 과학기술적타산에 기초하여 새로운 가물막이공법을 탐색하였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고심끝에 막대한 건설투자와 시간을 단축할수 있는 단번제방뚝쌓기의 새로운 공법을 내놓았으며 공격형의 군지휘관답게 공사를 지도하다가 현장에서 졸도한다. 그가 병원에 실려간지 몇시간 지나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발전소건설장을 찾아오신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정학세는 변변치 못한 자기에게 중임을 맡겨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아직 한번도 인사말조차 아뢰이지 못했는데 이렇게 침상에 있는데 대해 《무엄한 짓》이라고 생각하며 가슴에 찢기는듯 한 아픔을 느낀다. 그러던 정학세이기에 발전소건설이 완공되어 경애하는 장군님 모실 영광의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발전소를 만년대계의 기념비적 창조물로, 몇백년 세월이 흘러도 손색이 없을 완전무결한 질을 보장한 발전소로 건설해놓고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려고 한다. 일부 사람들이 조기조업날을 자꾸만 앞당기고 싶어할 때 그는 일이야 바로 해놓고 우리 장군님을 모셔야 한다고 하면서 수십년이 지나도 무너져내리지 않도록 발전소 물길굴 전구간을 피복하기전에는 절대로 조기조업을 못한다고 주장하는것이다. 여기서 사람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는 정학세지배인의 티없이 깨끗한 마음을 보고 순결의 인간—정학세의 참모습을 본다.

다른 누구보다 먼저 자기의 외팔을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산골의 발전소 분교교원으로 영원히 눌러앉히고 발전소건설장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우고 부상당한 청년에게 시집을 보내려 하면서 자기 딸애가 그것을 행복으로가 아니라 그 무슨 의무나 《희생》으로 생각 할가봐 걱정하며 자기 자식을 우리 시대의 고결한 녀인들의 미덕에 따라 세우고싶어하는 그의 남다른 고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더잘 모시려는 열망에 바탕을 둔 고민이다. 이것을 형상적으로 밝힌것이야말로 그리움의 세계에 대한 묘사에서 이 소설이 거둔 예술적 성과이다.

소설에서는 건설장에 필요한 설비를 싣고가던 자동차를 급히 멈추게 하고 삼을 들고 내려서 길을 손질하는 그의 모습에서 그의 마음속에 간직된 그리움의 세계를 더욱 감동적으로 드러내보고있다.

《내 오늘 아까한 길과 맞다느니... 차마 걸음을 더 내딛지 못하겠더군요. ... 우리 장군님께서 이제라도 금시 오실것만 같아 눈앞이 아득해지더군요. 발전소건설 때문에 늘 마음쓰고 계시는 장군님께

서는 지난해에도 약속없이 우리 건설장에 문득 오시지 않았다. 물론 우리 장군님께서 오신다면 일꾼들이 건설장에 드나드는 여러 길중에서 이런 험한 길을 택하지야 않겠지. 그러나 이 길에는 우리가 올해에 새로 앉힌 1호발전소가 있지 않다. 건설자들이 해놓은 일이라면 자그마한것도 다 찾아보시고 분에 넘치는 치하도 주시고 사랑과 믿음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은 이 세상에 우리 장군님 뿐이시네. 그러니 이 위태롭기 짝이 없는 길을 두고 어떻게 망편할수 있겠나. 그건 천만불충한 것이지. 우리 인민한테는 죄책이 오죽 많은가. 어버이수령님을 한평생 이런 길로 다니시게 하여 얼마나 가슴이 아픈 우리들인가, 어버이수령님을 잃었을적에 우리 다시는 우리 장군님만은 그렇게 모시지 말자고 눈물을 짓씹으며 맹세하고도...》

길을 손질하면서 정학세가 성규기사에게 하는 이 말에는 존중은이와도 같이 소박하고 순결한 그의 가슴에 끓고있는 그리움의 세계가 비껴있다. 그의 가슴에는 보통사람으로서는 감히 견줄수 없는 크고 숭엄한 세계가 명마루처럼 우뚝 솟아 뜨겁게 숨쉬고있는 것이다.

소설은 건설자들의 후방사업을 위해 마련한 장독, 학생들을 위한 책걸상, 땅문제 등 정학세 지배인의 걱정스러운 결음결음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이어져있는 것이며 그의 모든 걱정과 벌린 모든 일감들은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자기의 한몸을 다 바쳐 실현하려는 뜨거운 열망에 기초한것이라는것을 생활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정학세의 마음속에 끓고있는 그리움의 세계에 대한 개성적인 묘사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한번도 만나보옵지는 못했어도 언제나 마음속에 그의 영상을 안고 살며 한없는 그리움속에 살고있기에 정학세의 모든 사고와 실천행동은 그토록 사람들의 존경을 불러일으킬 숭고한 높이에 이르고있으며 그의 정신세계는 그지없이 순결하고 아름다운것이다.

소설은 정학세의 형상을 통하여 그리움의 세계에 우리 시대 인간의 높은 인격과 창조력이 있다는것을 확인하고 순간순간을 우리 장군님과 뜻도 마음도 운명도 잇고 사는 정학세의 삶이야말로 우리 시대 인간의 참다운 영웅적인 삶이며 조국이 기억하는 값높은 인간의 삶이라는것을 확증하고있다. 여기에 정학세의 성격이 주는 매력이 있고 소설이 보여주는 생활의 진리가 있다.

작품에서는 정학세와 그의 생활들이 심오한 내용과 귀중한 진리가 담겨지게 격이 있게 그려졌다. 이것은 소설가가 어랑천발전소건설자들속에서 발휘된 아름다운 소행과 그들의 벅찬 생활들, 특히는 당을 떠나 한생을 곳곳이 살아온 로세대의 오랜 일꾼들의 생활을 지성적인 안목을 가지고 분석하고 거기에 순결의 인간의 성격미에 대한 생활의 진리를 깊이 체현시킨데서 이루어진것

이다.

단편소설 《명령하라》에서는 단호하고 강쇠같은 성미대로 모든 일을 결쾌하고 명백하게 해치우는 돌격대 박동혁대대장의 형상을 통하여 지휘관의 명령에 대한 깊은 의미를 사람들속에 새겨주고있다.

박동혁은 전투원들속에 추호도 흐지부지할수 없는 독하고 맹목한 지휘관이라는 자각을 주는데 자기의 명령과 지시가 고스란히 스며들수 있는 바탕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이것이 옳은 견해인가.

소설은 여기에 형상의 초점을 모으고있다.

박동혁은 인정마른 맹담한 지휘관이다. 그는 물길 도강전투로 들끓던 22호막장에서 뜻하지 않게 파쇄충이 나지면서 석수가 쏟아져나왔으나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암반에 날창같은 정대를 틀어박고 사수마냥 착암기를 역세게 틀어잡은 대원들의 심장속에 간직된 결사관철의 정신, 숭고한 희생정신을 헤아려보지 못하였다. 그것은 정이 부족한 맹담한 인간이었기때문이었다.

박동혁은 비상상황속에서 자기자신의 안전과 보신이 더 질게 깔린 인간에 대한 진정어린 사랑이 없는 《명령》을 내렸던 자신을 타매하며 우리당의 높은 뜻을 결사관철하는 꺾이지 않는 신념과 의지가 있는 명령을 내릴줄아는 인간으로 될것을 강렬히 지향하는것이다.

소설은 박동혁의 형상을 통하여 쇠물처럼 깨끗하고 쇠처럼 강한 인간만이 자기의 잘못을 가지고도 가장 최악의 경지에서 자신을 무자비하게 타매할줄도 알고 반성도 할수 있다는것을 확증하고있다. 여기에 박동혁형상의 새로운 측면이 있고 작가가 발견한 인간수양에 관한 새로운 생활철학이 있다.

우리는 단편소설들의 주인공들인 현심, 정학세, 박동혁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 시대 인간들의 리념과 긍지, 피로움과 고민, 역센 숨결을 심장으로 느끼며 선군시대의 아름답고 고결한 참인간의 모습을 새겨안는다.

생활의 귀중한 진리와 시대의 참인간들의 성격적미의 탐구는 작가의 지성적인 사색의 결과이다. 작가는 시련과 고난을 해치며 어랑천발전소를 일떠세우기 위해 영웅적인 투쟁을 벌리는 일꾼들과 건설자들의 생활을 높은 지성세계에서 해부학적으로 보면서 그속에 스며있는 이러한 생활의 진리와 삶의 철학을 찾아낸것이다.

생활을 보고 지성적으로 사색할줄 아는 작가만이 뜻 깊은 생활의 진리를 찾고 철학적인 발견을 할수있다. 이것은 창작의 철리이다.

우리 작가들은 시대와 생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철학적인 안목과 지성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지성도있는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 작가적수양에 대한 더욱 높은 요구를 제기하여야 할것이다.

세월이 흐른 뒤



윤금철

정양소는 공장쪽으로 내리흐르는 외증천기슭에 있었다. 둔덕우에 자리잡은 곳이라 넓게 펼쳐진 제강소전경이 한눈에 바라보였다.

푸른 섬광이 번쩍거리는 강철직장이며 붉은 화광이 어린 압연직장창문들, 외등을 흔들거리며 느릿느릿 오가는 문형기중기, 어둡속 어디선가 구내기관차의 기적소리가 아직도 쌀쌀한 바람을 타고 간간이 들려오곤 한다.

지배인 박영석은 형광등빛아래서 오늘로 공장 생활 마치는 수십여명의 종업원들과 식탁을 마주하고 앉았었다. 어지간히 시간이 흐른 뒤라 창유리에는 이슬이 뽀얗게 덮이였다.

하기넘친 말소리, 웃음소리, 수저놀리는 소리... 문득 옆식탁에서 키가 꺾두룩한 사람이 일어서더니 이쪽 탁으로 다가왔다. 걸쭉한 룡질로 사람들을 웃기기 좋아하던 압연직장 수리공이었다. 엇그제만 해도 수수한 작업복차림으로 공장구내를 오가던 그가 오늘은 넥타이를 메고 회색양복을 짙 차리고나서니 영 판사람같다.

영석은 저가락을 놓으며 빙그레 웃었다.

《난 어느 멋쟁이신사인가 했구만 응, 허허.》

수업터가 희긋한 수리공은 히죽이 웃었다.

《지배인동지, 걸치레나 밀끔해서 뭘합니까.

...오늘을 맞구보니 젊은 시절에 좀더 많이 일하지 못한게 후회됩니다.》

《그런 소린 마오. 게서 어떻게 더 일하겠소.》

영석은 수리공의 가슴팍에서 눈부시게 번쩍거리는 훈장들을 생각깊은 눈길로 더듬었다.

《지배인동지, 공장생활은 끝났지만 마음은 언제나 압연기결에 두고 살겠습니다. 필요하면 아무때고 찾아주십시오.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야 그렇지. 정말... 고맙소.》

영석은 그의 장알박힌 큰 손을 꼭 잡고 놓을줄 몰랐다. 떠나는 순간까지 공장을 잊지 않는 고마운 사람...

(진짜 토배기들인데 ...)

가슴 한구석이 허전해났다.

공장에서는 년로보장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이런좌석을 매년 마련해오고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많은 사람들이 년로보장을 받기는 처음이다. 직업은 다르지만 기술과 경험으로 한몫씩 맡아주던 귀중한 사람들!

이들한테 뭘 더 해줄게 없을가?

이때 뒤좌석에서 결상을 밀어놓으며 또 누군가 일어서는 기척이 났다.

영석은 드넓은 식당안을 휘돌러보며 자리에서 일어 섰다. 강편처럼 질서있고 모가 나면 좌석이 출강전 쇠물처럼 흐물거리는걸 보니 끝날 때가 된것 같다.

그는 앞에 있는 술병을 집어들었다. 매년 마지막에 매 사람들에게 한잔씩 부어주는것이 이제는 하나의 관례처럼 되어버렸다. 가까운 식탁부터 붓기 시작했다.

《동갑이들, 지배인동지술도 오늘이 마지막이요. 자, 쥘으세.》

《가만, 마지막장식을 이렇게 하겠는가. 난 지배인동지 노래를 듣자는걸 제기하오.》

《좋수다.》

짹짹그르르 박수가 터졌다.

어딘가 위엄이 느껴지는 영석의 두툼한 입술이 빙긋 열리며 즐거운 미소가 뺨으로 눈가로 퍼져갔다. 이들을 위해 뭔가 더 해주고싶어 안타까운 관인데 까짓 노래 한곡이 다 뭐가. 시간만 허락 한다면 몇곡이라도 불러주고싶은 영석이었다.

그는 약간 나올사 한 배에 한손을 그느적이 불이 고 서서 잘 울리는 처음으로 즐겨부르던 노래 한곡을 멋지게 뽑아냈다. 박수소리가 요란하였다.

영석은 좀 가벼워진 마음으로 맨끝 식탁에 다가갔다. 거기에는 녀자들만 앉아있었다. 모두 엇비슷한 녀인들이라 면목이 인차 알리지 않는다. 하긴 수천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영석임에랴...

《허허, 여긴 〈춘향〉 이들만 모였군 그래.》

영석은 절반 룡소리를 하며 정성스럽게 병을 기울였다.

《그간 정말 수고들 했소. 앓지들 마시오.》

그의 목소리는 진정에 넘쳐있었다.

드디어 마지막잔이 남았다. 자기 차례가 돌아온 녀인은 영석이가 병을 기울이기 시작하자 치마를 내리 끌며 조용히 일어섰다. 살색이 맑은 둥실한 얼굴, 순박해보이는 큰 눈... 귀전에 내뿜린 흰서리만 아니라면 선전으로 볼 녀성이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의 얼굴에는 한가닥 수심이 비껴있었다.

《고맙습니다.》

잔을 받으며 인사말을 하는 목소리도 가늘게 떨리었다. 그는 한손으로 잔을 들고 다른 손으로 잔밑굽을 받치고 비스듬히 돌아서서 입에 가져가다가 갑자기 고개를 꺾으며 어깨를 떨었다.

《?! ...》

영석은 졸지에 당하는 일이라 얼터름해 서있었다. 어떤 사나이건 녀자의 눈물앞에서는 마음이 어려워지는것이다.

녀인은 용케도 자기를 다잡아내는듯 싶었다. 잠시후 그는 몹시 미안한 표정으로 영석에게 머리를 숙여보이고는 결상에 앉았다. 면바로 이쪽을 보지 못하는 순박한 눈 응송그린 몸가짐...

순간 영석에게는 그가 어딘가 낯익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더라?... 하지만 인차 떠오르지 않았다.

영석은 고개를 기웃거렸다. 이때까지 많은 로세대들과 헤어졌건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공장을 위해 반드시 겪게 되는 일인데 이 녀인은 왜 그럴가. 물론 사회생활의 큰 문을 벗어나 비좁은 집안에 들어가야 하는 그네들의 마음이 즐겁지는 못할것이다. 하지만 직장생활을 그만두는 길이 곧 인생의 끝은 아닌것이고 일손을 놓은 다음에는 또 그대로의 일거리와 생활이 있기 마련이 아닌가. 하물며 녀자임에랴...

영석은 온몸의 맥이 일시에 빠져나가는것을 느꼈다. 이런 사람이 있을가봐 얼마나 마음을 썼던가.

(왜 그랬을가. 현숙해보이는 녀성인데 이런 공식적인 장소에서 자기를 다잡지 못하다니?)

영석은 왜그런지 그 녀자가 단순히 직장생활을 마친다는 그런 감정때문에 그러는것만이 아닌것같은 생각이 들었다.

(좀 알아봐야겠어.)

다음날 영석은 그 녀성이 내화물직장에서 일하던 류송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로동자였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성형공으로서 일을 잘 했다고 하였다.

영석은 월말생산을 마무리하는 그 드바쁜 속에서도 류송연이라는 이름을 때때로 외워보곤 하였다. 비록 지금은 종업원명단에 이름은 없지만 무엇인가 큰 괴로움을 안고있는상실은 어제날의 종업원. 그를 외면할수 없는 책임일군의 도의감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사연을 꼭 알아봐야 한다고

리성의 문을 때없이 두드렸기 때문이었다.

버르고버르던 영석은 월말생산총화를 한 다음날 저녁에야 겨우 시간을 내어 내화물직장장과 마주앉게 되었다.

사람들이 방금 퇴근한 뒤라 사무실은 호젓하였다. 그는 창문을 활 열어놓고 가까이 있는 팔걸이결상에 욱중한 몸을 실었다. 며칠째 잠을 설치그런지 별로 몸이 무거웠다. 그는 피곤이 실린 눈으로 직장장사업을 시작한지 한해밖에 안되는 내화물직장장을 건너다보았다.

《동무네 직장에 류송연이라고 있었지?》

《예.》

직장장은 허리를 꼳꼳이 펴며 긴장한 눈길로 마주 보았다.

《그 동무가 거기서 일한지 오래 되오?》

《그렇습니다, 제가 직장에 온지 10년 되는데 그때도 있었습니다.》

《?!》

영석은 두눈을 지그시 감으며 의사등반이에 몸을 실었다. 극상해야 수백명 좀 남짓한 직장인데 그에 대하여 그렇게밖에 모르는가. 불과 며칠전에 직장을 뜬 사람인데... 실무도 밝고 내밀손도 있어 미덥게 보던 일군이어서 그런지 은근히 실망을 느끼게 하였다.

《그래 그 동무가 직장에서 무슨 일을 했소?》

《성형공이였습니다.》

《그래 일을 잘 했는지?》

《예. 마지막까지 량심적으로 일했습니다. 일을 그만들 때에는 딸을 자기가 일하던 초소에 세웠습니다.》

《그게 정말이요?》

《예.》

영석은 무겁게 자리에서 일어나 두뼉두뼉 방안을 거닐었다.

《그렇단 말이지! 참 괜찮은 동무로구만. 그런데 그 동무가 나갈 때 무슨 섭섭한 일같은건 없었소?》

《글쎄... 본인 마음이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직장에서 동등 받들리우던 동무여서 아마 그런 일은 없을겁니다.》

《음.》

영석은 뒤집을 진채 창가에 다가섰다. 앞에 있는 백양나무의 애잎들이 노을빛으로 번뜩이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랬을가?)

《지배인동지, 그 아주머니한테서 뭐 제기된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저 좀 알아보고싶은게 있어서 그랬소.》

영석은 깊은 생각에 빠져 한동안 그대로 서있었다.

며칠후, 영석은 내화물직장에 갔던 길에 송연이가 일하던 작업장을 찾았다. 그의 딸을 만나면

사연을 알것같았던것이다.

원료분쇄장과 배합장을 지나 기본성형장과의 간벽에 대판짜리 유리들을 주련이 끼워넣은 방 뒤칸크기의 작업장이 있었다. 한쪽 구석에 사람 뒤명 들어가 앉을 자그마한 휴게실이 있고 좀 떨어져 프레스가 있었다.

그앞에는 몰탈무지가 있었다. 거기서는 곤청색로동복을 입고 눈같이 하얀 장갑을 낀 애어린 처녀가 혼자서 아무런 흥취도 없는 자세로 뜨직뜨직 삽질을 하고 있었다. 몇번 하더니 삽을 쿵 몰탈무지에 세워박고 우두커니 창밖을 내다보았다. 한참만에야 인기척을 느꼈는지 영석이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심드렁하니 쳐다보던 눈길에 갑자기 긴장이 비껴들었다. 삽에 엎고있던 손을 내리우면서 급히 자세를 바로 잡더니 깉듯이 인사를 했다.

날씬한 허리며 우유빛의 등실한 얼굴, 속눈썹이 새까만 상가풀진 눈, 흰 살결을 내놓고는 송연이 모색을 찾아볼수 없었다. 송연이 딸이면 좋겠는데... 그는 쾌활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수고하누만, 처녀동무 혼자 일하오?》

《아닙니다. 기능공이 있는데 몸이 아파서 오를 못나왔습니다.》

《그래, 동무 이름은 뭐요?》

영석은 옆에 있는 결상에 걸터앉으며 처녀를 바라보았다.

《진설미입니다.》

《진설미?! 이름이 좋구만 집식구는 몇이나 되오?》

《아버지, 어머니하고... 셋이 삽니다.》

《셋이라...》

《네... 오빠들 네명은 모두... 군사복무중입니다.》

설미는 처음 만날 때와는 달리 흥심없는 어조로 대답하였다.

영석은 초면의 처녀에게 자기 소개를 안했다는 생각이 들어 빙긋이 웃었다.

《내 공장지배인이야.》

《저 ... 압니다.》

설미는 갑자기 귀밀이 붉어지며 슬그머니 고개를 돌려버렸다. 대하기 거북해하는 눈치였다.

영석은 좀더 다정한 음성으로 말을 이었다.

《어머니가 여기서 일했다지?》

《네.》

설미는 그냥 고개를 숙인채 대답하였다.

《판개 아니구 뭘 좀 알아볼 일이 있어 왔소. 동무어머니한테 무슨 근심거리가 생기지 않았나?》

《?...》

설미는 한순간 무엇에 찢리우기라도 한듯 약간 놀라는 기색이었다. 했으나 인차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주 혼연스러운 어조였다. 그러나 영석은 설미가 솔직히 말하기를 피한다는것을 느끼었다.

(여간내기가 아닌걸. 속터놓을 차비가 아닌데...)

더 따져물을수는 없었다. 할수없이 그닥 요긴치 않은 일 몇가지를 더 묻고나서 일어섰다.

나오려는데 설미가 영석을 찾았다.

《지배인동지.》

《?!...》

돌아다보았다. 설미는 잠간 바재이는듯 보더니 결심한듯 머리를 쳐들었다.

《한가지... 제기할게 있습니다.》

《그래? 어서 말해보오.》

영석은 설미가 제먼저 말을 꺼내는것이 반가와 너그럽게 웃었다.

설미는 눈을 내리깔았다.

《절... 다른 직장에 보내주십시오.》

《다른 직장에?...》

《네.》

《허허, 여기 일이 재미없는게로구만. 그래 직장에는 제기해봤소?》

《...》

《그러니 지배인에게 직접 제기한다. 음, 토론해보기요. 마음없는 일을 억지로 할수야 없지.》

영석은 왜 그런지 마음이 누그러져서 이렇게 대답해주었다. 그러나 설미네 집주소까지 알고보고 밖으로 나오는 그는 머리가 복잡했다. 그는 해빛이 얼룩얼룩 나무그림자를 그리고있는 구내길을 천천히 걸었다. 어깨를 떨던 송연의 모습, 다른 직장에 보내달라고 제기하는 그의 딸 설미... 그저 스쳐버릴 일이 아니라는것만은 더욱 명백해졌으나 그 일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묘연하였다.

《아무래도 본인을 만나 알아봐야겠어.》

그는 꼭 짬을 내여 송연의 집에 가보리라 결심하였다.

이들이 지난 휴식날 영석은 드디어 설미네 집을 찾아가게 되었다. 한창 꽃계절을 즐기는 상쾌한 아침이었다. 분홍꽃, 흰꽃이 구름처럼 피어난 길옆 과수원에서는 꽃향기가 취할듯이 풍겨나왔다. 이따금 벌들이 봉봉거리며 영석의 머리우를 날아지나가기도 하였다.

송연의 집은 고층살림집구역이 끝나고 단층살림집구역이 시작되는 첫어구에 있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곁에서 불 때와는 달리 해빛도 잘 들고 터밭도 큼직하게 팬창아보였다.

마당에는 여러명의 녀자들이 앉거니서거니 둘러서 있었다. 거기서 《썩! 썩!》하는 새끼돼지의 울음소리가 났다.

《수고합니다.》

영석의 인사말에 뒤를 돌아본 녀자들은 누군가

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가 하면 머리숙여 인사하는 축들도 있었다. 그 복판에서 자주색편직옷차림의 송연이가 새끼돼지에게 침을 놓고있었다. 허연 배를 뒤짚고 누워있는 새끼돼지는 침대가 들어갈 때마다 입을 벌리고 숨넘어가는 소리를 질러댔다. 한참만에야 송연은 돼지의 배에 주련이 꽃았던 길다란 침대들을 하나씩 쪽쪽 뽑아 모아쥐더니 무릎을 꿇으며 일어섰다. 송연은 그때에야 영석을 알아보았다.

《아니, 지배인동지가?!》

퍽 놀란 표정이었다.

《송연동물 좀 보려구 왔소. 허, 송연동무한테 이런 재간이 있는줄은 몰랐는걸.》

《옛날 밀천으로 이따금 좀 손을 대군 합니다. 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설미한테서 집주소를 알아보았다는 소릴 듣긴 했지만 정말 이렇게 오실줄은...》

송연은 너인들을 눈짓으로 바래우고나서 토방에 올라서더니 방문을 열었다.

처마밑으로 엇비스듬히 비쳐들어온 해빛이 퇴색하긴 했으나 먼지 한점 없는 장판바닥을 환하게 비치였다. 그 방안 한복판에 방금 뺐던 자리가 난 베개가 있고 세면수건이며 물고뿌가 놓여있었다. 송연은 황급히 들어가더니 그것들을 치우느라 부산을 피웠다.

영석은 그것들이 모두 송연이와 관계되는 것이라는것을 어렵지 않게 알아보았다.

(병때문에 그러는것 같지는 않은데 ...)

그나저나 수척해진 송연을 보느라니 자기의 곁음이 늦은것만 같았다.

《마당이 따뜻하게 더 좋구만. 그런데 설미는 어디 갔습니까?》

영석은 토방우에 허물없이 앉으며 송연을 쳐다보았다.

《새 영화가 나왔다면서 회관에 갔습니다.》

《그렇습니까. 내 설미를 만나 가정형편을 다들었습니다. 다섯자식을 키우느라고 힘들었습니다. 내화물직장에선 언제부터 일했습니까?》

《시집와서부터입니다.》

《오래됐구만. 나오느라구 하지 말구 방에 그냥 앉소, 그래 설미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지배인동지가 기사장 할 때 하구는 모색이 달라서 처음엔 잘 몰랐답니다.》

《허허, 그 당돌한게 날 언제봤다구 그런 소릴 다한답니까?》

《지배인동지두, 그 애가 어릴적에 ...》

송연은 갑자기 말을 툭 끊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

영석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으나 더 묻기도 뻔했다.

《생활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일없습니다. 예서 무얼 더 바라겠습니까. 제이거 지배인동지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송연은 먼구스럽게 웃었다.

《사실은 나도 좀 당황했더랬습니다. 그렇다고 그 좌석에서 물어볼수도 없고... 그날 갑자기 왜 그랬습니까?》

《저 ... 우리 설미문제때문에 그랬습니다.》

《설미문제요?》

《네.》

송연은 나직이 한숨을 내뿜더니 자초지종을 이야기 하였다.

...그가 성형하던 제품은 하루소비량이 열댓개 밖에 안되는것이였으나 그것이 없으면 전기로에서 끓인 쇠물을 받아 케이스에 부을수 없었다. 생산공정도 원료배합과 성형에 이르기까지 어지간히 까다롭고 복잡하였다. 숙련공이 아니고서는 합격품을 내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송연은 몇해전부터 후비문제를 상정시켰다. 자기가 일을 그만두면 대신할 사람이 없었기때문이었다. 이렇게 되어 일을 배울 사람들이 오긴 했으나 인차 다른 직종에 옮겨가군 하였다. 그들의 말인즉 직업이라는데 좀 힘이 들어도 재미있던가, 영예롭다던가 해야겠는데 두가지중 어느 한가지도 갖추지 못한 따분한 직업이라는데가 있었다.

송연은 할 말이 없었다. 그 일은 다른 부문처럼 집체적으로 일하고 쉬고 하는 재미도 없었다.

또 소비량이 극히 적은것이여서 일꾼들의 관심도 적었다. 남들은 웃고떠들며 일을 하고 월말이나 분기말 총화때 주석단에도 자주 앉건만 그런 영에는 차례질수 없었다. 검사원이나 하루 한두번 얼굴을 들이미는 작업장에서 불합격품을 냐가봐 신경을 곤두세우고 퇴근시간까지 긴장하게 일해야 하는 직업, 량심적이고 책임적이며 잔잔한사람이 아니고서는 할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던중 두해전에 마음드는 사람이 왔다. 가정부인이지만 제격 일을 배웠다. 요즘 와서는 송연이 없어도 곧잘 하였다. 그런데 몸이 약한것이 결함이였다. 아파서 출근못하는 때가 드문하였다. 정말 크고 단참외 없다더니 옳은 말이였다. 그래서 은근히 속썩이던 중 딸 설미를 점찍게 되었다.

어머니에게 지극하고 눈썹미가 있으며 잔잔한 설미는 학교시절에 송연의 점심밥곽을 가지고 작업장에 자주 드나들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일하는걸 지켜보다가는 일손을 돕군 하였다. 방학때에는 더 자주 그랬다. 그때부터 그 일에 어지간히 숙련된 애였다.

했으나 송연은 딸에게 선뜻 내비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겠는지?... 송연은 이때처럼 설미가 어려워지고 그앞에서 몸가짐이 거북스러워보기는 처음이었다.

《어떻게 할지?》

송연은 집에서, 일터에 나와서도 망설이기만 하였다. 너무 생각하던 나머지 어느날 아침에는 가마에 안쳐야 할 쌀을 뜨물소랭이에 쏟아놓을뻔 하였다. 부엌에 내려오던 설미가 이것을 보았다. 그때부터 설미는 말이 적어지고 생각을 많이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밤 잠자리에서 그 애는 오래동안 뒤척거리더니 송연이쪽으로 돌아누우며 말을 꺼냈다.

《어머니, 어머니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알아맞춰보지요?》

《원 애두, 생각은 무슨 생각. 어서 잠이나 자렴.》

바라던 순간이었으나 왜그런지 시치미를 떼게 되었다.

설미는 반쯤 몸을 일으키더니 송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썩썩 후두운 코김이 송연의 얼굴에 덮혀있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일을 그만두면 대신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겠어요.》

《뭐라구?!》

송연은 놀랐다.

(그러니 요 깜찍한게 내 속마음을 다 들여다본게 아닌가.)

《그래 깊이 생각해보고 하는 소리냐?》

《네.》

《!》

송연은 솟구치는 정에 못건디여 설미를 담썩 꺼안았다. 성숙한 딸의 체취가 온몸에 미쳐왔다.

《우리 설미도 이제... 다... 컸구나.》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있었다.

이렇게 되어 설미는 송연이와 같이 일하게 되었다. 한동안은 직심스럽게 일했다. 그러다가 송연이가 퇴직수속을 할 때 갑자기 마음이 달라졌다. 다른데 직종을 옮겨가겠다는 것이었다.

가벼운 마음으로 일터를 떠러던 송연은 큰 장벽이 앞을 막은것 같았다. 당장 퇴직수속을 해야겠는데 어쩌면종단 말인가. 그날도 정양소에서 이런 생각에 빠져있던 송연이는 영석이와 마주선 순간 자기가 섰던자리 하나 훑바로 메꾸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불썩 솟구치는 눈물을 막을길이 없었던것이다.

《그래서였구나!》

영석은 이제야 그날 일이 리해되었다. 뜨거운 것이 전류처럼 발끝까지 내려흘렀다. 누가 시키지도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남들이 주저하는 자리에 자기 딸을 내세운 녀성, 그 일이 아무나 인차할수 있는 일이라면 그처럼 귀여운 자기 딸을 세웠겠는가. 영석은 이처럼 훌륭한 녀성을 공장에서 나간 오늘에야 알게 된것이 무척 아쉬웠다.

《송연동무, 정말...고맙소.》

그는 목이 매여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얼마후

그는 가벼운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른 문제는 아니고 설미때문에 그런다는걸 알았으니 한시를 놓였다.

《그런데 설미 마음이 왜 달라졌을가. 그 나이에 댜의 변일까?》

그런것 같지는 않다. 어머니의 마음을 다 알고 내린 결심이였겠는데 그렇게 쉽게 변할수가 있는가. 깊은 고민과 고충속에 내린 결심일것이다. 그러면 자기 어머니에게도 터놓지 못하면서 결심을 바꾸도록 떠민것은 무엇일까.

영석은 분망한 사업에 다몰리면서도 송연모녀의 일이 마음에 걸려 댜없이 생각에 잠기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영석은 마침 기회가 생겨 설미를 만나러 갔다. 작업장은 텅 비어있었다. 모두 건물뒤 올라리 쌓는데 나갔다고 하였다. 그리로 가보려는데 설미네 휴게실 창문가에 사람그림자가 얼찔거리는것이 눈에 띄웠다. 다가가 문을 열러던 그는 안에서 나는 귀익은 말소리에 손이 굳어졌다.

《어머니, 전... 어머니처럼 되고싶지 않아요.》

또랑또랑한 설미의 목소리.

《뭐라구? 갑자기 그건 무슨 소리냐?》

《어머니가 이번에 퇴직수속을 할 때 전 어머니의 전문학교졸업증을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때 어머니가 왜 후방부 수의사로 일했는지도 알게 됐어요. 자격증을 가지고서도 여기 내화물에서 한생 일했어요. 그렇지만 누가 기억해주는 사람이나 있나요. 어머니가 후방부 수의사로 일할 때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때 생산이 바빠 어머니는 여기 내화물직장에 립시로 동원되어 일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머니의 일솜씨를 몹시 칭찬하던 생각이 나요. 그러나 어머니가 자기 직종으로 옮겨온지 얼마 안되어서 집에 찾아온 지배인동진 뭐라고 했나요. 당장 생산과제가 걸려 그러니 당분간만 봐주구 전공부문에 다시 가자구했지요? 그러나 어떻게 됐나요. 다 잊어먹지 않았나요. 그때문에 어머니는 짧은 시절의 꿈을 고스란히 가슴속에 묻고 로동생활을 마치는 마지막날까지 성형공으로 일해야 했어요. 전공부문에서 일할수 있는 어머니를 여기에 붙들어 매놓구두 지배인동진은 언제 한번 생각이나 해봤나요. 분해요. 웃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무관심할수 있나요. 싫어요. 흐음...》

《...》

영석은 다음말을 더 들을수 없었다. 육중한 그 무엇에 호되게 머리를 맞은듯싶었다.

(어쩐지 자꾸 낮익다 했더니 류송연이 그때 그 녀성이었구나!)

그는 너무도 놀라 숨이 꺾 막히는것 같았다. 까맣게 잊었던 그 일이 영화화면처럼 생생히 되살아났다.

10년전 새롭게 떨어진 긴급생산과제수행을 위한 생산실패를 료해하면 그는 전기로남비출구벽돌의 질이 낮아 강철직장들에서 생산에 지장을 받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내화물직장에 알아보니 그 벽돌을 찍던 유능한 기능공이 퇴직한 다음부터 그런다는것이였다. 당시 기사장이였던 영석은 새겨듣지도 않았다. 그게 무슨 신비한거라고 그러는가, 극상 하루에 열댓개면 되는 벽돌때문에 큰 공장이 먹을 잡혀 찢찢 맨다는게 믿어지지 않았다. 그래 현장에 나가 협의회도 하고 형타제작을 비롯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다 해결해주었다. 하지만 개선이 없었다. 이때에야 그 일이 숙련로동이라는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래서 긴급협의회를 열고 기능공문제를 상정시켰다. 여러가지 대책안들이 튀어나왔지만 당장 떨어진 긴급과제수행에 적절한 대안이 못되었다.

그런중 얼마전 새해 첫달 생산전투가 벌어졌을 때 립시동원되어나왔던 후방부 수의사녀성이 물망에 올랐다. 눈썰미가 있고 일손이 땀짜 동원되어 얼마 안되어서부터 성형작업을 익히고 척척 합격품을 뽑아냈다는것이다.

직장에서도 그 솜씨가 아까와 후방부에 사정사정하여 동원날자를 여러달 미루다가 후방부에서 돼지분산사육(세대별로 새끼돼지를 나누어주어 사육하는 방법)을 도입하면서 수의사력량이 딸려도루 자기 직종으로 돌아갔다는것이다. 딱했다, 전공부문에 가는거야 응당하지 않는가. 그러면 벽돌생산은... 생각다못해 후방부에 전화를 거니 그 녀성은 요즘 집수리때문에 휴가를 받았다는것이다.

영석은 곧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부엌을 뜯고치는지 활짝 열린 부엌안에 몰탈 무지며 벽돌장이 무뚝히 쌓여있었다.

마당에는 여러문명의 사내아이들이 겨꿈내기로 뛰여놀다 꾸벅꾸벅 인사들을 한다.

영석은 그중 제일 커보이는 사내아의 머리를 꼭 눌러주고 주인을 찾아 방문을 열었다. 40대쯤 나보이는 녀인이 딸인듯싶은 처녀애를 안고 영석을 맞았다. 영석은 그의 권고대로 방안에 들어가 앉아 공장실패를 터놓고 말해주었다.

송연은 머리를 수그리고 손가락으로 방바닥에 자주 덧금만 그을뿐 인차 대답을 못했다.

따분한 침묵을 깨뜨린것은 세대주였다.

《여보, 어떻게 하겠소. 오죽하면 기사장동지가 집에까지 찾아오셨겠소. 당신도 공장종업원인데 공장일을 앞에 놓고 생각해야 하지 않겠소.》

시안의 어느 기업소에서 기사로 일한다는 기름한 얼굴에 어딘가 강기가 느껴지는 세대주가 고맙게도 영석이 혼수를 들어주었다.

그제서야 송연은 머리를 들었다. 아쉬운 기색이 얼굴에 력력하였다.

《기사장동지. 미안합니다.

후방부로 돌아와 오래동안 놓았던 일손을 다시 잡으니 막 재미를 느끼던 때여서 인차 대답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송연은 미안한 표정을 짓고 가볍게 고개를 숙여보 이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저도 이야길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제기될줄은... 할수없지요 뭐. 아무래도 현재 그 일에 제가 책임자라면 기꺼이 다시 동원되겠습니다. 후비가 준비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리해해주니 고맙소. 인차 대책을 세우겠으니 당분간만... 좀... 와주오.》

그런데 그 당분간이 10년도 넘었다. 건강미와 젊음이 넘치던 40대의 녀인은 이제 머리에 흰서리를 띄이고 할머니소리를 듣게 되었다. 이 기간 그가 겪은 고충과 남모르게 바친 수고를 어떻게 다 헤아릴수 있겠는가. 남편과 다섯자식의 뒤바라지, 자기 전공에 대한 미련, 《고난의 행군》, 험치않은 생활의 길을 그는 묵묵히 걸어왔다. 단 한번만이라도 자기를 찾아와 푸념했거나 방조를 요청했어도 영석은 이다지 가슴쓰리고 아프지 않을것 같았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이런 일이 빚어지게 되었는가. 송연이가 다시 내화물에 온 다음부터 무관심했던가? 아니였다. 그날 송연이네 집에 다녀온 후에는 보수직장에 파업을 주어 집수리도 해주었고 진짜 《당분간》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맞춤형 대상을 골라 후비로도 붙여 주었다. 그리고 한동안은 기회가 생길 때마다 알아도 보았다. 알아볼적마다 송연이도 후비로 붙여준 대상도 변동없이 일하고있었다. 그때부터 조금씩 탕개가 풀리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지배인이 되었다. 회의, 출장, 돌발적으로 제기되는 사업... 전기로남비출구벽돌 문제는 다시는 제기되지 않았다. 눈앞에 닥치는 수습가지의 《크고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들에 들볶이우는 속에 그 일은 한발두발 뒤전으로 밀리다가 기억에서조차 사라지고말았다.

아, 그렇게도 까맣게 잊을수 있을까. 송연이가 돼지와 병을 치료해주는것을 보면서도 설미가 날대하기 거북해하는 기미를 눈치채고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영석은 이때에야 비로소 송연이가 모든 사람들이 금지에 넘쳐있던 정양소에서 왜 홀로 눈물을 흘리게 되었는지, 공장일을 그만둔 다음에도 맘편히 쉬지 못하고 속을 썩이게 되었는지 진짜 원인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설미때문이 아니였다. 바로 나때문이었다 나때문에 설미의 마음이 달라졌고 송연이가 마음고충을 겪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장본인인 나에게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내가 무안해할가봐?... 그랬을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애당초 지배인인 내 얼굴을 봐서 일하지 않았다. 그랬더라면 몇달을 건디지 못하고 그 일을 그 만두었을것이다. 그러구보면 우리 로동계급의 정신세계는 얼마나 높고 고상한가. 샘처럼 깨끗하고 쇠물처럼 뜨겁고 하늘처럼 높은 정신세계를 지닌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봐줘야 할 나는 어떻게 일했던가 그시그시 바쁜 구멍이나 메꾸는 식으로 땀때기 식으로 일하지 않았는가.

문득 자기에게 매일 허리굽혀 인사하는 종업원

들속에 제2의 류송연, 진설미가 또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일군들이 나처럼 생산 하나만 알고 사람들의 운명문제를 무시한다면 그 처럼 큰 죄악이 어디에 있겠는가.

아, 바로 나같은 일군들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을 바로 잡을데 대하여 그처럼 간곡히 가르치고계시지 않는가.

그렇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일군은 인민군군인들이 《우리 중대장》, 《우리 대대장》이라고 부르는 인민군지휘관들처럼 《우리 지배인》이라고 부를수 있게 일하여야 한다. 제아무리 정열이 있고 능력있는 일군이라 하여도 사람들의 운명을 책임질줄 모르면 강성대국건설로 들끓고있는 오늘의 현실을 따라갈수가 없다.

뜨거운 인간애는 선군시대 일군들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품성중의 하나이다. 때문에 일군은 생산문제앞서 사람들의 운명문제부터 생각할줄 알아야 한다. 필요한 때에는 관심을 두다가도 그 순간이 지나면 잃어버리고마는 사람은 일군의 자격이 없다.

삐를 쭈시는듯 한 자책감에 모대기던 그는 자기를 찾는 소리에 편득 정신이 들었다.

앞에 송연이가 서있었다. 휘뿌런 가로등이 송연이 발밑에 짙막한 그림자를 지어놓고있었다. 영석은 그제서야 자기가 내화물직장엘의 강안도로우에 서있다는것을 의식하였다.

언제 내화물직장 휴게실앞을 떠나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의식되지 않았다.

《송연동무, 날... 원망했겠지?》

《지배인동지두 참. 무슨 그런 말씀을... 철없는 애말을 듣고 너무 신경쓰지 마십시오. 다 지나간 일이 아닙니까.》

송연은 제가 더 안타까와 이렇게 위로해준다. 사려깊게 이쪽을 주시하는 순박한 눈...

《고맙소 송연동무.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도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 있소. 송연동무같은 사람을 잊고살았으니 내 무슨 일군이겠소. 설미문제는 마음놓으시오. 나때문에 벌어진 일이니 내가 바로 잡아야지.》

영석의 목소리는 한없는 무게를 안고 진폭이 크게 울리었다.

다음날 영석은 공장간부협의회끝에 심각한 자기 비판을 하였으며 일군들에게 뜨거운 인간애를 지니고 종업원들의 생활을 돌봐주자고 절절히 호소하였다...

그날 밤, 송연의 집에서는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설미를 앞에 앉힌 송연이 무겁게 깔린 음성으로 설미를 타일렀다.

《너도 이제는 웅석이나 부릴 나이가 아니다.

이제는 로동계급의 한 성원이고 나라앞에 자기의 몫을 해야 할 나이다. 난 아까 집에 찾아온 직장장동무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파 아무 말도 못했다. 지배인동지는 큰 공장을 맡아안은 일군이다. 수천명의 종업원들을 책임진 그가 어떻게 매 사람들의 일을 일일이 관심할수가 있겠니? 그

런데도 너와 나때문에 가슴을 찼다누나.

우리 일군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그런 일군들을 잘 받아들여야 공장일이 잘되고 나라일이 잘된다...

그런데도 너는 이 어머니가 오늘토록 성형공으로 일했다고 무슨 큰 희생이나 한듯이 생각하는데 그건 옳은 생각이 아니다.

나도 처음엔 그런 생각을 안한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능이 점점 높아지고 공장에서 나를 대신할 기능공이 없다고 생각하니 궁지감이 생기더구나. 그러면서 후방부에서 일하는것보다 공장을 위해 한성 성형공으로 일하는것이 나라앞에 더 유익한 일이라는 자각을 가지게 되었다. 설미야, 사람은 자기를 생각하기에 앞서 공장과 나라를 위해 자기가 설 자리를 바로 찾는것이 중요한 일이다...》

그로부터 나날이 흘렀다. 영석은 드바쁜 속에서도 설미가 일하는 성형장을 자주 찾았다. 어떤 때는 설미의 일손도 이것저것 거들어주기도 하였다. 그 나날에 영석을 어려워하던 설미의 얼굴에 화기가 돌았고 은근히 영석을 기다리는 눈치도 보였다.

어느날 아침이었다. 출근길에 올랐던 영석은 내화물직장 채 못미처있는 길옆 가로수결에서 혼자 눈굽을 닦고있는 송연이를 보게 되었다. 그의 손에는 밥보자기가 들려있었다. 영석은 그에게로 다가갔다.

《송연동무, 무슨 일입니까?》

그는 눈굽이 벌거우리해진 송연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까닭없이 불안이 갈마들었다.

《요새 내내 말이 없던 애가 오늘 아침 새벽에 나가 들어오지 않길래... 찾아오던 길입니다. 그런데 글썽 그 애가... 저기서...》

송연은 말을 맺지 못하고 돌아서서 눈굽을 훔쳤다. 그러면서도 얼굴표정만은 밝았다.

그가 가리킨 곳을 바라보던 영석은 불편을 어루쓸며 느슨한 웃음을 지었다. 곤청색작업복을 가쁜하게 차려입고 새빨간 머리수건으로 머리를 꼭 싸맨 설미가 팔을 올려붙이고 앉아 직장건물 앞 공지에 꽃모를 심고있지 않는가. 벌써 내화물 직장건물 꼭대기에 솟아오른 아침해가 설미의 이마에 내뻗 땀을 기름처럼 번질거리게 했다. 남들이 출근하기 전에 혼자 다 심어버릴 작정을 했는지 결눈 한번 팔지 않고 열심히 일손을 놀린다.

그러는 그가 얼마나 대견한지 몰랐다.

《송연동무, 이젠 설미가 재미를 붙인것 같구만.》

《네, 지배인동지덕에 이젠... 마음을 놔두 일없겠...》

송연은 목이 메여 말을 채 맺지 못했다. 마음속 근심을 씻으며 두줄로 흐르는 눈물. 입가에 피어난 함박꽃웃음... 그는 설미한테서 눈길을 땔줄 모른다.

(얼마나 기쁘면...)

영석은 뜨거운것이 쿡 눈굽을 지저대며 슬그머니 고개를 돌리고 말았다. 진심을 바치면 이렇게 웃음꽃이 피는 소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

해 내가 한것이 무엇이며 바친것이 무엇인가.
일군의 책임감을 새롭게 감득하게 되는 아침이
였다.

《송연동무, 어서 설미를 만나보오. 그리구 이젠
다시는 그런 걸음을 걷지 마시오.》

《고맙습니다, 지배인동지!》

송연은 한달음에 달려갔다. 설미도 수건을 벗

어들과 마주 달려왔다. 그들의 머리우에서 아침
해빛이 유난히도 반짝거린다. 싱그러운 바람이
불었다. 방금 옮긴 꽃모들이 춤추듯 싱싱한 이파
리를 흔들었다.

영석은 온몸에 팽팽하게 솟구쳐오르는 사업의
욕을 느끼며 성큼 걸음을 내짚었다.

상식

유채

유채는 배추과의 한두해살이작물로서 일명 기
름남새라고도 한다.

일찌기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유채는 기름실수물
이 높고 수확고도 괜찮다고 하시면서 유채를 심
어 기름을 짜는것이 무우나 배추를 심어 씨를 받
아 기름을 짜는것보다는 낫다고 교시하시였다.

유채는 씨앗안에 기름함량이 높은 기름작물의
하나이다.

유채씨앗에는 기름이 흔히 38%(가을유채
45~50%, 봄유채 32~35%정도 들어있으며 맛도
좋다. 이 기름은 여러가지 비타민이 많고 소화가
잘되기때문에 먹는 기름으로뿐아니라 비누, 안료,
와니스 등 경공업제품과 의약품원료로 리용되며
기계기름으로도 쓰인다.

유채의 잎, 줄기는 남새로 쓰이며 또한 많은
영양물질이 들어있어 좋은 먹이 및 록비작물로
된다. 유채의 원산지는 유럽의 서북부 바다기슭
과 지중해기슭의 넓은 지역이다.

우리 나라는 아시아에서 채배력사가 가장 오랜
나라이며 그후 점차 중국과 일본에 퍼졌다.

우리 나라에는 《장연유채》, 《유채5》호, 《경
매유채》 등 품종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여러 지방
에서 여러가지 목적으로 앞뒤그루나 원그루로 재
배되고있다.

유채의 가을걷이는 꽃핀 후 35~45일사이에 잎
이 다 벌어지고 줄기와 꼬투리가 누른색을 띠며
꼬투리안의 씨앗이 자기의 고유한 색깔을 띠
는것이 좋다. 씨앗의 물기가 8~10%되게 말려
서 보관한다.